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7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0 호(378)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의 현상태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전면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되는 혁명의 성격과 과업,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실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에 가장 정확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오늘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이 세가지 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수령님의 전사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이다.

* *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시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계속혁명리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4페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로정에서 볼 때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쌓아놓은데 지나지 않으며 이것으로써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이 완수될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의연히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수준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생활수단을 풍요하게 보장할수 있을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혁명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혁명을 계속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자체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

은 계급투쟁의 과정이며 심각한 혁명의 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인것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로동계급적인것의 전반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위대한 변혁을 의미한다.

이 거창한 혁명적변혁은 아무런 투쟁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수는 없다.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전진할수 없으며 투쟁이 없이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적인것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는 변혁적과정은 오직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로운것을 창조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간의 투쟁을 통해서 실현된다.

착취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게 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간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간의 투쟁, 총체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투쟁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낡은것을 반대하는 새것의 투쟁이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유물들은 로동계급적인것, 공산주의적인것과 대립되는것이며 그것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곧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더우기 이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이 악랄하게 계속되고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파괴활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진행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매우 심각하고 비상히 폭넓게 진행되는 계속혁명의 과정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만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으로써 혁명이 끝난다고 보고 그것을 중단한다면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할수 없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양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사회주의하에서 계속해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이며 이 세가지 혁명을 잘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것은 천리마기수들과 모든 근로자들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다.

지난 시기의 혁명투쟁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착취제도를 쳐부시는 투쟁이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는데 혁명의 주되는 화살이 돌려졌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사회경제적조건이 달라지며 투쟁대상과 혁명의 임무도 이전시기와 같을수 없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사회성원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만든 다음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이 중심문제로 된다.

경제건설분야에서는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세우는 혁명과업이 이미 해결된 조건에서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이 당면한 중심과업으로 나선다.

문화생활분야에서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는것이 기본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에 주되는 화살이 돌려지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사회주의하에서의 중심적인 혁명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갈 때 착취사회의 유물인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이전의 혁명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 세가지 혁명은 사회제도를 교체하기 위한 지난 시기의 혁명과 달리 이미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혁명이다.

사회주의제도는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고 그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주는 터전이다. 그것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대중이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놀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옹호보위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혁명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의 근본지향이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또한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진행되는 혁명으로서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는 혁명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투쟁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없어지고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적사회관계의 근본요구,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에 확고히 의거하여 비폭력적방법으로,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는 방법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비폭력적방법으로 진행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이며 적극적인 대중적투쟁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은 사상혁명수행을 위한 기본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72페지)

사회주의하에서의 사상혁명은 사람들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며 그것을 뿌리빼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것이다. 폭력적방법으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없앨수 없으며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없다.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문제는 오직 꾸준한 설복과 교양의 방법, 낡은 사상 잔재와 그 온갖 표현들을 근절하기 위한 비판과 사상투쟁의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할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교양, 사상투쟁의 방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혁명적방법으로 된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계속혁명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리론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수령님에 의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은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정연한 과학적리론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관한 리론은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하여야 할 혁명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가르쳐줌으로써 명확한 투쟁목적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옳은 전략전술을 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지름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할수 있게 한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리론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혁명을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포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단순한 개량이나 계몽, 실무적인 기술경제사업으로 보려는 그릇된 견해와 편향을 짓부시고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력사적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쟁취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실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리론과 탁월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령적 지침이며 승리의 기치이다.

* *

우리 당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실증된 가장 옳은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이 세가지 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져졌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은 우리 사회제도의 튼튼한 정치적 기초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고있다.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일군들의 일본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의 근로자들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적극분자로, 침체와 답보를 물리치고 오직 전진과 혁신만을 아는 선진분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전체 인민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 혁명적기백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참으로 위대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지금 혁명의 도가니속에서 들끓고있으며 온 사회는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사상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인간개조사업, 사상개조사업이 우리 나라에서 매우 훌륭히 풀려나가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초하여 경제, 문화 생활분야에서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변혁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술혁명 특히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기계공업부문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밑에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였다. 특히 기양의 로동계급은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인 완전히 자동화되고 현대화된 대규모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일떠세워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기술혁명의 불길은 금속공업, 채취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과 경공업, 기본건설, 체신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다같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 김책제철소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기간적 야금공장들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 그 모습을 일신하게 되였으며 탄광과 광산들의 기술장비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현대적설비를 갖춘 대규모화학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서게 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의 과업에 따라 수리화, 전기화를 완성한데 뒤이어 기계화, 화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간 결과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의 기술장비수준이 급속히 높아지고있다.

3대기술혁명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이 정상화되여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마련된 나라의 거대한 경제적잠재력이 날로 은을 더욱 나타내고있다.

우리 나라의 공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전기간에 걸쳐 매우 높은 생산장성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작년에는 1948년에 비하여 38.7배에 달하는 높은 생산을 보장하였다. 농촌경리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 해마다 높고 안정된 수확을 내였으며 올해에는 례년에 없었던 대풍작을 이룩하여놓았다.

이리하여 지금과 같은 발전속도와 기세로 계속 전진한다면 6개년계획의 주요지표들을 1975년에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된다.

문화혁명의 과업이 훌륭히 수행되여 나가는데 따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민족간부양성사업이 발전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민족간부의 대부대가 마련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 사람들을 개조하고 사회의 면모를 일신하는데서 놀라운 전진을 보게 되였다.

생활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로선이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로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확신성있게 이끌어주는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

서 다시금 사상, 기술, 문화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모든 사업을 혁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답게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깐지게, 알뜰하게, 이악하게 하도록 하며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생활이 좋아지고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을수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로동을 사랑하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상단련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적수양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자기 임무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방침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하루빨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기계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뜨락또르, 자동차, 굴착기, 차량, 선박, 공작기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이다. 그리고 농촌에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이 대대적으로 공급되는데 따라 각 지방들에 련결농기계 및 부속품 생산기지와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이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대담하게 마스고 근로자들속에서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혁명분야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고 가까운 앞날에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양성할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적인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더 잘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대한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사업에서 행정화, 행정대행의 사소한 편향도 철저히 경계하고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 전체 인민이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전투적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들을 창조하면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주인답게 살며 일하는 혁명적기풍과 난관앞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굽힘없이 전진하는 혁명적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차게 벌릴데 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더욱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나라의 주인이며 당의 참된 전사들이다

어떤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그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크게 달려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선진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세대들입니다. 생기발랄하고 원기왕성하고 용감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것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02페지)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훌륭한 자질로 하여 사회혁명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에 서며 나라와 민족의 래일을 대표하는 역군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이 진실로 큰 역할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어떤 령도를 받으며 어떻게 교양되고 훈련되는가에 달려있다.

용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열에 불타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옳은 령도와 교양을 받지 못할 때에는 자기의 훌륭한 자질을 충분히 발양할수 없으며 사회발전에서 선진투사의 역할을 다 할수 없다.

청년문제, 그것은 실로 나라와 민족, 혁명의 전도와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모든 청년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청춘의 지혜와 재능, 그들의 모든 훌륭한 자질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주인공으로,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자라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을 담뿍 받고 자라난 우리의 청년들은 당의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답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에날마다 위대한 변혁을 창조하고있다. 그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전초선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하고있으며 천대, 만대를 두고 노래할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고있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청년문제를 혁명과 건설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로,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발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의 청년운동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청년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일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그것을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의 청년운동의 임무와 내용 그리고 청년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을뿐아니라 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 (우와 같은 책, 98페지)

일제의 검은 구름이 조국땅우에 무겁게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앞날을 개척하여나

갈 청년혁명가들을 길러내시기 위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여러가지 혁명적인 청년조직들을 무으시였으며 손수 육성하신 청년애국자들을 묶어세워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간고한 무장투쟁행정에서 수많은 애국청년들을 혁명대오에 받아들이여 열렬한 애국자로,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로 키우시였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할 빛나는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마련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 그 깊고 억센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의 청년운동은 줄기차게 발전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제때에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권위있고 힘있는 혁명적인 청년조직을 창건하여주시였으며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청년들을 새 조선의 당당한 건설자로, 기둥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람찬 혁명임무를 맡겨주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보살피심에 의하여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는 그 벅찬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서 나아갔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끝까지 영웅적으로 싸웠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청년문제의 본질을 밝히시고 새세대들을 혁명화하여 혁명의 대를 이음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여 벌써 해방후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5페지)

어버이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하에서 청년운동이 나아가야 할 총적방향을 새롭게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청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계승자를 육성하는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세대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혁명화하지 않고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도 없다.

오늘 사회주의하에서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자라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준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못하는가하는 날카로운 문제로 나서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옳게 키우지 못할 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지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혁명가로 키울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실

적요구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울데 대한 창조적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밝히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의 청년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견결한 혁명가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주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니고있는 정치도덕적풍모에서 무엇보다도 특징적인것은 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수령님을 따르며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목숨바쳐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그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의 주체교육을 받고 자라난 새세대들로서 모두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있다. 모든 청년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사고와 행동에서 유일한 지침으로 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대로 생활하고 행동하는것을 확고부동한 신조로 삼고있다. 그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라는 높은 혁명적신념을 굳게 간직하고있다.

주체교육에 의하여 자라난 우리의 새세대들은 수정주의, 사대주의를 모르며 자본주의사회의 낡은 사상에 오염되여있지 않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은 주체가 튼튼히 선, 현대적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소유한 새형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되고있다.

우리의 청년들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한 우리 당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자라난 새세대들로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고있다. 그들은 단순한 《글뒤주》로서가 아니라 배운 지식을 실천에서 훌륭히 써먹을줄 아는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새 일군으로 자라났다. 그들은 락후한 기술과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기술을 가려볼줄 알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능히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있다.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청년들은 또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고 새롭고 선진적인것을 지향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혁명적인 새세대들이다.

그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세대답게 언제나 새것에 민감하며 창조와 혁신을 위하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며 그것을 불사르는데 앞장에 선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울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창조적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성을 산 현실로 똑똑히 보여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청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계승자육성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청년문제해결의 산 모범으로 되며 그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도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은 우리 인민이 훌륭히 준비된 혁명의 계승자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몹시 부러워하고있다.

실로 우리의 청년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붉은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진도는 휘황하며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　　　　　　*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수령님의 붉은 혁명전사로 자라난 우리 청년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투적과업인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당의 친위대, 결사대의 역할을 수행할데 대한 영예로운 임무를 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의 표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40~41페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심과업이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 청춘의 모든 힘과 지혜, 창조적열정을 다 바치는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 없이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있는 혁명적기질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시고 보람찬 혁명투쟁의 힘있는 담당자로 내세워주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수령님의 이 크나큰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안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모든 전선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온갖 낡은 사상, 비혁명적인 사상을 반대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가고있다.

청년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수령님의 교시를 성실히 관철하지 않는 표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리여 그것을 철저히 불태워버리고있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그들의 정치사상적풍모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이 기침없이 생산자대중속에 접수되여 더욱 힘있게 관철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가 튼튼히 서게 된 결과 사람들의 일솜씨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사상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솜씨가 달라짐으로써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분야에서도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새 기술을 받아들이며 보급하는데서 가장 적극적이고 대담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뒤떨어진 수공업적기술을 없애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낡은 기술기준을 마스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10페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우리의 청년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대담하게 마스고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데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투쟁을 떠나서 어떠한 혁신과 앙양도 일어날수 없으며 혁명이 전진할수 없다.

우리는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반대하는 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할수 있으며 혁명은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청년들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청춘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고있다.

청년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기술혁명의 봉화가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낡은 기술은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모든 기술공정들이 기계화, 자동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동은 더욱 흥겨운것으로 되고 생산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청년들은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문화혁명수행에서 특히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은 청년들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년들의 보람찬 투쟁에 의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면모는 일신하게 되였으며 거리와 마을들이 더욱 문화위생적으로 깨끗이 꾸려지게 되였다.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생산실습을 나간 청년대학생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를 소유한 우리 시대의 대학생으로서 대중과 현실 속에서 진지하게 배울뿐만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어떻게 하면 더 훌륭히 구현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는가 하는 충성의 일념만을 안고 현지실습에 내려간 첫날부터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붉은 대학생답게 주인된 립장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기울이고있다.

현지생산실습을 위하여 조양탄광에 나간 평남석탄공업대학 붉은 대학생들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붉은 대학생들은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을 짓부시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함으로써 발파를 위한 소갱도를 뚫는 작업에서 20배의 능률을 내면서도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는 전기식착공기를 만들어 생산에 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대학생들은 탄부들의 생활에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가 더잘 미치게 하기 위하여 마을을 꾸리고 탄부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실로 많은 일을 하였다. 그들은 군중을 동원하여 수도화를 실현함으로써 탄부들의 가정마다에 맑은 물이 흘러들게 하였으며 탄광마을의 편의시설들과 문화시설들을 더욱 아담하게 꾸려놓았다.

실습나간 대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곳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오늘 이 탄광마을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강원도 천내군 삼화협동농장에 실습나간 원산농업대학의 처녀대학생은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발휘하여 농산작업을 기계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농장의 뜨락또르운전수들과 수리분조원들을 사상적으로 동원하여 모내기전에 멈춰선 뜨락또르들을 모두 수리하여 열두정보나 되는 다락논을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하였으며 유휴자재를 리용하여 원동제초기, 논뚝짓기기계를 비롯한 수많은 농기계들을 만듦으로써 농장의 종합적기계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대학생들은 모든 사업을 언제나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대중의 힘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훌륭히 풀어나가고있다. 그들은 모든 사업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대학생들은 현지실습과정을 또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고 더욱 굳게 하는 과정으로 삼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과정을 통하여 대학생들은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일군으로 준비되고있으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있다.

현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의 청년들을 굳게 믿어주시고 그들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전초선에 세워주신 혁명적방침이 전적으로 옳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혁명전사로 얼마나 훌륭히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수령님의 품속에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난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에 대하여 커다란 신임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청년들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우리의 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의 참된 전사들로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한 우리앞에는 그 어떤 점령하지 못할 요새도 있을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대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당은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

박 수 동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우리 당 건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에 기초하시여 맑스-레닌주의당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최근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에서 당의 혁명적본질과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하에서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이 사상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밝혀주신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한층 높일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당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또하나의 탁월한 기여로 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진수를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사회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온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여나가는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로동계급의 당이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수령의 혁명사상을 넣어주고 낡은것을 극복하는 부단한 신진대사과정을 통하여 온 사회를 하나의 정치적생명체로 되게 하고 그를 끊임없이 움직여나가는 정치적참모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당이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당이 노는 역할을 명백히 하여주시였다.

당이 우리 사회의 심장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선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22 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사회이며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조직화된 붉은 대가정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가 모든 근로대중을 망라한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유기체를 이루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는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이 정연하게 마련되여있으며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그것들이 각각 자기에게 부과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여기서 로동계급의 당은 핵심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당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립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여러 조직들과 기구들은 바로 당의 통일적인 지도밑에서 움직인다.

마치 사람의 유기체내에서 심장을 떠난 혈관을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당을 떠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와 그 기구들을 생각할수 없다.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이여의 조직과 기구들이 대신할수 없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사회의 심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사회라는 하나의 통일적인 거대한 사회적유기체속에서 당이 차지하는 고유한 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심장인 로동계급의 당은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넣어주어 그들이 정치적생명을 유지해나가고 온 사회가 하나의 위대한 정치적생명체로 움직여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심장이 쉬임없이 혈관을 통하여 사람의 유기체내에 피를 뿜어주듯이 로동계급의 당은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수령의 혁명사상 즉 정치적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주어 사회의 신진대사를 실현해야 한다.

당은 바로 사회주의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그리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빠짐없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며 과학적인 지식과 혁명적사업방법을 가르쳐준다. 이와 함께 부단한 신진대사과정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온갖 낡은 현상들을 가셔내며 새것을 부단히 흡수하고 조장발전시켜 새로운것, 선진적이며 혁명적인것이 온 사회에 차고넘치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을 위한 조직이다. 즉 로동계급은 혁명을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을 조직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은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을 위하여 부단히 움직여야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오직 당이 이러한 역할을 옳게 수행함으로써만 혁명이 계속 전진하며 사회가 발전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친히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 이 땅우에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의 매개 당원들은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더불어 불리우는 존엄있고 권위있는 당의 영예로운 당원들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온 누리에 빛내이며 꽃피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이다.

우리 당은 당조직을 통해서 직접 당원들에게 그리고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모든 비당원군중들에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있다. 또한 우리 당은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준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부단히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거대한 혁명적추동력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이 심장으로서, 원동력으로서 사회의 신진대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수령님의 사상은 사회주의사회를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근본요인이 무엇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가를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당이 사회주의사회의 심장,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원래 맑스-레닌주의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해야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전체 근로대중을 수령이 내세운 혁명위업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인 당으로 될 때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사회의 심장,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이 심장이며 원동력으로 된다고 하신 수령님의 사상은 혁명의 선봉대, 참모부로서의 당에 관한 리론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여러단계를 거쳐 심화발전된다. 즉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새 제도를 세운 다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에서 당은 언제나 근로인민의 선봉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모든 혁명투쟁이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건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일반화하신 토대우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로부터 당건설의 기본원칙과 당사업리론 특히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와 당적령도에 관한 리론 등 당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당건설과 당적령도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오늘의 조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실천활동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24폐지)

수령님께서는 최근에 하신 교시에서 근로대중의 선봉대이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이 사회주의사회에 와서는 사회의 심장으로 되여야 하며 원동력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새롭게 밝히시였다.

로동계급의 선봉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의 심장으로, 혁명발전의 원동력으로 되여야 한다는 수령님의 사상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그 폭을 넓히고 심도를 더욱 깊이 할수 있게 하여준다.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시기에도 당은 계급의 선봉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성원들의 운명, 그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완전히 다 책임질수는 없으며 따라서 사회의 심장,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다 놀지는 못한다.

오직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운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당이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사회의 심장으로서,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사회를 원만히 움직일수 없고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다시말하여 혁명투쟁을 계속하고 혁명위업을 완성하자면 당은 사회의 심장으로서 계속 힘차게 맥박치면서 뛰여야 하며 사회에 계속 영양소와 활력소를 넣어주고 새것과 낡은것과의 신진대사를 부단히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란 로동계급이 주인노릇을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그런데 로동계급이 주인노릇을 잘하자면 주권을 전취하고 생산수단을 장악할뿐아니라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의 전반을 자기의 계급적본성에 맞게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고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령도하는 당은 온 사회에 피와 영양소를 계속 공급하고 사회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현상들을 완전히 없애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에 맞게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는 신진대사를 부단히 진행해야 계급의 선봉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이 사회주의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이라는 수령님의 새로운 정식화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역할에 관한 일반적원리를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으로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심장,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사회의 신진대사를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며 당조직들과 당원들, 광범한 군중을 부단히 움직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사업에서 행정화의 경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원래 당사업이란 사람들의 사상을 계발하고 자각성을 발동시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조직정치사업이다. 그러므로 명령지시나 하고 통계나 받으며 일이 잘못되면 추궁이나 하는 등의 행정식사업방법은 당사업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시기에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자명하였으며 이것을 어기고서는 한걸음도 혁명투쟁을 전진시킬수 없었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쥐고 집권당으로 되면 아직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수립되지 못한 사람들,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이 철저히 서지 못한 사람들, 혁명투쟁의 경험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당의 권위를 함부로 람용할수 있는 위험성이 조성된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식방법으로 대치하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과도 맞지 않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당은 언제나 혁명을 령도하는 기관으로 되여야 하며 정치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즉 사람을 움직이는 기관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만일 이렇게 하지 않은 때에는 당이 비록 사회의 령도기관으로 되었다해도 실지로는 그 역할을 잘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마치 사람의 심장이 멎는것처럼 당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다.

당사업에서 행정화의 경향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의 투쟁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력사적위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놀게 하며 주인다운 생활을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8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서 명백히 알수 있는것처럼 맑스-레닌주의당이 자기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자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줄뿐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가 잘 실현되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어야 하는것이다.

그러자면 당이 모든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사회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일깨워주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당과 국가가 근로대중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의 권리를 향유한 근로자들이 사회앞에서 지닌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로부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 근로대중이 이에 상응하게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원만히 다하도록 하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는것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가자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집단이 매개 사람들을 위하여 더 잘 관심하는 동시에 각자가 자기 하나만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지 않는 사상 즉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요소들을 극복하고 각자가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높이며 집단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강제와 해고, 자유경쟁 등의 외적자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외적자극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조직되며 사회가 움직여나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주인인 근로대중의 창조적열성과 자각성여하에 따라 모든 일의 성과여부가 좌우된다.

이로부터 당은 모든 근로자들이 집단을 위하여, 전사회를 위하여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해야 한다. 이밖에 다른 길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당은 그 어떤 사소한 행정화의 경향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정치사업, 사상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목적과 내용,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원칙들과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가르쳐주는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원래 당은 투쟁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일을 되는대로 하고 투신하지 않는 등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과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고 이악하게, 알뜰하고 실속있게,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이 사회의 심장,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자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은 정치, 경제, 문화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완전히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며 계급의 선봉대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결정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자면 무엇보다도 당조직이 발동되고 늘 움직이는 산 전투적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수령님의 교시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조직사업을 깐지게 하고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각급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높이며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의 배합작전을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또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당의 방침대로 당조직은 간부들을, 간부들은 당원들을, 당원들은 비당원군중들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조직이 발동되고 전당이 움직이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으로 더욱 심화발전시키신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리론, 당의 령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더 잘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당의 위력과 혁명대오의 전투력을 더욱 철벽으로 다지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당정책관철의 기본

한 병 희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당의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이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최근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다운 태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일을 더욱 깐지고 알뜰하게, 이악하게 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최근시기 사상사업을 앞세울데 대하여 주신 여러차례의 교시는 당사업을 비롯한 우리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가져오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로부터 출발하시여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7페지)

《언제나 혁명의 동력은 인민이며 군중인것만큼 그들에게 목표를 똑바로 대주고 거기까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하며 거기에 가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는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만 그들이 확신성있게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며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것이 바로 정치사업이며 군중과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앞세우고 잘해야만 모든 일이 잘되며 이것이 잘 안되면 만사를 그르치고맙니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철칙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나 이 철칙이 요구하는대로 사업해야 합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 41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고 선진적인것을 창조하는 혁명투쟁에서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사상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

는것은 대중령도의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을 움직이자면 그들의 사상의식을 높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으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해결할수 있는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이겨나가면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은 행정실무적방법으로는 결코 할수 없다.

사상사업을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가 수행하는 혁명위업의 목적과 의의, 그 정당성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높은 열성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래야만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들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맡은바 혁명임무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만일 사상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명령과 지시, 결정서로써 대중을 동원하려 하거나 그 어떤 경제실무적조치나 물질적자극만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한다면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발휘할수 없게 하며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해석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 혁명적본질과 정당성, 수행방도를 옳게 인식하도록 하며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으로 된다.

특히 오늘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경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혁명투쟁을 계속하여야 하며 빨리 앞으로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 즉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빨리 다그칠수 있는 거대한 물질기술적힘과 밑천이 마련되여있으며 온갖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어떻게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진실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다운 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맡은 혁명임무를 깐지게, 알뜰하게, 이악하게 해나가도록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한다면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더 잘, 더 빨리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사업을 앞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주인다

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6페지)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나온 사업방법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가 혁명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질 때 어떠한 일에서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게 되며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깐지고 알뜰하게, 이악하게 일하는 일본새는 저절로 배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내성있는 사상교양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개인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되는 조건에서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 현시기 정치사상사업의 기본이다. 바로 여기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기본열쇠가 있다.

생활은 기양의 로동계급과 만경대농장원들처럼 참말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싸워나갈 때 무진장한 증산예비가 나오고 살림살이는 더욱 알뜰히 꾸려지며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틀과 낡은 방법을 대담하게 마스고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례외없이 당사상사업이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인답지 못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와 소극성, 형식주의와 무책임성, 안일해이하고 일을 전개하지 않는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고 이악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과 남조선사회의 부패상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으로 교양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며 주인으로서의 립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 실천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전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선전을 잘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선전선동사업은 반드시 경제사업과 밀접히 련결되여야 하며 사상사업의 결과는 경제건설에서의 구체적실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7페지)

사상사업의 목적은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

과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동떨어진 사상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생동한 현실과 결부되지 않고 혁명실천과 동떨어진 사상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없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 힘차게 고무추동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해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도 물질적으로 나타낼수 있다.

모든 선전선동사업은 선전을 위한 선전, 과녁이 없는 일반적호소나 내용이 없는 겉치레로 되여서는 안된다.

현시기 당의 경제선전에서 중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온 나라가 세차게 끓어번지는 오늘의 충천한 기세에 발맞추어 경제선전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려 지도일군들로부터 생산자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떠한 애로와 난관도 박차고 있는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올해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기어이 끝내야 한다.

당사상사업이 당면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기된 혁명과업의 정치경제적의의를 똑바로 알고 그 수행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며 따라서 경제건설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당사상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동사업은 군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발동시키는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05페지)

선동사업은 모든 선동수단들을 잘 배합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때를 놓치지 말고 군중의 기세를 북돋아주도록 하여야 하며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유격대식으로 대중의 심금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출판물들과 직관물 등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선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서 달성한 긍정적모범들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선전선동부는 당원들의 사상상태를 늘 장악하고 그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상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동원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이신작칙하여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갈뿐만아니라 간명하고 격조높은 정치선동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생동하고 활기있고 혁명가다운 기풍이 모든 일터마다에 언제나 차고넘치도록 대중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해야 혁명과업수행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은 당일군들만 할것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이 다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그의 직접적집행자인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다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당선전일군은 두말할것도 없고 그 어느곳에서 일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지도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오직 전당과 전체 간부들이 다 반동되고 대중교양단체인 근로단체들이 다 인입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선전사업방법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전체 간부들을 움직이는것, 전당과 전체 간부가 다 선전사업을 할수 있도록 조직하는것이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당정치사상사업을 하는데서 한 사람이 연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는 사업방법을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각오정도가 다르며 그들의 사업조건도 또한 같지 않는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고 그들을 다 움직이자면 간부가 당원을, 당원이 비당원군중을 그리고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일군들도 모든 사업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사업해야 한다.

모든 행정경제일군들은 자기가 맡은 초소가 행정경제부서일따름이지 모두다 수령님의 사상을 이 땅우에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투사들인것만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방법도 역시 당적방법, 정치사업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명령서나 내고 지시나 하고 통계나 받고 결함보따리나 들출것이 아니라 아래사람들에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고 그 해결방도를 대중과 토의하여 찾으며 잘못된것은 차근차근 일깨워주고 대중의 사상을 발동시켜 대중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혁명과업수행에로 대중을 움직일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참으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열의를 남김없이 불러일으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기본요구로 된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모든 일군들이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간에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사업을 앞세워나감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불러일으켜 우리의 전진속도를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겨나아갈것이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리 득 렵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나라의 발전하는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인민경제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그것이 빛나게 승리해온 력사를 보여준다.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파악할수 있다.

또한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도록 할수 있다.

이것은 혁명전통교양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혁명전통에는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체계와 혁명정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담겨져있다. 그것은 혁명가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생동한 모범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간고한 혁명투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할 때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도록 할수 있다.

실로 혁명전통교양은 모든 근로자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과 건설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

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이것은 오직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이렇듯 혁명전통교양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로 교양하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로 교양하여 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의 진정한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을 개시하신 때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는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의 력사이며 위대한 공산주의적혁명가의 력사이며 가장 탁월한 령도자의 력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반제민족해방투쟁시기로부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등 혁명의 매 단계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사업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독창적이며 현명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실천이 제기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치는 기간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길을 헤쳐오시면서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 대해와 같은 넓은 포옹력과 위대한 감화력, 겸손성과 소박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모범으로 인민대중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위대한 주체사상을 안겨주고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며 불패의 힘과 용기를 넣어주고 혁명적정열과 지혜를 북돋아주는 혁명의 참된 교과서로 된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되며 더없는 영광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처럼 빛나는 혁명력사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백전백승하는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의 빛발아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인 혁명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과 번영이 어떻게

게 마련되였는가를 더욱 똑똑히 알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우리 형제산구역당위원회는 지난 시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에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단체들은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공산주의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주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워야 한다.

현시기 혁명전통교양을 심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조직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조직지도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위원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첫째가는 과업이다.

당위원회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자각을 키워주는데서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책임일군들의 관심밑에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역당위원회는 지난시기 구역내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그 운영체계를 세우며 이 사업을 구역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매달 년간전망학습계획에 립각하여 다음달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운영계획을 토의비준하고 그것을 아래당조직들에 내려보내주고 그 집행여부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총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구역당위원회가 비준한 혁명력사연구실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었다.

그리하여 구역내의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매 달, 매 분기마다 명백한 학습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는 체계가 확고히 서지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연구실운영체계를 세우는것과 함께 이 사업을 책임일군들의 관심밑에 구역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구역당위원회는 우선 구역당일군들 자체부터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구역적으로 조직되는 혁명력사연구실 실장 및 강사들을 위한 강습과 경험교환회 등에 그들을 빠짐없이 참가시킴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게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책임일군들로부터 지도원들에 이르기까지 구역당의 모든 일군들이 아래단위에 내려갈 때는 해당 단위에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운영정형을 알아보며 혁명력사연구실 실장들과 강사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강의에도 참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을 실속있게 방조해주도록 하였

으며 그에 대한 총화를 따라세웠다.

년초에 구역당책임일군들이 학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나가서 생산단위와 자연부락단위로 학습망을 새로 꾸려주고 강의에 참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리해하기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해설해주며 학습제목에 따르는 참고문헌들을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학습을 실속있게 방조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이처럼 혁명력사연구실운영체계를 세우고 이 사업을 구역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을 정상화하고 심화시켜나갈수 있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비상히 촉진시켜나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심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직접 책임진 강사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강사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책임성을 간직하고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있게, 정확히 인식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강사들은 각이한 수준과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치리론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야 하며 더많이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일군들로 강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 구역당위원회가 우선 주목을 돌린것은 당의 요구대로 강사들을 위한 강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그들에게 《김일성동지혁명력사학습제강》의 매개 장절에 따르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들, 《김일성동지략전》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빠짐없이 읽도록 지도방조한것이다.

그리고 공장과 기업소, 농촌의 당조직들에서 수준이 어린 강사들을 직접 책임지고 보충강의와 제강작성, 강의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하당닭공장과 힝산리를 비롯한 여러 당조직들에서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자료들을 강사들에게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고 그 학습정형을 수시로 총화하며 책임일군들이 강사들을 몇명씩 맡아서 학습지도를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수준을 현저히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구역당위원회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자체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는 모범강사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한편 강사들의 강의안 작성과 합평, 강의참관과 경험교환회 등을 널리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학습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하였다.

강사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구역당위원회가 얻은 경험의 다른 하나는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을 직접 지도방조한것이였다.

그리하여 구역당위원회는 선전선동부일군들뿐아니라 준비된 책임일군들을 직접 아래단위에 내려보내여 강사들과 함께 대상을 료해하고 그에 맞게 제강을 짜며 강의도 참관하고 복습과 개별지도를 조직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을 심화시켜나갔다.

여기서 구역내 한 책임일군이 학산리에 나가 현지에서 그곳 강사들을 도와준것은 경험적이였다.

그는 학산리에 나가 며칠동안 생활하면서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들을 고쳐주며 그들과 함께 강의안을 다시 짜가지고 그대로 출연도 시켜보고 자신이 직접 강의도 하면서 이곳 강사들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지도와 방조는 이곳 강사들의 강의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구역당위원회는 강사들과의 사업에서 얻은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그들에 대한 지도와 방조 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그들의 수준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구역당위원회는 또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쉼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전통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있게 써가지고 강연도 하고 담화도 하며 신문이나 잡지에도 내고 소책자도 내야 하며 또한 통속적으로, 옛말식으로 만들어 알려주거나 노래로도 만들어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역당위원회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력사연구실들에서 수령님의 혁명적가계와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발표모임, 기념강연, 수령님의 로작 및 교시연구 발표모임,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감상모임 등을 계층별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히 조직진행하고있다.

구역당위원회는 이처럼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전통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혁명력사연구실운영을 정상화하여나가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반드시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의 목적은 결국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잘하기 위한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이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됨으로써 구역내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가 높이 발양되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며 생산에서 계속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구역내의 모든 농업전사들은 수령님께서 주신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만풍년을 마련하였으며 공업, 도시경영, 인민소비품생산에서도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경험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켜나갈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구역당위원회는 달성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알뜰히 꾸리고 그 운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강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숭고하고도 무거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부단히 심화하여나감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대를 이어가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을 계속 힘차게 밀고나아갈것이다.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대중혁명화를 다그치자

김 정 숙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다섯해가 지났다.

수령님께서는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단체중앙위원회일군들 앞에서 하신 이 연설에서 당의 외곽단체이며 사상교양단체인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자립적역할을 높여 모든 비당원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온 나라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들끓고있던 력사적시기에 있은 수령님의 연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안에서의 근로단체들의 위치와 사명, 그 역할과 임무를 새롭게 밝힌 수령님의 이 교시는 또한 당건설과 근로단체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한 빛나는 고전적문헌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력사적연설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대중혁명화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점령에 관한 그이의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완성시키시였다.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은 직업동맹을 비롯한 우리 근로단체들의 활동과 건설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될뿐아니라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그 인전대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혁명의 무기이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혁명화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하려면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혁명은 오직 많은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건설될수 있습니다.》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9페지)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혁명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따라서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혁명화하여 혁명투쟁에 적극 발동시키며 그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대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인민대중은 이 력사적운동에 더 광범히,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여러가지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수많이 나서게 된다. 이것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여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직 광범한 대중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 대렬을 강화하는 한편 언제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고 혁명화하여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대중을 혁명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입니다. 당의 외곽단체라고 하는것은 비유해 말하면 복숭아의 씨와 살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씨를 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살을 외곽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숭아가 잘 크고 맛있게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있게 여무는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하여야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당을 힘있는 당으로 만들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안에서 향도력인 당과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은 복숭아의 씨와 살과의 관계와 같은 호상관계에 놓여있다.

이로부터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비당원군중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할 사명을 지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단체들을 내오신 목적도 바로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 중요하게는 비당원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려는데 있다. 만일 근로단체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다면 근로단체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것으로 되며 군중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당의 외곽단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성격에 맞게 군중을 교양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 전반을 성과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화하며 군중조직들을 움직여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것은 당사업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여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화하시여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관철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조국광복회를 비롯하여 로동자협회, 농민협회, 공청, 부녀회 등 혁명적인 대중조직을 내오시고 그에 광범한 군중을 망라시켜 그들을 혁명화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하고도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시기 군중과의 사업에서 이룩하신 이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오늘의 현실에 구현하시여 대중지도의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을 완성하시였으며 특히 근로단체들의 자렬

적역할을 높여 대중을 혁명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화란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도록 만드는것,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혁명화의 출발점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이악하게 책임적으로 하며 자기집살림살이는 물론 실비, 자재를 비롯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적극 애호관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하는데 있다.

자기 맡은 일과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려는 혁명적기풍, 주인다운 태도는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당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려는 높은 혁명적자각의 표현이다.

이러한 주인다운 태도와 기풍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 혁명적세계관의 확립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화의 본질과 그 출발점을 명확히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방도를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혁명사상을 넣어주기 위하여서는 책을 읽게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가지는 방법, 연극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는 방법,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가지는 방법도 있으며 강연회, 학습회, 담화를 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1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성별, 년령, 성격과 직업,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군중을 묶어세운 근로단체들의 임무와 역할, 그 특성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내놓으신것으로서 근로단체들의 사상정치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이밖에도 수령님께서는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주되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고리가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있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대중을 혁명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충실성과 계급적원칙성이 반영되여있으며 각계각층의 모든 근로자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새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혁명가로 만들어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까지 이끌고나가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덕성이 깃들어있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대중혁명화의 위력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도가 있음으로 하여 직업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며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 당을 믿음직하게 방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는 대중혁명화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수령님의 리사직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직업동맹사업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직업동맹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직총 제5차대회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는 직업동맹을 완전한 사상교양단체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은 당의 인전대로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할

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9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을 사상교양단체로 규정하여주신 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직맹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함으로써 직업동맹의 총적임무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직맹건설방침이다.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직맹조직들은 자기 사업에 일부 남아있던 행정화의 낡은 틀을 철저히 마스고 완전한 사상교양단체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대중혁명화를 위한 투쟁에서 직업동맹의 자립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직업동맹조직들은 직맹원들속에서 수령님의 불후의 친재적로작과 교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줄기차게 조직진행하는 한편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받아물고 자체로 일거리를 찾아 여러가지 형식의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만경대와 봉화리, 량강도 혁명사적지들과 조선혁명박물관 등에 대한 이동해설강의는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만경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들과 조선혁명박물관 등에 한꺼번에 다 가보지 못하는 조건에서 생동한 직관물과 해설, 기록영화를 배합한 이동해설강의는 커다란 감화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높은 덕성,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매우 효과적이며 힘있는 수단으로서 이바지하였다.

우리의 직맹이동해설강사들은 조국의 북단 백두산의 림산로동자구로부터 남녘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분계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지하막장과 먼바다 배우에서 혹은 들끓는 대고조전투장에서 감동적인 이동해설강의를 벌려 직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뜨거운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중앙과 아래의 직맹조직들은 또한 매시기 제시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선전대, 조국통일해설선전대, 사회주의헌법해설선전대 등을 조직하여 수령님의 교시사상을 제때에 해설선전하였으며 생산현장들에서 천리마선동대를 무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는 기동적이고 전투적인 선동사업을 벌리였다.

대중자신이 창조한 직맹로동자선전대와 천리마선동대는 번잡한 준비와 격식이 없이 임의의 시각에 아무데서나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선전선동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알맹이를 로동계급의 기호와 감정에 맞는 예술적형식에 담아 통속적으로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선전선동형식으로서 이미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직맹조직들은 이밖에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사회주의헌법 등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에 대한 통달발표모임을 비롯하여 수령님의 덕성발표모임, 혁명적소설발표모임, 영화실효투쟁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의 발표모임을 활발히 조직하여 직맹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대중혁명화에 관한 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직업동맹조직들은 여러가지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실천투쟁속에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

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36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집단적 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데 있다.

직맹조직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직맹원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는 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직맹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진수와 그 정당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지금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이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깐지고 알뜰하게, 이악하게 일하고 투쟁하면서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 수행에서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으며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것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창조적로동으로 빛내여나가려는 그들의 높은 계급적자각의 표현이다.

직맹조직들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직맹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직맹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직맹원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직업동맹의 기능과 역할, 그의 자립성과 창발성이 높아진 결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직하고 오직 그이의 가르치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조선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다.

직업동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믿음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조직으로, 사상교양단체로 철저히 전환되고 대중혁명화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깊은 배려의 결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직업동맹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변천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직업동맹의 사상교양사업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직맹사상교양사업에 필요한 수많은 기자재들을 보내주시고 얼마전에는 《천리마작업반의 날》까지 새로 제정하여주시여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 잘 무장할수 있게 배려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직업동맹이 사업을 포치하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마다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시였을뿐아니라 직맹일군들을 몸가까이에 부르시여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밤이 지새도록 미숙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손수 가필까지 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직업동맹이 응당해야 할 일을 하였거나 크지 않은 발기를 내놓았을 때에도 그것을 대견해하시고 적극 지지고무하시여 우리 일군들에게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직업동맹에 두터운 믿음을 표시하시여 무거운 과업도 맡겨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깊은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직업동맹은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기의 기본임무를 옳게 수행하는

움직이는 조직, 혁명에 이바지하는 조직으로 만들수 있었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 밝히신 대중혁명화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대중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완수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쳐 모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우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며 우리의 대오를 불패의것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7페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며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혁명가가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주인다운 태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직맹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직맹원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키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님의 참된 전사, 공산주의적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가장 철저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로동계급적자각과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직맹조직들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직맹원들을 로동계급의 높은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온갖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직맹원들을 집단주의정신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며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반》과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운영사업에 모든 동맹원들이 열성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직맹원들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사회제도의 반동성과 부패성 등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리용하여 알기쉽게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직맹원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직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품성인 혁명적조직성을 기를수 있으며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더 잘 무장하

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다.

각급 직맹조직들은 모든 동맹원들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강한 규률을 세우고 요구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대중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직맹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힘있는 방법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직맹조직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시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공산주의교양운동으로서의 이 운동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특히 《천리마작업반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며 이미 그 생활력이 확증된 《주체사상연구실천토론회》를 활발히 벌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직맹원들이 주체사상의 본질과 내용을 깊이 파악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기풍과 일본새를 더욱 높이 발양하게 하여야 한다.

직맹조직들은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천리마기수들이 자신을 혁명화하고 자기 작업반을 혁명화할뿐아니라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뒤떨어진 작업반을 도와주고 혁명화하며 그들을 다같이 천리마대진군의 보람찬 대오에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뒤떨어진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모두가 주인다운 태도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끊임없이 앙양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직업동맹사상교양사업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며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대중혁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각급 직맹위원회들에서는 모든 직맹일군들이 사상사업을 하며 매개 부서들이 사상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특히 조직부와 선전부의 배합작전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부는 직맹원들속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정확히 진단하며 선전부는 이에 기초하여 옳바른 교양대책을 세워야만 대중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이 부문 일군들의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을 높여 일단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는 그 집행정형을 반드시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체계를 세워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사업을 널어놓지 말고 중요한 대상에 선전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여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사상사업의 목적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그러한바와 같이 직업동맹사상사업의 성과여부는 선전핵심들, 선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있다.

직맹조직들은 선전일군대렬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군중속에서 신망이 높으며 글도 잘쓰고 강연도 할줄 아는 좋은 사람들로 꾸리며 그들로 하여금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힘든 일에 앞장서나가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직업동맹의 자립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여러가지 형식의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자기의 기본임무를 보다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면한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직업동맹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깊은 배려에 어김없이 보답할것이다.

투쟁없이는 전진할수 없고 혁명없이는 발전할수 없다

현 명 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완수할수 없다는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사상은 사회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위대한 사상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 유물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조국의 자주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갈것이며 나아가서 이 땅우에 모든 근로자들이 더욱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

* *

혁명은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의 근본적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심각한 대중적투쟁이다.

혁명을 통하여 새것은 창조되고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착취사회에서 사회혁명은 사회제도의 교체를 가져오며 사회제도의 교체에 의하여 사회의 상승적발전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낡은 제도를 유지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진 자기 세대를 다 산 반동계급은 사회혁명을 불보다 더 무서워하며 그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혁명을 정상적인 사회발전의 《정지》로, 《병적인 탈선》으로 묘사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의 전진운동앞에서 죽어가는 모든 반동세력들의 절망감을 반영한것이다.

부르죠아머슴군으로 전락한 기회주의자들도 착취사회에서의 계급적대립을 외면하고 계급적 《타협》과 《협조》를 설교하고있으며 혁명을 거부하여나서고있다.

계급사회에서의 사회혁명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는 선행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에 의하여 주어졌다. 그들은 계급사회에서의 사회발전의 추동력을 과학적으로 밝히였으며 사회혁명의 필연성을 론증하였다. 맑스는 사회혁명을 력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에 비유하였다.

선행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기 이전시기의 혁명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것을 해명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이것은 시대가 그들앞에 제기한 실천적과업이였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에 비하여 멀리 전진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은 비할바없이 확대되였고 심화되였다. 사회주의는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한 실천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변혁이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과 우리 시대 혁명실천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수 없고 로동계급의 위업을 완수할수 없다는것을 처음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4페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문제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힌 과학적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근로자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생활을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와 함께 과거와는 비할바없는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착취사회에서 넘겨 받은 낡고 뒤떨어진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심각한 사회적변혁이 없이는 이룩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사회에는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사회의 전진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철저히 짓부시는 한편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결국 낡은 사회의 유물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만들며 로동계급의 요구와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착취사회의 낡은 《때》를 종국적으로 씻어내기 위한 심각한 투쟁을 통해서만 사회적변혁이 이룩되며 사회는 발전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은 특히 사람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없게 한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낡은 사회의 유물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방해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쓸어버리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며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심각한 혁명이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납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습니다. 혁명의 새로운 전진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86페지)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변혁과정은 단순한 개량이나 개조가 아니다. 그것

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는 심각한 혁명이다.

사회의 전진을 위한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혁신과 침체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등은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투쟁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하에서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심각한 계급투쟁으로, 혁명으로 되는것이다.

혁명은 사회제도를 교체하는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상, 기술,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도 심각한 혁명투쟁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적변혁은 전사회적범위에서 일어나는 변혁이며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는 대중적투쟁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혁이다. 착취사회에서 넘겨받은 낡은 유물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으며 또 그것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들의 사상의식, 실천활동과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전사회적투쟁으로,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대중자신의 사업인만큼 대중적투쟁으로 될 때에만 응당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이렇듯 혁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혁명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전사회적범위에서의 대중적투쟁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심각한 계급투쟁이기는 하나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하는 사회혁명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이 착취사회에서의 사회혁명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이 새로운 사회계급적관계속에서 진행되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다 사회주의적근로자들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는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을 산생시키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 낡은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사람자체를 청산하거나 더우기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것으로는 될수 없다.

이 투쟁은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주인된 역할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폭력적방법이 아니라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낡은 요소들을 없애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 빨리 촉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로부터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은 사회제도의 교체를 가져오는 착취사회에서의 사회혁명과는 달리 비폭력적방법으로 진행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낡은 유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표현되든지 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과 이러저러하게 련결되여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온갖 낡고 침체한 것을 없애고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과 직접 결부되여있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하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바로 인민대중에게 있다.

물질세계의 모든것은 다 사람과 련관되여있으며 자연도 사회도 다름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개조된다.

사람들은 낡은 사상에서 해방되고 혁명적사상의식으로 무장하면 할수록 혁

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게 될 때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더욱 알뜰하게, 이악하게 일할수 있으며 바다도 메우고 대산도 옮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방해하는 소극성,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낡은 요소들은 다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관련된것들이며 또 사회의 문화생활령역에서 나타나는 낡은 유물들도 사람들의 낡은 사상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련결되여있지 않는것이 없다. 그러므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훌륭히 풀어나가야 한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에 관한 리론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완성시킨 위대한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원칙을 밝혀준 더 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필연성과 특성뿐만아니라 그 기본내용과 그것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40~41페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업이다.

사상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혁명적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어떤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위대한 력량으로 되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놀게 된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혁명적으로 개조되여 그들의 주인다운 역할이 높아질 때 실천활동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큰 예비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머리, 그들의 사상의식에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특성과도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의 창조물이며 그들의 자각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주인된 립장과 역할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근로대중이 주인된 관점을 철저히 가지고 깐지게, 알뜰히 그리고 실속있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

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기본은 모든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관점을 튼튼히 가지게 하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할 때에만 모든 문제를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고 모든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온갖 반혁명적사상과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의 리익,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끝까지 지켜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여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적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활동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 일관하게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하나만으로는 안되며 그와 함께 반드시 기술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기술혁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단계에서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은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체적인 기술혁명강령이다. 그것은 모든 문제해결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3대기술혁명은 기술분야에서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새롭고 선진적인것을 창조하기 위한 혁명인것만큼 기술실무적방법으로써는 결코 해결될수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자면 그것을 방해하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사대주의 등 비혁명적인 낡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이러한 낡은 요소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저애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며 그것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상, 기술 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합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7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발전한 생산력을 요구할뿐아니라 높은 수준의 문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화는 문화분야에 남아있는 반동적인 낡고 뒤떨어진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인습과 문화생활환경에는 그자체의 특

성으로 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이 뿌리깊이 배겨있으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 사회의 전진을 집요하게 방해한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문화혁명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전군중적투쟁을 통하여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로동계급적인것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곳에서 낡은 관습을 버리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기 위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화혁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과업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통일적과정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반드시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홀시하여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상혁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한편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도 더 잘 수행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이다. 또한 문화혁명을 추진시켜 사람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높임으로써만 사상혁명은 물론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만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옳게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끌고나가지 못할때에는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그와 병행하여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을 위한 사업을 훌륭히 완수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옳게 결합시켜 통일적과정으로 끌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확고한 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에 관한 리론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서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지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깐지게, 알뜰하게, 이악하게 일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하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이 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이룩할것이다.

우리 당 체육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오 현 주

오늘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과 체육인들은 온 나라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기치밑에 혁명적앙양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체육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는 모든 체육인들과 체육부문일군들은 지난날 나라없고 주권이 없는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자기들을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체육인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고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을 널리 하여 근로자들의 체력을 단련하는것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체육발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체육이 나아가야 할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체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나라 체육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나라의 위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사업이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나라의 부강발전과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전체 인민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것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은 그 나라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그 나라 인민이 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체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체육을 잘하여야 몸이 건강해질뿐아니라 의지도 굳세여진다.

근로자들의 건강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나라 건설의 기초이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을 떠나서는 사회의 물질적부의 생산도 사회적 변혁과 진보도 이룩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체육을 널리 발전시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

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에서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낼수 있는가 하는것은 그가 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은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다같이 겸비하여야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기술기능, 건강한 체력을 가져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집단로동에 몸바쳐 참가할수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지혜와 재능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늘 앓거나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부강발전에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다. 체육은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집단로동에 몸바쳐 참가할수 있게 하며 그들이 소유하고있는 과학과 기술을 높이 발양시키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체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게 되려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잘 준비되여있어야 할뿐아니라 전체 인민과 군인들의 몸이 튼튼하여야 한다. 강한 체력을 가져야 어떤 불리한 지형조건에서도 민첩하게 적을 포위섬멸할수 있으며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다.

이렇듯 나라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로동과 국방에 준비된 튼튼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사회주의 체육문화 사상과 리론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발전이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중요성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체육발전의 기본원칙으로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3페지)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체육을 더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사상감정과 함께 체질적특성을 가지고있다. 또한 나라마다 자연지리적조건도 다르다. 이러한 특성과 조건에 맞게 체육을 발전시켜야만 나라의 체육과학기술과 전술체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익숙하도록 체력을 튼튼히 단련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체육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체질적특성에 맞으며 우리 나라 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체육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자면 광범한 대중속에서 체육을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체육을 대중화, 전민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63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체육분야에 구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체력을 단련하는것은 사람들의 절실한 생활상요구이며 건강한 체력은 사회생활의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요구는 사회가 발전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커진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의 대중화방침은 체육을 몇몇 전문가들이나 선수본위의 체육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모든 근로자들을 참가하게 하며 체육이 인민대중의 건강증진과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복무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체육이 인민대중의 체력증진에 복무하고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만드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되자면 모든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하여야 한다.

실로 체육을 대중화, 전민화할데 대한 방침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위대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철저히 준비시키는 방향에서 사회주의체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철저히 준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사회주의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휘황히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 *

지난 기간 우리 나라 체육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체육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일찌기 체육력사상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과 체육인들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를 《체육의 나라》로, 《체육의 왕국》으로, 우리의 체육을 《황금의 체육》으로 만들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체육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체육일군들과 체육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체육을 더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체육인들과 체육부문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체육사업에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13~14페지)

체육사업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체육부문일군들과 체육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에 서서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창발성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할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방침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부문일군들과 체육인들은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와 불후의 고전적로작 특히 체육부문에 주신 교시학습을 정력적으로 벌려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체육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의 대중화, 전민화 방침을 관철하는것은 우리 나라 체육을 가까운 몇해안으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체육을 대중화하고 전민화하여야 모

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체육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경기실력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체육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학교들에서 체육을 널리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학교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체육을 전인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관건적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11년동안 각급 학교에서 행복하게 배우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붙이도록 한다면 그들이 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일하기때문에 체육을 전인민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과목교수내용들을 재검토하고 그것을 당정책화하며 체육교육교양에서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세우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과외체육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한편 각급 학교들에서는 모든 종목의 체육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육소조활동을 널리 벌리며 체육열성자들과 체육선수후비를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들에서는 키크기운동을 비롯하여 륙상, 축구, 배구, 롱구, 기계체조 등을 많이 장려하며 스케트, 수영, 등산 등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학습과 실생활에 맞게 널리 벌려야 한다.

특히 각급 학교들에서 《배움의 천리길》행군을 비롯한 장거리행군을 조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길러주며 그들의 체력을 단련시켜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전민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체육소조를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며 여러가지 체육시설들과 체육기재들을 마련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조기체조, 업간체조를 제도화, 생활화하며 매 가정, 인민반들에서도 체육을 널리 하여야 한다.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며 체육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체육교원양성체계와 체육선수후비양성체계를 강화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체육사업에서도 원종체계를 세워야 우수한 교원들과 선수들을 길러낼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체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는 우선 체육대학을 잘 꾸리며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체육학부들의 규모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고등체육전문학교와 부속체육학교들을 더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체육회관, 체육구락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그것을 군중체육의 거점으로 되게 하며 그를 통하여 체육교원후비들과 체육선수후비들을 찾아내여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체육을 발전시키며 체육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체육을 대중화하는것과 함께 그에 기초하여 전문체육인대렬을 강화하며 체육의 모든 종목들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하고 전체 인민의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문체육인대렬을 강화하며 체육의 모든 종목들을 다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12페지)

체육을 대중화하는것과 전문체육인대렬을 강화하는 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광범한 대중이 체육을 하는 과정에서만 기술수준이 높고 재능있는 체육인들이 많이 나올수 있으며

또 전문체육인들이 높은 체육기술을 가져야 전체 인민의 체육수준도 한층 더 높이 올려세울수 있다.

체육의 모든 종목들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문체육인들속에서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훈련을 정력적으로 하는것은 체육기술을 높이고 우리 나라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전문체육인들의 중요한 책임이다. 체육인들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며 체육사업에서 전변을 가져오게 하려면 또한 체육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체육 시설들과 기구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건설하고 마련해주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6페지)

체육시설들과 체육기구들을 마련하는 것은 체육활동의 선결조건이다. 체육시설들과 체육기구들이 도처에 충분히 갖추어져야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마음껏 체육을 즐기며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체육시설건설을 다그치며 체육기자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생산보장하는 것은 체육의 전민화를 실현하고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도처에서 전인민적운동으로 내부예비와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현대적설비를 갖춘 체육시설들을 건설하며 체육기자재공업은 발전시키 체육기재의 가지수를 늘이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체육사업에 대한 전사회적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부문의 간부들이 체육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체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동원되는것이다. 간부들과 일군들이 이신작칙하고 선두에 나설 때 광범한 인민대중을 이 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모든 부문 일군들과 특히 체육부문 지도일군들은 체육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근기있게 끌고나가야 한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하루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니다. 사람들의 성장과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체육을 발전시켜야 그들의 체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체육수준을 높일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체육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널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철저히 준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가까운 몇해안으로 우리 나라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린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할 것이다.

6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앞당겨 점령하자

박 리 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밑에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석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오늘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처럼 석탄은 공업의 식량입니다. 석탄이 없이는 제철소와 제강소는 물론, 다른 모든 공장들과 기차, 배 같은것을 움직일수 없으며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석탄은 모든 공업의 동력으로 되며 중요한 원료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29페지)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나라의 주체적공업을 확대강화하며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6개년계획기간에 전력생산에서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몫이 더욱더 증대되며 국내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과 건재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이 돌려지고 현대적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석탄을 많이 쓰는 공업부문들이 대대적으로 신설확대되고 전반적부문들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석탄에 대한 수요를 그 어느때보다도 급속히 증대시키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나간다면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1975년에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전반적6개년계획을 확고히 앞당겨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석탄고지는 현시기 우리가 튼튼히 틀어쥐고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가장 중심적인 고지의 하나이며 석탄고지를 성과적으로 앞당겨 점령하는데 전반적6개년계획수행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석탄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시종일관 석탄공업을 다른 모든 공업발전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공업은 전력생산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공업발전에 앞세워야 합니다. 석탄공업의 발전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다른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29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석탄공업을 포함한 인민경제의 기간적 중공업부문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것을 규정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공업을 앞세우기 위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경제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7개년계획이 완수되고 공업화가 실현된 이후시기에만 하여도 석탄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관심과 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6개년계획수행의 첫전투를 포치하시면서 이미 석탄고지를 제일먼저 뚫고나가야 할 돌파구로 규정하시였으며 석탄생산을 더욱 빨리 늘이며 이 부문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 나라의 수많은 탄광들을 몸소 찾으시고 석탄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 조건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탄부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혁명과업을 맡고있다고 늘 고무하시면서 그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을 표시하시였으며 공산주의의 위대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라는 더 없는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부문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을 높이 평가하시여 우리 탄부들과 광부들의 명절인 광부절을 제정해주시고도 최근에는 또다시 석탄, 광업복무영예상을 제정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베푸시였다.

수령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석탄공업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인구 한사람당 석탄생산량에서 이미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을 따라앞서고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지난해들에만 하여도 이미 있는 탄광들이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여 개건확장되고 새 탄광, 새 갱들이 많이 개발되였으며 앞으로 석탄생산을 더욱 빨리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석탄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마련된 힘있는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석탄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동력전선을 맡고있는 당의 붉은 혁명전사로서의 영예와 기개를 높이 떨쳐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오늘 6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심고리는 석탄생산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현실적요구에 맞게 탄광설비들을 현대화, 대형화하는것이다.

탄광설비들을 현대화, 대형화하는것은 당 제5차대회가 석탄공업부문에 제시한 기술혁명과업을 관철하는데서 기본방도로 된다.

탄광설비를 현대화, 대형화하여야만 우리의 탄부들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에서 해방하고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며 생산성이 높고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들수 있으며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다.

탄광설비를 현대화, 대형화하며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해서는 석탄공업에 투자를 집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튼튼한 원료기지와 연료동력기지를 마련하여놓아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92페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는것은 경제발전에서 하나의 법칙이다. 따라서 이 법칙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자면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

여야 한다.

더우기 오늘 우리의 많은 탄광들이 심부채굴에로 넘어가 막장이 깊어지고 있는 사정은 압축공기의 능력과 적재능력, 운반능력 등을 증대시킬것을 요구하며 이것은 석탄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임이 없이 해결될수 없다.

우리는 석탄공업에 투자를 증대시켜 석탄채굴량에 비해 이 부문의 설비를 훨씬 앞세우며 탄광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한다.

투자는 석탄생산의 모든 부문, 모든 생산공정들에 다같이 증대시켜 부문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우선 지금있는 탄광들에 대형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들이밀어 갱내작업을 기계화, 종합적기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갱내작업에 종합굴진기, 착암대차, 현대적인 채탄설비들을 더많이 받아들이며 운반계통을 빨리 현대화, 대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수와 통기 체계도 대형화하며 통신, 신호 장치도 적극 현대화하여 갱내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작업조건을 더욱 완비하여야 한다.

대규모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탄광건설을 추진시키며 중소탄광들에도 투자를 하여 그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로천채굴에 힘을 넣어 대규모로천탄광들에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불도젤 등을 들이대며 중소로천탄광들도 발전시켜 로천채굴에 의한 석탄생산을 더욱 빨리 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이 석탄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며 기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석탄공업을 적극 지원하여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1년 1월 1일, 7페지)

석탄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는것과 함께 그것은 헌신적으로 실천할수 있도록 탄광에 필요한 여러가지 대형기계설비들과 자재를 대대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큰 대상설비들, 대형압축기 등을 많이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특히 탄광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주어 석탄공업부문에서 자체로 대형탄광설비들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큰 기계공장들을 전문적인 탄광기계공장으로 빨리 전환시켜 여기에서 대형콘베아, 대형권양기, 대형전차, 버럭적재기 등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동력기지들을 강화하는것은 탄광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기술혁명을 추진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탄광의 공무동력기지들을 잘 꾸려주어 탄광설비의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며 중수리도 하여 기계설비의 가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공급부문에서는 위대한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동발나무를 원만히 대주는것과 함께 쇠동발을 비롯한 탄광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탄광들에서는 갱단위로 자재를 막장들에까지 날라다주는 체계를 강화하며 그것을 절약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운반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문에서는 석탄 생산지와 소비지들에 현대적인 상하차시설을 갖춘 석탄화물역을 크게 만들고 석탄을 집중적으로 수송함으로써 수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오늘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이며 기술혁명의 선봉대인 우리의 청년들이 나라의 석탄전선을 힘있게 지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제대군인들을 비롯한 우리의 청장년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부문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나라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기 위하여 이 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탄광들에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갱밖의 로력을 극력 줄이고 갱내 로력을 70%이상에 이르게 하며 그중에서도 굴진공, 채탄공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한다. 또한 로동보호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의 탄부들이 보다 안전한 조건에서 홍겹고 보람차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탄광들에서는 이 부문 작업의 특성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규률을 강화하며 480분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1인당생산액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공업부문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대로 지질탐사를 앞세우며 굴진을 채탄에 확고히 '선행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군대가 적과 싸우려면 반드시 정찰을 먼저 잘하여야 한다.

자연과의 투쟁도 적과의 싸움과 원치은 같다. 탄광에서 석탄을 캐내는 전투도 먼저 지질탐사사업부터 하여야 한다.

지질탐사사업에서는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를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탄광들에서는 자체의 탐사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당면한 작업탐사를 실속있게 하여 헛굴진을 없애고 채굴조건을 원만히 준비하여야 한다.

굴진을 선행시키는것은 석탄생산에서 중요한 법칙이다.

굴진에서는 기본굴진, 준비굴진, 생산굴진을 순차적으로 다같이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굴진설계는 반드시 해당 당위원회들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굴뚫기방향을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탄광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후방공급사업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탄부들의 생활을 언제나 따뜻이 보살피시고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우리 탄부들의 생활을 깊이 료해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높은 대우와 제일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줄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 부문 지도일군들은 수령님께서 탄부들에게 돌려주시는 배려가 그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탄부들에게 고기, 알, 남새, 물고기 등 부식물을 더잘 공급하기 위하여 오리목장, 닭알목장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자체의 부업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탄부들에게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며 탄광지구들에 영화관, 공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좋게 꾸려주며 라지오, 텔레비존 등 문화오락기구들을 많이 보내주어 그들의 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석탄공업부문에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탄광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핵심부대가 일하는곳이다.

당조직들은 탄광로동계급속에서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령도계급으로, 우리 당의 간부후비로 더 잘, 더 많이 키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석탄공업부문 로동자들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혁명과업을 맡고있습니다. 이것은 동무들의 커다란 영예입니다. 동무들은 석탄공업부문에서 일하는것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고 자기 사

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3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에는 경제건설에서 제일 힘든 일을 맡아하는것이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것이다.

당조직들은 탄부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를 담당하고있다는 책임감과 혁명적자부심을 끊임없이 높여줌으로써 당의 석탄공업정책관철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석탄공업부문의 실정에 맞게 경제선전을 전투적으로 힘있게 진행하여 탄부들속에 석탄고지점령이 6개년계획수행에서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탄부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오늘 석탄공업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고리도 이 부문의 지도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면서 얼마나 이악하게 투쟁하는가에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관료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아래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며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 탄부들의 모든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석탄생산에 쏟아붓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지도일군들은 탄부들이 일하는 갱막장에까지 들어가 직접 착암기를 잡고 석탄을 캐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며 사업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찾아내여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6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석탄공업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가장 정확하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밝혀주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나라에는 석탄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으며 석탄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져있다.

오늘 우리 탄부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매우 높으며 혁명적기세도 대단히 좋다.

문제는 이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석탄공업정책을 끝까지 이악하게 책임적으로 관철하여 나가는데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시기 7개년계획의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도 선참으로 돌파하였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석탄고지점령에서도 기어이 앞장서나가야 할것이다.

전당의 지원밑에 석탄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보람차며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밑에 6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과 인민경제발전

김 형 삽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올해의 이제 남은 기간에 명년도 생산준비를 잘하여 다음해 전투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현시기 전반적6개년계획과 그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화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내놓으시여 우리 일군들이 계획화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마련하여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꾸리며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6개년계획을 더욱 앞당겨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　*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계획화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계획화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자면 이 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반드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며 이 원칙은 계획화에서도 지켜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60페지)

주체적립장에서 인민경제의 계획화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요구이며 계획화사업의 성과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보장하는 근본담보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쌓게 되며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도 매개 나라를 범위로 하여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계획화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자면 무엇보다먼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며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유일적으로 움직이는 철저한 계획경제이다. 오직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다.

계획화사업에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정책과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계획의 과학성과 그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빨리 발전시키자면 또한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옳게 보장하는것과 함께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화하여야 한다.

물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경제생활을 빠짐없이 계획화한다는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하여 큰것만 계획화하고 작고 소소한것을 내버려둔다면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를 자연생장성에 내맡기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경제생활전반을 책임지고 인민경제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이 모든 요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계획화리론을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창조한 철저한 주체적인 계획화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적계획화의 체계이며 방법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35페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계획화사업전반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게 하며 전반적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또한 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옳게 보장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위한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나타나고있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과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당정책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고있다. 또한 계획화사업에서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가 철저히 극복되고 계획일군들과 생산자대중속에서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적극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가 확고히 견지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야말로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확고히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계획화방침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앞당겨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담보는 계획일군들이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획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만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계획기관들이 당과 정부의 경제작전국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으며 당정책집행에서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나아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67~268페지)

일군들이 계획화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다.

계획일군들은 누구보다도 혁명정신이 강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책임성이 높아야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훌륭히 꾸려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계획일군들은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계획화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들을 학습하고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계획화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일을 주인답게 해나가야 한다. 또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더욱 힘있게 벌려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따라배움으로써 일편단심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계획일군들속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당정책관철을 방해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계획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이 되는대로 일하려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그리고 본위주의 등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과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계획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생활은 당원들의 조직생활, 정치생활이며 당원들이 규약상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계획일군들은 당조직

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자신의 당성을 더욱 단련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계획일군들이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고치며 맡겨진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제는 새 체계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고치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우월한 사업체계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일군들이 의연히 낡은 방법대로 사업한다면 새 체계의 참다운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일군들은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일원화계획체계의 본질을 똑똑히 깨닫고 이 체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감으로써 이 체계의 커다란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57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일원화계획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를 밝혀준것으로서 우리 일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현시기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계획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가 크게 좌우된다.

계획일군들이 언제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맡겨진 과업을 이악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여나갈 때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일군들은 혁명의 주인,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 사업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경제생활전반을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생산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계획기관, 계획부서들이 자기에게 분공되고 분담된 사업내용을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책임적으로 집행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원화계획체계에서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도맡아할것이 아니라 유일국가지표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계획기관, 계획세포들에 분공하여 계획화할데 대한 원칙과 방도를 새롭게 제시하여주시였다. 이것은 국가계획기관들의 사업에서 형식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매개 단위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 자기가 맡아보아야 할 균형을 실속있게 똑바로 보게 하며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업분담원칙에 따라 계획기관, 계획부서들에 사업이 분공되고 분담된 조건에서 계획일군들이 맡겨진 사업내용을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따라 계획화사업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모든 계획기관, 계획부서들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더 높이며 일원화계획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연한 사업체

계를 세우고 언제나 아래단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 부문 단위의 계획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해당 지역, 해당 부문내의 경제균형을 언제나 바로잡으며 계획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맞물리고 이 지표들에 대한 법적의무성을 강화하여 계획화사업에서 도의성의 사소한 표현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역수송과 반복수송을 없애며 물자를 사장하고 랑비하는것과 같은 현상을 없애고 기본자재와 원료는 물론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페설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세부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세부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채취공업을 앞세워 석탄, 쇠돌 등을 비롯한 원료, 연료를 충분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송조직을 잘하고 협동생산을 발전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에 맞게 석탄, 쇠돌을 비롯한 원료, 연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계획화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운수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보수, 공장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의 소요량을 정확히 계획화하며 그것이 옳게 리용되도록 계획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계획기관, 계획부서들은 설비와 로동력, 기술상태와 생산능력에 대한 실태료해표를 잘 만들고 그것을 옳게 리용함으로써 계획일군들이 언제나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의 계획수행정형을 늘 따지며 생산장성을 위한 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탐구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를 개선하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를 꼭꼭 집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련계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옳게 맞물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는 당이 내놓은 세부계획화방침을 관철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48페지)

우리는 수령님께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가르치신대로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계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뜨락또르, 자동차, 굴착기, 차량, 선박, 공작기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세부계획을 철저히 맞물려야 한다.

매개 단위의 생산지표를 규격과 재질별로, 량적으로 맞물리며 필요한 원료, 로력, 기술장비 등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타산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적련계가 옳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전문화원칙을 준수하면서 협동생산품종을 정확히 규정하며 자재와 부분품, 부속품 생산을 완제품일정보다 한단이상 앞세워 생산보장하는 원칙에서 협동생산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그에 대한 보장대책을 철저히 계획화하며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공급할수 있도록 자재공급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맞물리야 한다.

세부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대상의 하나는 공장, 기업소의 계획과제수행에서 현물지표별 생산과제와 질적지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우리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물지표와 종업원 한사람당생산액, 원가, 수익성 등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특징짓는 질적지표들의 실행계획을 잘 세우고 그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받침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과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의 세부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공업의 부문내부구조를 다방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더 잘 완비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공업발전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자그마한 전문공장, 여러가지 분공장, 전문직장들을 도처에 꾸리는 방법으로 공업의 부문내부구조를 더 잘 완비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은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생산의 기술경제적유리성을 리용하여 공업의 부문내부구조를 빨리 완비하며 나아가서 세부계획화를 더욱 완성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공업생산구조를 다방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더 잘 완비하면 할수록 제품의 종류와 규격은 더욱 다양하게 구색을 맞출수 있고 세부계획화의 범위와 심도를 더 확대해나갈수 있다. 또한 세부계획화를 잘하여 중소규모의 전문공장들을 많이 꾸려야 공업생산의 부문내부구조를 더욱 완성할수 있다.

우리는 규격강재와 소형전동기, 전선류, 분석시약류 등을 비롯한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전문공장, 분공장, 분직장들을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된 세부계획의 성과적집행을 위해서는 계획규률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국가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누구도 그것을 어길 권리가 없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은 국가가 제정한 계획작성 절차와 방법론, 일정을 철저히 지키며 국가세부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계획규률을 세워야 한다.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각급 통제기관들이 공장, 기업소에서의 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세부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뒤받침해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통계사업을 개선하여 통계작성에서 과학성과 시간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계획화의 기초로 되는 기술경제적기준제정사업을 세부계획화의 요구에 맞게 잘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아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모두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어이 앞당겨 점령하자.

《자유민주주의》란 누구를 위한것인가

김 창 형

오늘 남조선땅에서는 류례없는 인민탄압과 파쑈테로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들고나온 《자유민주주의》의 허위성과 반동성은 론박할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는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이 파쑈통치를 합리화하고 《반공》소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들고나오는 상투적인 수단이다. 요즘 남조선반동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만적본질이 더욱 드러나게 되자 거기에 《토착화》요, 《한국화》요 하는 민족적외피를 씌워 《한국적민주주의》라는것까지 꾸며내고있다.

남조선의 친미사대세력들의 이러한 정치사상공세는 미일상전에게 빌붙어 여명을 이어가며 조국통일을 가로막아보려는 저들의 더러운 속심을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억압자,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통치집단과 그의 어용선전기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극구 찬미하면서 무엇보다도 그의 반동적인 계급적본질을 가리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만책동으로써도 《자유민주주의》의 반동성과 추악한 정체를 엄폐할수는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성격을 띠고있습니다. 온갖 착취자들의 독재는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이고 그들의 민주주의는 오직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반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고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류력사에서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떠난 민주주의도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9페지)

본래 민주주의에는 서로 대치되는 두가지 민주주의 즉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있을뿐이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이 둘 가운데 하나이며 그 밖에 《제3의 민주주의》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그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이건 그것은 다 이 두가지 개념중의 하나에 귀착되는것이다.

모든 형태의 독재가 그러하듯이 민주주의도 반드시 계급적성격을 띤다. 계급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그것은 적대되는 계급에 대한 독재와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계급성을 떠난 《순수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인 리해란 있을수 없다.

초계급적인 《민주주의》, 《순수한 민주주의》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착취자들이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기 위해 꾸며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근로대중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이며 가장 높은 민주주의이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참다운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인민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시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근로인민자신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가고있는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 바로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가들이 떠드는 이른바 〈자유〉와 〈권리〉는 전적으로 통치자들과 착취계급이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부르죠아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25페지)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억만장자들에게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며 그들을 억압할 자유를 주지만 근로대중에게는 헐벗고 굶어죽을 자유밖에 주지 않는다.

결국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정치적지배를 유지공고화하며 통치배들의 무제한한 착취와 치부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위선적이고 반동적인 통치형태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파쑈독재를 강화하면서 거기에 《민주주의》상표를 붙여 그 반동적본질을 가리워보려고 교묘하게 책동하고있다.

바로 남조선통치배들이 《정치리념》으로 내세우고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침략자, 착취자들에게 복무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이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한국적민주주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의 《한국판》이다. 거기에 《새로운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내용상에서 부르죠아독재에 남조선의 현위정자의 일인독재를 더 첨가한 가장 포악하고 파쑈적인 독재일뿐이다. 사실상 군사파쑈독재가 무겁게 짓누르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그 어떤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인민들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그 사환군들의 리윤과 치부를 위한 《말하는 도구》로서 민족적존엄과 인간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히고 예속과 착취만을 강요당할뿐이다.

남조선반동들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선전하고 그의 《한국화》, 《토착화》를 떠들어도 그것은 미제의 침략과 남조선의 통치층들의 반인민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수단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반인민적책동을 감행하며 특히 저들의 통치지반이 뒤흔들릴 때마다 각양각색의 《민주주의》구호를 들고나왔다.

만고역적 리승만도당은 해방후 처음부터 숭미사대주의를 고취하면서 《민권》이요, 《민주》요 하는 간판밑에 미제상전의 지시에 따라 민주주의대신에 사실상 인민을 억압착취하는 극악한 반동적통치기구를 세워놓고 나라를 놈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팔아먹는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행을 저질렀다.

남조선의 현위정자들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가로챈후 저들의 지위가 위기에 처하자 그것을 수습하며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해 《민정이양》놀음을 벌리고 그 정치사상적 위장물로서 《민족민주주의》, 《행정적민주주의》라는 기만적구호를 내걸었다. 그들은 《군사정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저들의 군사파쑈독재가 마치 《3.1민족정신》과 《4.19민주정신》을 이어받은 그 어떤 《혁명》의 산물인듯이 가장해나섰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집권》 첫날부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업어들여 남조선천지를 완전한 제국주의침략기지로, 일대 식민지감옥으로 전변시켰다.

그들은 저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매국배족적죄상이 더욱 드러나게 되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매국역적 리승만독재시기에 쓰던 《자유민주주의》의 낡은 구호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최근년간 대세의 흐름이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특히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과 평화통일기운이 높아지자 남조선위정자들과 어용선전기관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으며 부패한 남조선사회현실을 감싸보려고 부질없이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연한 노릇이다. 사실은 언제나 명백하고 엄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 근로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며 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남조선반동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위성》을 운운하면서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생산수단과 모든 권력이 소수 착취배들과 특권층에 쥐여져있는 남조선사회에서 근로대중에게 차례지는것은 가난과 굶주림, 압제와 무권리, 멸시와 천대밖에 없다.

자본의 사환군들, 제국주의의 충복들이 아무리 《개성의 자유》, 《계약의 자유》, 《정치적자유》를 떠들어도 사태의 진상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그들이 떠드는 《개성의 자유》란 자본가가 로동력을 마음대로 사서 착취하고 치부할 자유를 말하며 로동자들로 하여금 기아에 못이겨 헐값으로 온 몸뚱이를 파는 임금노예로 전락되게 하는 《자유》인것이다. 또한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있는 자본가와 로동력밖에 아무것도 없는 로동자들사이에서 로동력을 사고팔기 위한 《계약의 자유》라는것도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기아와 몽둥이의 규률》로 얽매여놓고 돈과 권력으로 착취하며 구속하기 위한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아닌 《자유》는 극단한 개인주의, 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다. 부르죠아적자유는 남이야 굶어죽건, 얼어죽건, 나라가 망하건 상관없이 '자기혼자만 잘 먹고 잘살며 향락을 누리려는 더러운 짐승같은 생활을 추구하며 고취한다.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보다먼저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는데 있으며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며 다같이 잘사는데 있다.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자기혼자만 잘사는 자유, 돈이 모든것을 다스리며 돈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는 착취자들의 자유이며 근로대중의 자유가 아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떠드는 《정치적자유》도 허황한것이다.

자유와 권리는 결코 말로만 보장될수 없으며 실제적담보가 없는한 그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국회의원》립후보자가 되려고 하여도 등록금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큰 돈을 못내는 사람이면 《국회의원》으로 선거 받을 권리와 자격마저 없는것이다. 돈으로 사람들의 지혜와 활동을 막고 돈이 능력을 대신케 하는 《황금만능》의 세상에서 무슨 정치적자유를 말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남조선에서와 같이 4천여개의 파쑈악법과 40만을 헤아리는 《중앙정보부 요원》, 5만여명의 경찰과 70여만의 병력으로 유지되는 가장 횡포한 군사파쑈체제하에서 정치적자유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근로대중이 2중3중의 착취와 말할수 없는 폭압의 대상으로 되고 당장 육체적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있는 형편에서 정치적자유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만 사회적평등이 보장되

는듯이 꾸며대고있다. 그들은 《만민은 평등》하며 로동자, 농민들이 오늘은 가난해도 래일에는 《재산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며 근로대중을 기아와 빈궁에로 몰아넣는 암담한 생지옥입니다.》(우와 같은 책, 28페지)

소수 착취배, 관료배들이 날로 부유해지고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이 더욱 더 령락되여가는것은 착취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런 경제생활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불평등을 낳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근로대중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서 배제당하고 있으며 700만의 실업자, 반실업자가 거리를 메우고 생활고에 못이겨 온 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참극이 그칠 날이 없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이 생활의 법칙으로 되여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빚어낸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반동들이 아무리 《자유》요, 《평등》이요 하고 떠들어도 결코 인민대중을 속일수는 없는것이다.

파쑈통치와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꾀하는 기만적구호

오랜 기간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체험한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주의 길만이 애국과 번영의 길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의식, 민족자주의식은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집권》 첫날부터 《국시제일주의》로 삼아왔던 《반공》의 기만성과 반동성도 세상에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이런 형편에서 그들은 《자조》, 《자립》, 《평화통일》의 기만적구호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고있는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반공국시제일주의》의 대용품이다.

《자유민주주의》요, 《한국적민주주의》요 하는것은 남조선위정자들이 궁지에 빠질 때마다 어떠한 주의주장도, 아무런 정치적신념도 없이 함부로 줴치는 정치적궤변이다. 여기에서 그들이 노리는것은 파쑈통치체제를 더욱 정비강화하고 일인독재를 실시하며 민족분렬책동과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자는데 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간판아래 모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며칠도 안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휘둘러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체포투옥하고 학살하였다. 실로 이것은 력사적으로 외래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되여 인민탄압과 살륙을 일삼아온 파쑈교형리들만이 할수 있는 만행이다.

요즘 남조선위정자들은 《간첩사건》이요, 《침투사건》이요 하는것을 허위날조하여 인민탄압에 더욱 미쳐날뛰고있으며 《개정정당법》이라는것을 만들어 많은 야당들의 등록은 취소하고 그들의 활동을 구속하고있다. 지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은 평화통일을 주장한 민주인사를 남의 나라땅에까지 좇아가서 대낮에 불법납치해오는 날강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파쑈악당들의 이러한 테로행위는 매국배족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밀접히 련관된 계획적인 폭압조치로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 그들의 발악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유민주주의》의 허위성과 반동성은 남조선의 현위정자가 《10월유신》이란 명목아래 일인독재체제를 세우고 장기《집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헌》놀음을 벌린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지난해 10월에 《유신개혁》이라는것을 단행하여 《유신헌법》이요, 《통일주체국민회의》요 하는것을 조작해놓고 그것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한국적민주주의》를 《토착화》할수 있는 《체제개혁》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1948년이래 일곱번째로 전면개악된 새 《헌법》이 세계 어디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쑈악법이라는것은 무엇으로써도 숨길수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나마 표방하였던 《의회제민주주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현위정자에게 무제한한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그의 일인영구《집권》을 합법화해놓았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또한 새로 조작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국회》우에 타고앉게 하였다. 대만의 장개석이 종신 《총통》자리에 앉아있기 위해 만들어놓은 이른바 《국민대회》라는것을 모방했다고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란 철두철미 《반공》광신자들과 착취배들로써 꾸려진 현위정자의 파쑈통치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유신》놀음은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통일을 반대하고 일인독재와 장기《집권》을 꾀하는 파렴치한 책동으로 철저히 배격당하고있다. 지어 미국과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출판물들과 일부 지배층까지도 개악된 《헌법》을 《일인독재체제를 허용하는 보증서》라고 하고있으며 《개헌》놀음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흔적마저 가셔버리는 파쑈행위이며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조소와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이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남조선위정자들의 매국배족적죄행도 더욱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꿈꾸면서 《대결》과 《경쟁》을 부르짖고있다. 《대결》하고 《경쟁》하겠다는것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단결하지 않자는것이며 경제적으로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래자본에 의존하자는것이며 군사적대치상태를 유지하고 무력증강과 전쟁책동을 계속하자는것이다. 결국 이것은 분렬을 영구화하고 통일하지 않겠다는것이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실력배양》의 구호밑에 어리석게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동질화》하겠다고 떠벌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은 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만한 행동은 평화통일을 파탄시키려는 책동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7폐지)

남조선위정자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헐뜯는데 더욱더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온갖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폭압과 테로, 퇴페와 망국의 풍조가 지배하는 남조선사회를 근로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있는 공화국북반부와 도저히 비길수 없으며 그를 헐뜯을수 없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중상을 일삼으면서 남북공동성명정신을 여지없이 유린하고있다. 그들은 공동성명을 저들의 매국배족적죄행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방위선》으로, 남북대화를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로 넘어가는 《대결방식의 변화》로 묘사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폭을 넓혀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는 남조선위정자들은 이른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내놓고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공공연히 정책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지금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두개 조선 동시가입을 떠들면서 필사적으로 발광해나서고있다. 《현상유지》니, 《평화공존》이니 하는 구실밑에 두개조선으로의 영구분렬을 공포한 그들의 범죄적 《성명》과 온갖 모략책동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영원한 식민지지배밑에 저들의 파쑈독재를 유지하려는 더러운 속심을 날날이 드러내보이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남조선위정자들이 감행하는 분렬주의책동은 남북대화를 사실상 파탄의 위험에 빠뜨리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등진 매국노들만이 감히 할수 있는 망동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 《한국화》를 부르짖는 자들이 바라는것이란 극악한 일인파쑈독재와 영구《집권》, 민족의 영구분렬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남조선위정자들은 그 어떤 기만선전으로써도 《자유민주주의》의 반동성과 그것이 빚어내고있는 남조선사회의 추악한 현실을 가리울수 없으며 날로 커가는 인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더욱더 동경하고있으며 고무적힘을 얻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5대강령을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접하고 그를 민족공동의 대강령으로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다. 그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신뢰하고 흠모하면서 통일된 조국의 래일을 눈앞에 그리고있다.

한편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정자들의 횡포한 파쑈폭압조치와 민족분렬책동에 대한 격분과 반발심이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썩은 정치》, 《민주주의장송곡》이라고 규탄하면서 현남조선사회체제를 끝없이 증오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반《정부》적불신과 불만은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밑에 바야흐로 대중투쟁, 집단투쟁으로 넘어갈 기세를 보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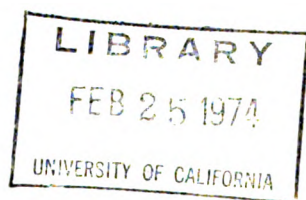
일본,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속에서도 현남조선위정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세력이 형성되고있으며 그들은 《박〈정권〉타도》, 《남조선민주화》, 《평화통일촉진》의 구호를 들고 집회, 시위, 언론활동 등 강력한 정치투쟁을 벌리고있다.

사면팔방으로 고립배격당하고있는 남조선위정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사태를 수습할수 없으며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정당화할수 없다. 민족의 리익과 념원을 배반하고 외세에 의존하여 살아가려는자들은 반드시 력사의 버림을 받고 멸망하고말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가는 조선인민은 더욱 거세찬 투쟁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것이다.

근 로 자 제10호(루계37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3년 10월 1일 발행•1973년 10월 5일
ㄱ—34277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73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379)

차 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적당성의 기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금 전당과 전국은 새로운 혁명적앙양으로 들끓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짓부시고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대고조와 위대한 변혁은 바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무한한 충실성의 발현이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그들의 억센 의지가 낳은 자랑찬 열매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혁명적신조이며 그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새 힘과 용기를 얻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모든 충성을 다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그 어느때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에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메고나갈 책임적인 사업을 맡겨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된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수령님의 높으신 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자들의 당성의 기본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바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서 표현된다. 수령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곧 당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당의 심장이며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유일한 중심이다.

수령은 당의 리익, 로동계급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의 체현자이며 당과 로동계급, 인민대중의 숭고한 지향을 대표한다.

수령의 사상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사상이며 혁명투쟁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이끄는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방도를 가장 정확히 통찰하여 탁월한 전략전술을 세우며 인민대중을 혁명승리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한다.

수령이 제시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조직적의사의

집중적표현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은 곧 혁명투쟁과정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수령을 떠나서 당이 존재할수 없으며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혁명투쟁이 승리할수 없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과 그의 현명한 령도는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한다.

당과 인민이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면 할수록 혁명대오는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투쟁의 근본요구로 되며 혁명가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조선의 혁명가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은 곧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당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중심이시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간에 걸쳐 우리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념원과 지향을 제때에 포착하시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며 인민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신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과 인민대중의 조직적의사를 집대성한것이며 거기에는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리익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떠나서 조선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님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우리 당과 국가 및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하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이 있으며 보다 휘황한 래일이 약속되여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분으로 된다. 우리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할 때에만 우리 당에 충실할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무장하는데서 나타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의 유일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수령님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수령님께 충실할수 없다. 수령님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사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으며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근본열쇠로 되며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의무로 된다.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수령님께 충실하려고 해도 수령님의 사상을 모르고서는 옳게 행동할수 없다.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보고 행동해야 옳고 그른것을 판단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요구와 의도대로 움직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그 어떤 개별적 명제나 문구를 외워 그것을 단순한 리론과 지식으로 만드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정책의 본질과 진수를 옳게 파악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을 말한다. 그렇기때문에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을 오래하고 적게 하였거나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수령님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였는가 못되였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수령님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은 그이께 충실한 사람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충실치 못한 사람이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말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다고 해도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수령님께 충실한 사람으로 될수 없다. 말은 적게 하더라도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만이 참말로 수령님께 충실한 혁명가이다.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이 벌리고있는 혁명투쟁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의무만 있을뿐이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형식적이며 무책임하게 대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일군은 혁명임무를 수행나지 못한 사람이며 사실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것이다.

우리의 간부들과 일군들은 물론 그 직급은 높고 낮을수 있고 혁명초소는 서로 다를수 있지만 다같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이다.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노력해야 한다.

혁명의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며 살아도 영광이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부들과 일군들의 혁명가적사업태도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꽃피워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의 가장 큰 보람이 있는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수령님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수령님의 사상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데서 나타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간에 그것이 우리 당의 정책과 어긋나고 우리의 혁명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줄 알아야 합니다.》

혁명은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심각한 투쟁이다. 따라서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혁명가는 바로 이러한 투쟁속에서 살며 투쟁속에서 자기의 일생을 끝마치게 된다.

혁명투쟁과정에는 언제나 락후한것, 소극적인것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의 길에서는 반드시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적극과 소극,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과의 투쟁이 끊임없이

진행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락후한 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할수 없으며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순한 사상들은 결국 부르죠아사상의 표현이며 그것이 자라나면 당과 혁명에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된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불건전한 사상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표현일지라도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당의 통일을 해칠수 있는 그 어떤 현상과도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은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내야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 육체적생명은 비록 죽어도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는것, 이것이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신조였으며 행동의 준칙이였다.

오늘 조선혁명의 역군으로 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도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났고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새세대들이다. 그들은 오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하겠는가 하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을뿐이다. 그렇기때문에 청년들이 일하는곳마다에서는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정열이 들끓고있으며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고 당의 참된 전사들인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그러한것처럼 모든 근로자들은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그래야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 당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야 할 어렵고도 벅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3대혁명과 6개년계획은 수령님께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이다.

그러므로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다.

6개년계획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이다.

6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더욱 부강하여질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이룩될것이다.

우리에게는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정확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있다.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져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기세도 참으로 좋다. 정세는 우리에게 더없이 유리하다.

문제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악하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6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재능과 지혜와 정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잔재를 뿌리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이며 이 세가지 혁명을 잘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것은 천리마기수들과 모든 근로자들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3페지)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시기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계속혁명사상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기치이다.

생활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 결과 혁명과 건설에서는 이미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미 이룩한 커다란 성과와 경험들을 심오히 총화분석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 힘차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우리의 전반적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빨리 전진시키고 이 땅우에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다. 또한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지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을 수행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밤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자신의 모든 정력을 기울이고계신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웅대한 6개년계획을 기어이 앞당겨완수함으로써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다.

혁명은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한다

혁명은 순탄하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혁명은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할수 있다.

3대혁명을 수행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투쟁은 벅찬 투쟁이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곤난앞에서 실망할줄 모르고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혁신하고 계속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6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나아가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현시기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책, 464폐지)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되게 할수 있다. 또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혁명임무에 대한 헌신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할수 있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에 진행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사상혁명은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 낡은 방법, 낡은 작풍을 철저히 불살라버리는 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일을 무계획적으로 망탕하는것, 안일하고 소극적이며 사업에 투신하지 않는 현상은 다 낡은 사상과 낡은 작풍이다. 이것은 뿌리깊고 집요하며 틈만 있으면 되살아난다.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형형색색의 낡고 침체한것들을 깨끗이 쓸어버려야만 온 사회에 생신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항상 차넘치게 할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신과 앙양이 일어나도록 할수 있다.

물론 사상혁명은 사람들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그들을 모두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나가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 실물에 의한 긍정감화의 방법으로 진행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의 동지적단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든지 조직의 일상적인 통제속에서 살며 일하여야만 머리에 녹이 쓸지 않고 과오도 범하지 않을수 있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더욱 꽉 들어차게 하고 혁명적기백이 차넘치게 하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답게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에서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행동준칙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법

규률 모범적으로 지키고 철저히 법규정이 요구하는대로 살며 일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과 일군들이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의무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뿐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집단주의정신을 심오히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생활이 좋아지고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을수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며 근면하게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당은 투쟁의 무기이다. 3대혁명을 수행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사업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사람과의 사업방법으로 전환시켜 우리 사회의 비로동계급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이 떨쳐나서며 온 사회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나라는 류례없는 번영기에 처하여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온 사회가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에 대한 커다란 기쁨과 래일에 대한 더 큰 희망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어버이수령님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우리 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차게 다그쳐나아감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완수하자. 그리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자.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된 주체적인 교육사상

박　복　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적교육이 가장 발전된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인류의 교육력사가 시작된지는 수천년을 헤아리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그렇게도 빨리 주체적인 교육을 발전시킨 실례를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마련하신 빛나는 교육전통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주체교육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탁월한 교육사상과 그 실천행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깊고도 억센 뿌리로, 그의 무궁한 발전을 담보하는 귀중한 혁명적 재부로 되였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빛나는 교육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당원들과 교육일군들 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위대한 교육사상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총을 쥐고 일제와 싸우는것만이 혁명과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 소년들을 훌륭한 혁명투사로, 장차 조국건설의 담당자로 키우는것도 우리의 혁명과업이다.…

…우리의 혁명은 장기성을 띤 간고한 투쟁이다.

때문에 우리가 다하지 못한 혁명을 저 아이들이 하고 또 저 아이들대에도 다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대에까지라도 대대로 이어가며 기어이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후대교육사업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복무하는 혁명사업의 한부분이며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후대교육사업의 위치와 역할, 그 중요성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 사람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갖추어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려면 교육사업을 잘해야 한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부문이며 사람과의 사업의 시초이다.

후대교육사업은 새세대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람과의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후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게 된다.

후대교육사업은 또한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장기성을 띤 간고한 투쟁이다. 혁명투쟁은 한두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된다. 이것은 혁명투쟁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따라서 후대교육사업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더우기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이였다.

이 위대하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대들을 튼튼히 키워야 하였다.

혁명의 후비대들을 키우는것은 항일무장투쟁뿐아니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후대교육사업의 위치와 역할, 그 중요성에 관한 사상이 천명됨으로써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후대교육사업과의 호상관계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고 후대교육문제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과 태도가 뚜렷이 밝혀졌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후대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시여 후대교육사업의 목적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나아갈 꽃봉오리들이다.…

…우리는 장차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나아갈 일군들을 키우고 있다. 이 애들은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신발을 벗을새 없이 산야를 뛰여다니며 싸워야 할 투사들이다. 우리는 이 애들이 어떤 곤난과 난관도 두려움없이 뚫고 나아갈수 있는 백절불굴의 혁명가로 자라도록 키워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후대교육의 목적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가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후대교육의 목적에 관한 수령님의 이 사상은 항일무장투쟁의 요구와 조선혁명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맞는 사회적인간의 풍모와 자질을 규정한 탁월한 사상이다.

수령님에 의하여 혁명적교육의 목적이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후대교육사업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위력한 수단으로,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무기로 전변되게 되였으며 혁명인재육성의 원리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근본초석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새세대들을 혁명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울데 대한 혁명적교육의 근본원리를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적교육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시여 후대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후대교육사업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옳게 설정하여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육성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적력량도 강화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장래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참다운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건전한 사상으로

무장하며 신심을 단련하여야 한다.…

…동무들은 분초를 다투어 더 많이 배우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나라를 찾는 싸움마당에 나설 훌륭한 혁명가로 준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인재육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후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줄 아는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후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후대교육에서 사상교양에 선차성을 부여할데 관한 수령님의 사상은 사상의식이 노는 거대한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혁명인재육성의 원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며 혁명가, 공산주의자 육성에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후대교육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새세대들을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국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건장한 체력을 가진 쓸모있는 일군으로 키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후대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건전한 사상의식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기술,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당면한 요구와 혁명적교육의 기본사명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쓸모있는 산 지식과 군사 및 체육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후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힘있는 존재로,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후대들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교육교양의 방법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키워주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 혁명적조직생활과 여러가지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한 교육교양방법들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새롭게 밝히신 혁명적교육교양방법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육교양의 방법은 새세대들을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혁명적조직성과 강철같은 규률성을 가진 불굴의 혁명투사로,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 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데 대한 혁명적교육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교양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후대교육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우며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문제 등 혁명적교육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사상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며 우리의 교육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진정한 교육으로 전변시키게 한 탁월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집대성하시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교육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

수령님의 이 강령은 주체적인 교육강령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

에서 해결하여야 할 인민교육건설의 근본문제들을 밝혀준 위대한 투쟁강령이며 배움에 대한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적교육건설의 사상리론적방법론적지침을 튼튼히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고 인류의 교육사상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교육실천에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시고 근로인민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수 있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드를 세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진명학교, 삼광학교를 비롯하여 가시는곳마다에 학교를 세우시고 가난한 근로인민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면서 인민적인 교육제도의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근로인민의 자녀들이 누구나 다 배울수 있는 교육제도를 수립하시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으며 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그들을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불굴의 혁명투사로 길러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새세대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의무적인 면비교육이 철저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쟁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업료를 폐지하시고 교과서와 학용품으로부터 교복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보장하여주시였다.

국가적인 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었으며 일제의 탄압이 혹심한 조건에서 면비교육을 실시하고 학습과 생활 조건을 갖추어주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새세대의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이처럼 크나큰 혜택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교육제도에 의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공부하게 되였으며 마음껏 배우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보려던 우리 인민의 력사적숙원은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항일혁명투쟁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길러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후대들을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무엇보다 먼저 정치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후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학교들에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으로 학생들을 교양하여 그들에게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존경하며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려는 혁명정신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교양을 통하여 후대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며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칠줄 아는 일편단심 수령님께 영원히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새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모든 경험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소년선봉대와 혁명적인 아동들은 상상하기 곤난한 혁명적기적들을 창조할수 있었다. 천진란만한 그들에게 계급적의식이 옳게 침투되면 청장년보다도 못하지 않게 곤난한 혁명적과업들을 완수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후대들에게 일제의 침략성과 략탈성, 그 야수성과 포악성 그리고 일제와 결탁한 지주, 자본가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질을 그들자신의 생활체험과 결부시켜 철저히 인식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새세대들은 일제와 착취계급을 끝없이 증오하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싸우려는 계급적자각과 각오를 비상히 높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후대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여 그들을 조국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며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애국자로,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내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학교들에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후대들에게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양하였다. 또한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인 혁명주권과 새사회제도를 사랑하며 그를 고수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우는 정신으로, 인민을 사랑하고 동지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숭고한 정신으로 교양하였다.

이러한 교양을 통하여 새세대들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애국주의의 산 모범을 체현한 열렬한 애국자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외에도 후대들속에서 혁명적락관주의교양,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교양을 비롯하여 정치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락관으로 충만된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후대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함께 쓸모있는 산 지식과 군사 및 체육 교육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혁명인재로 길러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후대들에게 순수 지식을 위한 지식을 가르치는 낡은 교육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교육과 실천을 밀접히 결부시켜 항일혁명투쟁과 장차 조선혁명수행에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시였으며 혁명적교육의 목적과 항일혁명투쟁의 요구에 맞게 군사 및 체육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새세대들은 지적으로, 정신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을 혁명적교육실천에 구현하시는 행정에서 혁명인재육성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혁명적실천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후대들을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불굴의 혁명가로 키워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실천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내는 훌륭한 학교로 보시고 후대들을 각종 군사임무수행과 생산실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열렬한 산 정치활동가로, 능숙한 군사일군으로, 쓸모있는 산 지식의 소유

자로 키워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혁명적조직생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후대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청소년조직에 망라시켜 혁명가로 단련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날소년동맹, 타도제국주의동맹,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 청소년조직을 무어주시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제기된 혁명과업, 청소년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조직생활을 진행하도록 몸소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조선혁명의 운명을 떠메고 나갈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조건에서도 혁명의 계승자이며 꽃봉오리인 후대들에게 친어버이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과 전반적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육친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제일 좋고 훌륭한 모든것을 후대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신은 귀틀집에서 엄동설한에 홑옷을 입으시고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아동단원들에게만은 제일 크고 좋은 집에서 배고픈줄 모르고 따뜻이 지낼수 있도록 두툼한 솜옷과 이불, 털모자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전투에서 로획한 단 한알의 사과로 갈증을 더시는것마저 사양하시고 그것을 조국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국의 사과를 맛보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원쑤들에게 집과 부모를 잃고 암둔한 극좌분자들의 그릇된 처사에 의하여 사경에 처한 마안산아동단원들을 찾으시여 강반석어머님의 크나큰 뜻이 스며있는 돈 20원으로 그들에게 새옷을 해입히시는 친부모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다는 비길수 없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에 끝없이 감동된 어린이들은 어떤역경속에서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오직 그이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중첩되는 곤난과 애로를 뚫고 후대교육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교육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사회주의교육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적교육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적교육제도를 세워놓았으며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관철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훌륭히 교육교양하고있다.

오늘 당원들과 교육일군들 앞에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빛내이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후대교육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후대교육의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이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그이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대를 이어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류 규 찬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와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에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가 다 건전하고 사상수준이 높고 다 한결같이 당정책을 받들고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혁명도, 사회주의건설도, 조국의 평화적통일도 다 문제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401폐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인다는것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진실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다바쳐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헌신성과 책임성, 성실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것을 말한다.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원칙적방도를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가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1폐지)

우리 일군들은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일군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매개 초소를 담당하고있는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과 당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런데 일군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이 그들의 사상의식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어떠한 태도와 립장을 가지며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가 하는것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들은 모든 사회생활에 더욱 주인답게 참가하며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내여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는가 못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모든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보위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할수 있다. 또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야 어느때, 어느곳에서든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워나가는 투사로 준비될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정열이 있으며 이미 마련해놓은 튼튼한 경제적밑천이 있다.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하며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진심으로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실천적경험은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할 때 모든 단위, 모든 부문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 빨리 진척되여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목적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을 다 잘 살게 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방침을 규정한것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0페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혁명투쟁이란 곧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을 떠나서 일군들에게 다른 투쟁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고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며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하나하나에는 우리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근본리익과 지향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진정으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려는 높은 자각과 각오를 가질 때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갈수 있는것이다.

현시기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당면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와 최근시기의 교시들에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방대하고도 보람찬 과업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지금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혁명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일떠선 우리의 로동계급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수령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으로, 당에 대한 헌신성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이러한 대중의 혁명적기세와 열의를 계속 앙양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지도를 앞세워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고리는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이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일을 되는대로, 무계획적으로 망탕하며, 안일하고 소극적이며 투신하지 않는 등 온갖 낡고 비혁명적인 사상을 불살라버리고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계속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것이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더욱 훌륭히 수행될것이다.

이처럼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48페지)

일군들의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바로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혁명에 바칠 굳은 결심을 가지게 하며 당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의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가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는 사상과 리론, 방법이다. 여기에는 혁명적세계관의 근본을 이루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전면적으로 체현되여있으며 혁명성과 전투성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일군들 자신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인 요구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학습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 심오한 내용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께서 지니신 높은 덕성과 혁명가적풍모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며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끝없는 충실성을 본받음으로써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되여야 한다.

한편 일군들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로동계급의 관점으로 무장하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언제나 억세게 싸울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방도는 또한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 특히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적인 병집을 고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는 당원들과 대중의 강한 비판입니다. 간부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간성은 무엇보다도 당세포회의와 초급당회의들에서 그리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서 끊임없이 검열되고 단련되여야 합니다. 용광로속에서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강이 되든가 떡쇠가 되든가 두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될수 없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08페지)

당조직생활은 일군들의 중요한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이것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일군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일하는 참된 혁명가의 숭고한 사상과 고결한 혁명정신을 배우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혁명가적기풍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조직생활 특히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각종 당회의와 당학습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끊임없이 혁명적교양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다가 일생을 마치는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수령님께 영원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되여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비판과 자기비판, 사상투쟁이다. 이것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동하는 수단으로, 사상단련의 예리한 무기로 된다. 일군들은 비판과 자기비판,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 잔재,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똑똑히 알게 되고 그 원인과 극복방도를 찾아냄으로써 그것을 제때에 시정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일군들로 하여금 자고자대하지 않고 혁명적수양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도록 자극하고 추동하며 과오와 결함을 미리 방지하게 한다. 특히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비판사업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깊이 박힌 어떠한 낡은 사상 잔재도 녹여내는 용광로로 되며 그들의 혁명화를 급속히 다그치는 위력한 혁명적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비판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원칙적이며 동지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에서 비판과 자기비판, 사상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일을 무계획적으로 망탕하며 안일하고 소극적이며 투신하지 않는 등 온갖 낡고 비혁명적인 사상잔재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로 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러한 낡고 비혁명적인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며 그 집행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한몫 단단히 해제끼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해야 한다.

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서 일상

적으로 그들과 접촉하는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자신을 혁명화하려면 군중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똑똑히 알수 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려는 혁명성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간부들은 군중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잘못을 찾아야 합니다.… 군중속에 들어가면 비판을 받을수 있을뿐만아니라 혁명적의지를 더욱 단련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자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것은 생산활동에 직접 참가하고있는 대중이다. 대중은 현실을 잘 알고있을뿐아니라 실천투쟁에서 체험한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있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과 늘 접촉하여야만 그들속에서 현실을 배울수 있으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깊이 파악할수 있다.

또한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늘 접촉하여야만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이신작칙하는 기풍을 배양하게 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

현실속에 침투하여 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지금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기술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울수 없으며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부문,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실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와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다시한번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일관한 원칙

정 락 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당건설분야에 구현하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합법칙성과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시여 당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명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21페지)

맑스-레닌주의당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당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 *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당사상사업의 일관한 원칙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혁명승리를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반드시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유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해서 창건된 당은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유일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으로 되며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된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한 당은 종파와 분과의 발생을 피할수 없으며 도대체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생명이며 전투력강화의 결정적담보인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당건설의 근본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전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될수 있으며 그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만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와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없을뿐아니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부르죠아반동사상과 그 영향을 막아낼수 없으며 투쟁하는 당, 혁명하는 전투적당으로 될수 없다.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싸우자는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

수령님께서 항상 가르치시는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상 가장 위대한 투쟁이며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자연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이다.

당이 이 위대한 력사적위업을 수행하자면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져야 하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옳은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투쟁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키워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로동계급의 현명한 수령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모든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매 단계에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 또한 수령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그러므로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을 당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을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당사상사업은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온 사회에 꽉 들어차게 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하며 그를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이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감으로써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수령이 내놓은 혁명위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갖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실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상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당사상사업의 근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력사적경험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일관한 원칙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당사상사업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고 오직 혁명적원칙에서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사상사업의 일관한 원칙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동적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또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실현되였다. 이와 함께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자기의것은 덮어놓고 깔보고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현상이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혁명가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비약을 창조케 하였다. 그리하여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력사적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이처럼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당사상사업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나감으로써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사상사업에 끼친 사상여독을 철저히 극복하고 오직 혁명적원칙에서 목적지향성있게 당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상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게 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할수록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하게 그리고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와 그리고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주신 강령적교시들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투쟁이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 투쟁은 매우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가장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앞에 제기된 이 과업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조성된 혁명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분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숭고한 과업이 남아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간의 투쟁

이며 공산주의사상과 자본주의사상간의 투쟁이며 애국자와 매국자간의 투쟁이며 주체사상과 사대주의간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이처럼 우리의 혁명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혁명의 앞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며 투쟁과정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시련이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이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실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사상사업의 중심과업으로 삼고 그를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강화와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며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으로 된다.

* *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사상사업의 중심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입니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48페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나온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사상이며 현시대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낡은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에게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여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확고히 틀어쥐고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전당과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이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나갈 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으며 그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자각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은 혁명적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8페지)

사람들의 사상은 혁명적실천활동에서 표현되며 개조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섰는가 서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그들이 자기 맡은 혁명임무에 대하여 주인답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일을 주인답게 생각하고 주인답게 실천해나가는 사고방식과 일본새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시키는것으로 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앞당기는것으로 된다.

당원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불건전한 사상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사소한 표현일지라도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당의 통일을 해칠수 있는 어떤 현상과도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투쟁의 무기이다. 투쟁이 없는 당은 로동계급의 당이 아니며 투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혁명을 끝까지 해낼수 없다.

투쟁을 통해서만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사상적으로 단련할수 있을뿐아니라 썩고 병들어가는 현상을 막을수 있으며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울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며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와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과 관점, 낡은 사업 방법과 태도를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맡겨진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감이 없이 일을 되는대로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나갈 대신 일반적인 지시나 하고 독촉만 하며 국가와 사회의 전반리익보다 자기 지방, 자기 단위의 리익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현상 등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소극성, 무책임성 등은 모두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와는 인연이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다운 관점, 주인다운 일본새와는 인연이 없는 온갖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굳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하여 그들속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는 투쟁정신을 기르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됩니다. 이리하여 혁명전통교양과 결부된 공산주의교양은 당원들뿐만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며 당의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0～181페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며 만년초석으로 되는 혁명의 재부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력사적으로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똑똑히 파악할수 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해야 그들에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는것을 깊이 체득시킬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시키는 것이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이 빛나게 구현된 영광찬란한 력사이며 그이께서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자랑찬 력사이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어버이사랑으로 아로새겨진 불멸의 력사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워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본받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전통교양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열렬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야 한다.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등 당의 모든 사상교양사업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 그래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온갖 편향을 범하지 않고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상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당사상사업의 기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사업에서 온갖 편향을 범하지 않고 오직 혁명적원칙에서 당사상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 잘, 더 빨리 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당을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찬 혁명적인 대오로 되게 하며 대를 이어가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위력한 무기로,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당으로 더욱 빛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

김 성 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힘찬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된 모든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서 흘러나온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모든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떼여놓고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촉진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날로 공고발전하는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29페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근로자들의 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인 우월성이며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는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이 부단히 강화되여야만 사회주의사회관계의 전반이 빨리 공고히 될수 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발전하는것은 근로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며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

계의 발전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새롭게 천명한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고 공산주의건설의 과학적리론을 풍부히 하는데 또하나의 탁월한 기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나라에 형성되여있는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정속에서 혁명적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되여있고 혁명적정열을 내여 일하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0페지)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있으며 온 사회는 하나로 단합된 화목한 붉은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 남녀로소 할것없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우러러모시고 따르고 있으며 서로 믿고 사랑하며 호상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의 완전한 실현, 이것은 우리 인민이 중중첩첩한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걸어온 간고하고도 자랑찬 혁명투쟁로정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우리 나라 사회관계와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일어난 변화의 가장 집약적인 표현이다.

우리 사회에 이루어져있는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실현된 온 사회의 통일과 단결이다.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의 청산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처지와 사회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결과 우리 인민은 모두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으며 그들사이에는 친선과 협조의 관계가 지배하게 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여있으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있다.

착취제도의 청산, 우리 인민의 처지와 사회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온 사회를 하나의 위대한 정치적생명체로 전환시킬수 있는 사회계급적 및 물질적조건을 조성하였으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민대중을 철석같이 뭉치게 한 객관적요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만 있으면 언제나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통일시키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모든 인민대중의 유일한 사상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처럼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은 그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초우에서 수령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기때문이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투쟁의 합법칙성과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을 철저하게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전일적으로 밝힌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또한 철저한 공산주의적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책임감으로 충만되여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려는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사회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고 그들의 사상의 완전한 통일을 보장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울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승리의 기치로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이미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되였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진정한 세계관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가장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통일단결로 되였으며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가 주체사상에 의하여 하나로 결속되여있기때문에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잡사상도 모르는 가장 순결한 통일단결로, 오직 하나의 사상의지로 숨쉬고 사고하는 위대한 통일단결로 되였다.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초우에서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 덕성으로 하여 더욱 진실하고 공고한 통일단결로 강화발전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고 오늘의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모든 사람들을 끝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에 안으시여 정치적생명을 가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워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수령님을 우러러따르고있으며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삼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며 전체 인민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끝없이 따사로운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더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고있다.

우리 사회의 통일과 단결은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그이에 대한 전체 인민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불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령님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혈맥으로 련결되여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참말로 의리깊은 동지적인 통일단결로,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견고한 통일단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통일과 단결은 하나의 붉은 사상과 의지 그리고 하나로 결합된 정치도덕적생활의 두터운 뉴대에 의하여 철통같이 뭉친 혁명적인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초우에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은 투쟁이 없이 쉽게 이루어진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투쟁과정에서 쟁취된것이다.

수령님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가장 야만적이며 침략적인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며 지주를 비롯한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면서 반당반혁명종파도당들과 각종 이색분자들의 파괴음모책동을 분쇄하고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치렬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의 심장인 당을 강화하고 당안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온 사회의 통일단결을 위한 기본열쇠로 보시고 그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우리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을 높여야만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고 그들을 당

주위에 묶어세울수 있으며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종파주의, 지방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경향들을 극복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림으로써 오래동안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던 종파의 근원을 뿌리채 청산하고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의 기초우에서 전당의 완전한 통일단결을 실현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을 공고히 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고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포섭하고 교양하며 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한줌도 못되는 반혁명분자들이 철저히 고립되였을뿐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이 높아지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두터워졌다.

특히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확립되고 당정책이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더한층 강화되였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모든 근로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면서 이와 함께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온 사회에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리도록 하시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남에 의존하며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는 태도를 버리고 민족적긍지와 자주의식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온 사회의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진행함으로써 온 사회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자로 하여 생활하며 사업하게 하였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광범히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뒤떨어졌던 사람이 앞서나가는 사람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관철해나가는 열렬한 혁명투사로, 공산주의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렇듯 불요불굴의 투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완전히 실현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사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압박자와 피압박자로 분렬되여있는 계급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인들이 떠드는 《사회적통일》, 《계급적조화》란 한갖 부질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면서 다같이 전진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모든 분야에 넘쳐흐르고있다.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진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전사된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4.25혁명정신》, 《기양의 기백》으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드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6개년계획수행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을 일으키고있으며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모든 농사일을 본때있게 해제끼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을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든 붉은 작가, 예술인들도 우리 시대의 전형을 생동하게 형상한 수많은 혁명적대작들을 창조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고 그것이 더욱더 강화발전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가 일층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정당, 사회단체 조직들에 널리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비판과 자기비판이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던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일을 무계획적으로 망탕하며 사업에 투신하지 않는 현상을 비롯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일층 강화발전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은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갈라진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을 꾸미려는 적들의 흉계를 짓부시기 위하여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은 확고부동한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친 온 사회의 철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경제규모가 비상히 커진 조건에서도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가며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전례없이 높이고있으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임무인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지난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저명한 언론인은 주체사상에 기

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은 로동계급과 인민을 믿으시고 로동계급과 인민은 수령님을 믿어 혼연일체가 되여있다. 여기에 이 나라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혁명과 건설에서 발휘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우리의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으며 바로 그것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라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칠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당이 단결하고 전군이 단결하고 전민족이 단결해야 하며 당과 정권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 공고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면서 광범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련련한 혁명가로, 참다운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의 기초우에서 더욱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위대한 정치적생명체로 전환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반석같이 뭉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에 대한 커다란 기쁨과 래일에 대한 더 큰 희망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사상혁명의 기본

구 창 석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더욱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운동을 더 빨리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인 근로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근로자들을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기본은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양할수 있으며 혁명의 한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수 있다.

* *

사상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온갖 낡은 유물을 쓸어버리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사상의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사상정신분야에서 개인주의, 자본주의를 쓸어버리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상혁명의 과업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근원을 청산하며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저절로 개조되는것은 아니다.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특히 그것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더 빨리 전진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낡고 뒤떨어진 자본주의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은 사상의식령역에서 개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심각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다. 만일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는다면 그들속에서 낡은 사상의 영향이 커지고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닦기 위한 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더우기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낡은 유물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혁명이 없이, 투쟁이 없이는 새 사회 건설을 더 빨리, 더 실속있게 해나갈수 없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움으로써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함께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

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고있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불멸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였는가 안되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을 위한것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인민대중자신이 어떻게 동원되는가에 달려있다.

근로자들을 기아와 몽둥이의 규률로 내모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과 건설은 대중자신의 높은 자각성을 전제로 한다. 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것만큼 그들스스로가 발동되여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대중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일치하며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이 곧 자신과 사회를 위한 로동으로 된 객관적조건은 근로대중의 높은 자각성을 요구한다. 만일 나라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고 도대체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인된 자기의 처지를 깊이 자각하고 스스로 주인답게 혁명과 건설에 참가하게 하겠는가 하는데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진 참된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하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

원래 혁명이라는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아니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자기스스로가 하는것이다.

혁명을 옳게 하자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자기 머리로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제힘을 믿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써먹을수 있는 기성의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 경험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거나 기계적으로 본따서도 안된다.

바로 혁명투쟁은 거기에 참가하는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높은 주인다운 자각과 확고한 자주성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불패의 힘을 가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킬수 있으며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주성을 지켜야 창조적적극성이 나올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할줄 알아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다.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이러한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게 할 때 그들속에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높은 혁명적 자각과 책임성도 나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혁명은 자연과 사회를 개

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혁명은 사회제도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착취사회의 온갖 유물들을 쓸어버리고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혁명투쟁행정에는 난관과 시련도 있고 희생도 있을수 있다. 결국 혁명이 승리하는 과정이란 원쑤들을 타승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으로써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셔야 하며 난관을 이겨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사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높은 혁명적자각과 책임성은 원쑤들의 아성을 때려부시고 새 사회 제도를 세우기 위한 혁명투쟁에서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건설사업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또한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침체, 적극과 소극,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을 동반한다. 특히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도기에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낡은것은 떨어지고 새 삶이 돋아나게 되는것이다.

전사회적으로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고 혁명과 건설을 깐지게 실속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위력한 요인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 공산주의자로 키운다는것은 결국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것만큼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사람들이 옳은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상과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4~5페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한 계급적관점을 가지게 할수 있으며 혁명적인것과 반혁명적인것,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을 옳게 가려내며 낡고 부패한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이 서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굿굿이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곧 공산주의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인민들이 예속과 굴종, 압박과 착취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객관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으로서 사람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관점을 주며 혁명적세계관을 주는 탁월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혁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준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체득하였을 때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옳바른 립장과 태도와 견해를 가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사람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힘있는 존재로 된다. 다시말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삶의 보람과 목적, 행복의 참된 뜻을 옳

바로 인식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하는 시대의 사람은 혁명을 해야 사는 보람이 있다는 숭고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사람이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혁명도 모르고 무위도식하면 그것은 짐승과 다름없는것이다. 사람이 참답게 살자면 혁명투쟁을 하여야 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이 혁명적원리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기초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나라의 자주성과 인민의 존엄을 침해하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높은 책임성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조직생활과 혁명적실천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정치사상생활과 실천활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통일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똑똑히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철저히 확립할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를 구현하고있는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 당의 정책과 로선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로선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5페지)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 당의 정책과 로선은 어느것이나 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철두철미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그것은 객관세계와 사회발전법칙, 계급투쟁의 법칙에 대한 심오한 리론적 분석과 개괄에 기초하고 있으며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들의 소박하고 평범한 말씀속에는 실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으며 그 모든것이 곧 혁명적진리이기에 언제나 명백하고 위력한 힘이 차고넘치고있다. 그이의 교시와 로작을 한두번 읽는것으로 그속에 담겨져있는 위대한 진리를 다 파악할수는 없다.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 당의 정책과 로선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할 때만이 그 진수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을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주체사상, 공산주의리론으로 더잘 무장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학습하고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은 그것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8페지)

혁명적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이다. 사상사업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그것을 혁명실천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사상개조를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법이다. 주체사상의 원리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것으로는 그것으로 무장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현실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의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더잘 체득하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으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상과 주인답지 못한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자진하여 조직의 통제속에 들어가야 하며 통제밖에 있으면 병이 생기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조직과 집단의 일상적인 통제밑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적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이다. 사회주의적법규범에 엄격히 준하여 일하며 생활함으로써만 낡은 사상잔재와 인습을 없애고 공산주의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생활양식에 맞게 활동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 개인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가 머리를 쳐들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급투쟁의 시대,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더 빨리 전진하며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참말로 주체가 확고히 선 공산주의적혁명가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앞당겨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훌륭히 건설하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임무가 놓여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조국통일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전 당,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근로자들은 누구나 혁명적법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주 기 석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제반 법규와 규정의 요구에 맞게 생활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항상 가르치시고계신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3대혁명수행에서 특히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고 반동적인 자본주의적사상잔재들이 극복되고 사람들의 사상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법의 본질과 사명을 옳게 인식하고 혁명적법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야 할것이다.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법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형식입니다. 일정한 사회경제제도와 계급투쟁을 떠난 법이란 있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41페지)

사회의 모든 법규들은 해당 사회경제제도를 반영하며 국가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지배계급의 의사와 리익을 표현한다.

자본주의법은 지주, 자본가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억누르며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부르죠아독재의 폭압수단이다. 그렇기때문에 부르죠아법은 로동자, 농민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지주, 자본가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법은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경제제도를 반영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비롯한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며 배우며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과 법, 규범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과 법, 규범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국가사회생활의 여러분야에는 착취사회의 유물인 낡은 사상과 법, 규범의 잔재들이 남아있게

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이 계속된다. 이런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법규를 만들고 철저히 실현하지 않는다면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튼튼히 지켜낼수 없다.

사회주의 법, 규정들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한다. 혁명은 온갖 낡은것, 보수적인것, 반동적인것을 짓부시고 새로운것을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한다. 이에 따라 법규도 변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주의법규를 끊임없이 보충하고 완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법규들이 참말로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단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헌법과 이에 기초한 혁명적법규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의 혁명적법규는 우선 전체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시켜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기초를 굳건히 다지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이며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법자체가 당의 정책을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것이기때문에 법을 정확히 실현한다는것은 당의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한다는것이며 따라서 당의 령도를 받는다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144~145페지)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게 하는 무기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법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정책을 법규범의 형식으로 구체화한것이다. 따라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당, 국가 및 근로단체를 창건하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모든 법규와 규정의 근본사명으로 된다.

우리의 혁명적인 법규는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전체 인민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시켜 온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게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규는 규범의 형식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당정책집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행동규범을 제시해준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법규와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여야 불멸의 주체사상을 더 잘 체득할수 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적량식으로 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자라날수 있다. 또한 수령님의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오직 우리 당의 유일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그와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사대주의, 수정주의, 종파주

외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키워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법규와 규정들은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정책집행에서 행동상 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체계를 확고히 보장하며 온 사회를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적법규는 근로자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뒤떨어진 생활관습을 없애게 함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킨다.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은 근로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할 때에만 남김없이 발양될수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혁명화하지 않고서는 온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릴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기술, 문화 혁명과 함께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법규는 근로자들속에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는 교양자적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법적제재와 통제적기능을 배합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를 촉진시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꾸준한 교양사업과 함께 모든 부문에서 강한 규률과 엄격한 질서를 세워 자본주의요소, 수정주의요소가 머리를 쳐들수 있는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290페지)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의 의식속에 뿌리진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자본주의사상과 봉건유교사상들은 매우 집요한것으로서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되살아나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는다. 낡은 사상 잔재는 그것이 의거하는 사회경제적지반이 청산된 다음에도 오래동안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게 된다. 자본주의적요소, 봉건적요소와 같은 반동적요소들은 사람들의 머리속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낡은 사회의 여러가지 유물들, 말과 행동, 례의범절, 생활관습과 풍속에도 있으며 문화에도 있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는 하루이틀에 없어지지 않으며 또 행정적방법이나 명령의 방법으로 없앨수 없다.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는 동시에 사상투쟁과 법적통제를 배합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인 법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법규범의 형식으로 구체화한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일하며 생활할 행동준칙과 생활규범을 제시해준다.

혁명적인 법규는 근로자들이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통제함으로써 집단과 조직 생활에 익숙되게 하며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돋아오지 못하게 하여준다. 또한 낡은 사상 잔재가 자라날 틈을 없애며 생활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요소들을 제때에 고칠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혁명적법규는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집단주의정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 국가 및 공동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더잘 무장시킬수 있게 하며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킨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데서 혁명적 법, 규범들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혁명적인 법규는 사회주의사회하에서의 생활규범, 행동준칙을 제시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활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의 요구에 맞게 생활하여야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상 잔재와 뒤떨어진 생활관습을 없애고 온 사회에 생기발랄하고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울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법규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법규는 우리의 정치적력량을 굳건히 다지게 할뿐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우리의 혁명적법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한 인민경제발전계획실현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계획도 법이며 국가재정예산도 법입니다. 이것은 모두다 국가의 정책과 시책들을 법령으로 표현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45페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경제발전법칙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법령으로 채택한다. 사회주의법은 국가법령으로 채택된 계획에 법적의무성을 부여하며 그 누구도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하게 한다. 계획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것은 그자체의 확고성을 튼튼히 보장할뿐아니라 근로대중을 계획실행에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규는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사회협동단체 및 일군들이 국가계획 특히 협동생산계획규률을 엄격히 지키게 함으로써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법규와 규정들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축적을 늘이게 하고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과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규와 규정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이러한 법규는 매개 단위의 당위원회가 주인이 되여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경영활동을 벌리게 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생산과 기업관리에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법규와 규정들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근로대중을 인민경제계획실현에로 조직동원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킨다.

사회주의사회의 법규와 규정들은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은 계속된다. 원쑤들은 국가 및 사회 질서가 잡히지 못하고 제도와 규률이 문란한 틈을 노리고있다. 법질서가 서고 제도와 규률이 째인곳에서는 적들이 배겨내지 못한다.

사회주의 법규와 규정들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세우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게 함으로써 적들이 준동할 틈을 없애게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법규와 규정들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옹호보위하며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우리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을 모르고는 법을 집행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44페지)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 법규와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제반 법규의 혁명적본질을 똑똑히 알고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법질서와 규범대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할수 있다.

혁명적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법, 규범들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 원칙,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비롯하여 국가사회생활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과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의 본질과 내용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다른 모든 법, 규범, 규정의 요구를 잘 알수 있다. 법규를 잘 알아야 그대로 행동할수 있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조직사상적으로 세련되고 단련된 혁명가로 준비할수 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법, 규범, 규정들을 없애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를 수정보충하고 더 완성시키는것은 법규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70페지)

사회주의법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 규범,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수정보충하며 끊임없이 완성시켜나가는 동시에 법규를 철저히 실행하도록 법적제재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 천리마의 속도로 급속히 전진하는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지 않는 법규와 규정들은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주지 못할뿐아니라 도리여 제동기적역할을 놀수 있다. 또한 법규와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대중에게 해석선전하며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법규와 규정들은 지상공문에 지나지 않는다. 법규와 규정들은 근로자들의 혁명실천과 결부되여 실현되여야만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될수 있다.

당, 국가기관, 근로단체, 사회협동단체 등 모든 조직과 단위들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전체 근로자들이 혁명적 법규와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규모있고 절도있는 규률생활에 익숙되도록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따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법규와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꾸준한 사상교양사업과 법적 통제를 옳게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꽉 들어차게 하고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단결된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나갈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기

김 태 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일련의 중요한 교시들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금번 전원회의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여나갈수 있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천재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에서 그를 옳게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독립채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독립채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한다는것은 기업소들에서 계획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로력과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고 모든 비생산적지출을 줄이며 생산의 내부예비들을 합리적으로 동원하여 기업소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46~147폐지)

독립채산제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도록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관리원칙을 지키면서 여기에 기업소의 상대적인 경영상 독자성을 적절히 배합하여나가는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방법이다.

독립채산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관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경제관리에 참가하도록 하는것이지만 결코 우리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물질적자극을 전혀 필요치 않은것으로 여기거나 경제운영에서 가격공간리용을 도외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42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운영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관리의 주인이다. 여기에서는 경제를 건설하고 그것을 관리운영하는것이 다 근로자들자신의 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사람과의 사업에 철저히 기본을 두면서 이와 함께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과 관련한 가격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운영에서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이 사회의 과도적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과도적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는 못하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물론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여있지만 아직 그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는 되지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자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며 상품생산과 가치법칙과 관련되는 경제적공간들을 적절히 리용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는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는 경제범주로서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경제관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을 전제로 하고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경제운영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깐지게,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여야만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되는대로 일하는 낡은 습성을 버리고 모두가 다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할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잘 실시하여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업활동의 경제적측면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게, 알뜰하게, 이악하게 꾸려나가게 할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통제할수 있으며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성실히 참가하게 할수 있다.

독립채산제는 경제계산과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면 로력과 자재, 설비를 절약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 등 경제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할수 있다.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것은 경제관리를 규정화, 정규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인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지켜야할 규정이 없이는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전체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규정을 잘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여야 이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다.

경제관리를 규정화, 정규화하여야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더욱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의 요구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것은 경제관리를 정규화하고 경제생활에서 사회주의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초소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깐지고 알뜰하게, 이악하게 수행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더욱 몸바쳐 일하게 할수 있다.

금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토의한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자면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1페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사상을 확고히 구현하고있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적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실무적인 사업과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성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실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가장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잘 실시하자면 이와 함께 경제조직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획이 없이는 도대체 경제가 움직일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43페지)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들에서의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떠나서 독립채산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계획화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로

동정량, 물자원단위소비기준, 설비리용기준을 비롯한 각종 기준들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로동정량, 물자원단위소비기준, 설비리용기준을 비롯한 각종 기준을 잘 세우는것은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계획실행결과를 옳게 평가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는 당정책과 국가의 요구에 맞게 모든 경영활동을 세부적으로 맞물린 동원적이고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기업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는 국가계획의 실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런것만큼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국가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또한 국가계획실행을 위하여 그것을 직장, 작업반별로 구체화한 년간, 분기 실행계획과 월전투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현물지표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다.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중요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작고 소소한것같지만 꼭 필요한것을 생산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현물지표별생산계획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자면 국가재산관리와 그 리용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연한 고정재산 관리체계와 관리질서를 세우고 국가소유인 기업소의 고정재산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필요없게 되였거나 놀고있는 고정재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필요한 부문에 제때에 돌려주며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계약에 따라 상품교환의 형태로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독립채산제는 상품화폐관계의 리용을 전제로 하는 관리운영방법인것만큼 그를 옳게 실시하자면 생산수단의 생산과 그 류통분야에서 가치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충분히 리용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산수단생산분야에서 가치형태를 옳게 리용하여 엄격한 계산제도와 원료, 자재, 로력의 리용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특히 엄격한 계산제도를 세워 현물계산은 물론 부기계산, 원가계산 등 금액계산을 철저히 하며 기업소적인 계산과 함께 직장, 작업반들에서의 계산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원료, 자재, 로력을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끊임없이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 국가의 수익성을 높이고 축적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생산수단생산분야에서 가치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과 함께 그 류통분야에서도 상업적형태를 잘 리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자재상사들은 기업소에 자재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등가성의 원칙에서 팔고사는 형식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재공급계획에서 나타날수 있는 부족점을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기업소에서 어떤 자재를 너무 많이 사오면 다른 자재를 사올수 없고 또 자재를 랑비하면 경영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자재의 값과 수송비를 따지며 자재를 귀중히 여기고 더 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재리용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애쓰게 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다.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면 될수록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생산의 정상화는 독립채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무엇보다 채취공업을 앞세워 석탄, 쇠돌을 비롯한 원료, 연료를 더많이 생산하며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그것을 제때에 생산자들에게 날라다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생산을 잘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관리, 공장관리를 잘하고 생산자들이 기술조작법을 잘 지키도록 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며 그것을 종업원들의 물질적관심성과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를 옳게 평가하는것은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며 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는 반드시 국가계획의 실행정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생산, 기본건설, 대보수, 기술발전, 로동, 원가, 재정과 같은 국가계획의 모든 항목, 지표별로 매달, 매 분기 기업소경영활동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계획실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기업소의 로임자금, 상금 및 기업소기금의 적립규모를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 공장, 기업소는 국가계획을 질, 량적으로 넘쳐수행함으로써 수입을 늘여 국가가 제정한 리익금을 공제하고 남은 몫으로 기업소의 경영상태를 개선하며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하는데서도 철저히 기업소계획수행결과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로임 및 상금을 지불하는데서 국가의 리익과 기업소의 리익,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기업소경영활동과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평가와 함께 정치적평가를 정확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배려와 은덕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그들의 물질적관심성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상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적평가, 사회적평가를 옳게 하는것이다. 정치적평가는 결코 돈몇푼에 비길수 없다. 사람들이 혁명가라는 정치적평가, 사회적평가를 받는것보다 더큰 영예, 더큰 보람은 없다.

오늘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바로 이것을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있으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있다.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이는 이러한 평가보다 더 높은 평가, 더 높은 영예는 없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물질적자극한쪽에만 치우칠것이 아니라 각종 영예칭호를 수여하는 등 근로자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옳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자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고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를 잘 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계획총화와 재정계획총화를 같이 진행하며 생산계획지표와 재정계획지표를 맞물려 정확히 총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정은행기관들과 통계기관들에서는 독립채산제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며 통계의 일원화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통계의 과학성과 시간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48페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독립채산제는 바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경제 사상과 리론을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사업에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나가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며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의 진수, 우리 당 경제정책의 과학적기초를 깊이 파악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그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작성된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과 《자재상사사업규정》을 깊이 연구하고 그를 바로 실시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립장을 깊이 간직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관리를 되는대로 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소극성, 보수주의, 요령주의 그리고 본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과 불건전한 사업기풍과 사업태도를 없애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에서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자대중이 공장의 주인, 관리의 주인, 기술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엄격한 절약제도를 실시하며 경제관리를 정규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옳게 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모두다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6개년계획과 그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앞당겨 수행하자.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리익의 철저한 옹호자들이다

로 근 준

오늘 남조선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자들이 민족의 외피를 쓰고 공산주의리념을 외곡하며 공산주의자들을 비방중상하는데 특별히 열을 올리고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마치도 민족의 리익을 《거부》하며 《민족소멸》을 주장하는듯이 사실을 외곡함으로써 그 어떤 정치적리득을 얻어보려 하고있다.

남조선반동들은 이러한 비렬한 책동을 벌림으로써 민족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저들의 책동을 합리화하며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저들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할수 없으며 민족적리익의 진정한 옹호자들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신임을 허물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리익의 진정한 대표자들이며 민족의 번영과 륭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높은 책임을 지고있다.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민족적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로 되며 또한 그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세기적인 민족적념원이 이룩될수 있다. 이것은 오늘의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이며 객관적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민족의 세기적념원의 실현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적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이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며 민족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도대체 그 어떤 혁명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진행될수 없으며 승리할수 없다.

혁명투쟁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인민과 민족을 온갖 예속과 불평등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근로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자기앞에 나선 민족적임무는 물론 국제주의적의무도 완수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인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함으로써만 그것을 통해서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국과 민족을 떠난 그 어떤 추상화된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에서 온갖 예속과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자기 인민과 민족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민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낡은 사회를 때려부

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매개 나라들이 온갖 예속과 착취를 없애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민족적으로 륭성발전하는 과정인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인민과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것이며 민족적리익의 철저한 옹호자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한다.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이다.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럼으로 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적리익의 진정한 옹호자로 되는것은 또한 그들이 민족의 절대다수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애국주의는 한줌도 못되는 지주, 자본가나 친일파들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줄 근로인민의 참다운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의 리익을 떠나서 민족의 리익, 민족적번영을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곧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며 민족적번영과 륭성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이 민족의 리익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으며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이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로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으로서 자기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는다.

로동계급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예속과 착취,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기자신의 완전한 해방을 실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수 없다.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인민과 민족의 참다운 대표자로, 민족적리익의 진정한 옹호자로 되는 중요한 리유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하며 자기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와 전통, 자기의 조국강토를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과 반동통치배들에게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수 없으며 그들은 민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할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인민대중을 가로타고앉아 그들의 등을 쳐먹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 배를 불리고있다.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밑에서 절대다수 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을 여지없이 유린당하고있으며 아무러한 민주주의적권리도 가지고있지 못하다.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에게 차례지는것이란 짓밟히고 굶주리는 자유뿐인것이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귀중한것이 조국과 인민의 리익이라면 부르죠아반동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보다 많은 리윤이며 개인의 부귀영화와

권세인것이다.

력사와 오늘의 엄연한 현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는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복무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지난날 조선인민은 주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남보다 뒤떨어졌던 탓으로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처지에서 민족수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국이 일제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던 그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피흘려싸워온것은 다름아닌 조선공산주의자들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인민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였으며 인민혁명군대원들은 모두가 다 일치단결하여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영예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17～18페지)

한때는 《애국자》요, 《투사》요 하던 자들이 투쟁에서 물러나 일신의 안일과 처세만을 찾고 친일사대주의자들은 일제와 손을 잡고 날뛰던 그 암담한 때에도 공산주의자들만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지켜싸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강점으로 온 강토에 민족적비운이 서리고있던 수난의 시기에 주체의 기치를 드시고 민족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조국과 민족을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구원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밝히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민족재생의 길을 모색하고있던 우리 인민에게 투쟁의 뚜렷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이 땅에 조국광복의 서광이 차넘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제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인민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조국과 민족의 참다운 아들딸들로서 언제나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였고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장구한 세월을 하루와 같이 싸웠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이나 생명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더 귀중히 여기였기에 천고의 밀림속에 수십일씩 홀로 남아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목숨을 이어가는 그 간고한 때에도, 원쑤들의 단두대에서 이슬이 되는 마지막순간에도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

참으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에게 짓밟혀 몸부림치는 조국과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의 광명한 앞날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용감히 싸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해서만 우리 인민은 그처럼 바라던 조국광복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해방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조국건설의 거창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이 땅우에 진정한 자주적인 인민정권을

세웠으며 온갖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오늘과 같은 강력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지난날 락후하던 처지로부터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력사의 가장 참담한 수난자였던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의 대번영이 이룩되고있으며 인민들은 자기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노래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이 위대하고 찬란한 민족사적변혁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결실이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과는 달리 오늘 남조선에서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이 《애국》이니, 《민족의 리익》이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고있다.

력사는 가장 힘있는 증인이며 현실은 엄격한 심판자이다.

남조선의 박정희일당은 지난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갖은 곤난을 이겨내면서 피흘려싸울 때 일제에게 혈서를 써서 충복이 될것을 다짐한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써도 박정희일당의 매국배족의 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매국배족의 무리들인 박정희일당은 오늘 민족의 자주권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떠맡기고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팔아먹는데서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을 무색케 하고있다.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은 옛상전인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여 판을 치게 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노예로 만드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애국》, 《애족》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떠들고있는것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엄연한 사실은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철저한 애국자들이며 민족의 광명한 앞날을 대표하는 투사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애국자와 매국자간의 투쟁이다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진정한 애국자와 매국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89페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강토우에서 단일한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되고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할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융성과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실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민족의 사활적문제이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가장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투쟁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겪고있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재난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여기시고 갈라진 국토를 합치고 민족의 뉴대를 다시 잇기 위한 주체

적인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결정적으로 추진시키시기 위하여 최근시기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주동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대담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방안들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매번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광범한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또 일으키고있다.

조국과 민족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과 더불어 힘있게 투쟁하여왔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성의있는 일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그와 결탁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자들의 민족분렬책동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리익은 털끝만치도 안중에 없고 외세에 의존하여 개인의 부귀와 권세만을 추구하는 남조선통치배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등지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비렬한 책동을 일삼고있다.

우리 당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조선위정자들은 미제의 책동에 발맞추어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의 간판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10월유신》이라는 간판밑에 군사파쑈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주장하는 수많은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을 함부로 잡아가두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분렬을 고정화하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토끌적인 책동으로 하여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큰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우리 민족앞에 열리였던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은 도로 흐려지고있다. 이것은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는 주되는 원인이 바로 미제에게 추종하는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의 분렬책동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누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애국자인가, 누가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매족의 무리인가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며 그들의 투쟁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미래도 있을수 없다.

*　　　*

민족적리익의 진정한 옹호자들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장기간의 간고한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허물수 없는 두터운 신뢰를 쟁취하였으며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앞에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미 점령한 고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더 멀리 전진하여야 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조국과 인민, 민족의 광명한 앞날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남조선경제를 삼키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

김 광 수

오늘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정치, 군사적 침투와 함께 경제의 예속화를 더욱, 다그치고있다.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된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는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철천지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남조선을 일본의 상품판매시장으로, 부속물로 만들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를 막고 놈들의 침략야망을 단호히 짓부시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더 큰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일본반동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 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35~36폐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현남조선통치배들과 《한일협정》을 조작한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쓸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남조선의 경제생활에 엄중한 재난을 빚어내고있다.

범죄적인 《한일협정》체결후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중요 경제명맥들을 틀어쥘것을 꾀하는 각종 《협정》을 강요하는것과 함께 경제생활에 마음대로 간섭할수 있는 침략기구들을 조작하고 오늘에 와서는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하나의 부속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정기각료회의》, 《한일협력위원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등을 조작하여 남조선위정자들과의 결탁을 강화하고있다. 지금 일본독점자본은 《정부차관》, 《민간차관》, 《직접투자》와 《기술협력》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들고있다.

남조선에 깊이 침투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본과 기술, 원료, 자재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류통, 금융 등 모든 부문을 좌지우지하고있다. 놈들은 이미 《청구권자금》과 《차관》이란 이름밑에 8억딸라이상의 자본을 들이밀어 남조선의 지하자원과 《국토》의 《개발권》을 빼앗고 재정, 류통 부문을 틀어쥐였다. 또한 공업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통신, 도로, 철도, 항만 건설과 관광업에까지 손을 깊이 뻗치고있다.

지난해말 현재로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의 보세가공공업과 염화비닐공업, 알루미니움, 판유리 생산의 100%를 틀어쥐고있으며 선박공업의 80%, 전기기구류생산의 70%, 화학섬유공업의 80%를 지배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올해 상반년기간 남조선에 화학공장들로부터 려관업에 이르기까지 1억 6천만딸라나 투자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투자총액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오늘 놈들은 남조선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에서 미국을 밀어제끼고 첫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산업기지》로 전락되여 놈들의 경제권에 깊숙이 말려들어가고있으며 경제의 기형성과 편파성, 파탄과 혼란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일환이며 그 산물이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침투시킴으로써 저들의 대리인을 통하여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무너져가는 아세아침략정책을 수습하려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는 놀음을 벌렸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제 안속을 채우려고 꾀하여왔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33페지)

원래 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켜 조선과 아세아 침략에 리용하려는 책동을 일관하게 감행해왔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 역시 미제를 끼고 제놈들의 옛망상을 실현할것을 노리였다.

최근년간 미제는 저들의 파산된 힘의 정책을 만회하여보려고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막대한 군사장비를 집중하며 언제까지나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두어둘것을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침략정책도 실현하기 매우 어렵게 되였다.

미제는 아세아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 배격당하고있으며 경제적으로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빠져들어가고있다.

한때 자본주의세계에서 딸라의 왕자로서 위세를 뽐내던 미제는 지금 심각한 딸라위기를 겪고있으며 단기채무도 갚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있다. 1950년대부터 계속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미국경제는 인도지나전쟁을 통하여 더욱 걷잡을수 없는 처지에 굴러떨어졌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나라들로부터 딸라의 시세폭락으로 《국제통화》공격을 받고 아세아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년간 40여억딸라의 적자무역공격까지 받음으로써 매우 형세가 어렵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국내인민들의 강력한 반전, 반정부 운동에 부딪쳐 정치도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불리한 처지에서 벗어나며 변함없는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결탁시키는데 더욱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리권의 일부를 양보하면서라도 남조선을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켜 그곳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려 하고있는것이다.

해외팽창야망에 불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는 미제가 추구하고있는 《닉슨주의》가 저들의 팽창주의를 실현하며 당면하여 심각해지고있는 경제위기를 모면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독점이 지배하는 제국주의는 착취와 략탈,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삼는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팽창된대로 팽창되고 경제적위기는 커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겉으로는 《고도성장》을 뽐내고있으나 사실상 심각한 경제적진통을 겪고있다.

전후 미제의 부추김밑에 재빨리 일어선 일본독점자본은 갈수록 줄어드는 시장과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는 자본의 상대적과잉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경제위기에서 모대기고있다.

자본축적을 위한 인민수탈은 일본국내에서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감소를 가

져왔으며 해외시장들도 일본독점자본의 상품공급을 밭아물리 하지 않고있다.

일본상품의 침투가 놈들의 침략의 길잡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한때 인기를 차지했던 일본의 일용품과 화장품의 시세가 걷잡을수 없이 떨어지고있다.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관세적봉쇄를 당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상품공급의 패권을 틀어쥐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 조건에서 기술적으로 약점을 가진 일본상품은 하나의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또한 동남아세아의 일부 나라들에 의거했던 일본의 시장도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있다.

상품시장과 함께 자본의 투자범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있다.

급속히 장성된 일본의 자본축적은 미제가 저지른 조선침략전쟁과 윁남침략전쟁의 보급기지, 후방기지로서 놈들의 살륙적인 군사침략에 복무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전쟁정책파산과 패배는 일본독점자본의 투자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특히 윁남에서의 정화의 실현은 경제의 군사화에 돌려졌던 일본독점자본의 투자를 급격히 줄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자본수출은 상품수출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문제거리의 하나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성과 경제적난국은 일본독점자본이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 해외침투의 길에 나가게 한 중요한 전제였으며 남조선재침과 경제적예속은 그 일환으로 되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면서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은 상품과 자본의 상대적과잉현상을 극복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의 눅거리로동력으로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자는데 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수백만의 남조선실업자들을 헐값으로 고용함으로써 기술갱신으로 얻는 리윤보다 훨씬 많은 리윤을 짜낼것을 노리고있다.

남조선을 저들의 경제권에 끌어넣기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남조선을 지배하며 옛지위를 되찾으려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복수주의야망과 팽창주의로 일관된 일본군국주의의 척후병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정치와 군사를 틀어쥠으로써 구경에 가서는 전조선을 또다시 식민지화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남조선침투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수행에서 남조선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아세아침략에서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미제의 《신망》 등에 의하여 뒤받침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군사적부담의 일부를 감당하며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보장하는 대가로 차츰차츰 식민지패권을 틀어쥐려 하고있다.

남조선의 친일매국도당들은 일본독점자본을 끌어들여 놈들에게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고 경제생활의 모든것을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내맡겨 분렬을 더욱 고착시키며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경제를 미제에게 내맡기던 종패의 립장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한편 이제와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더욱더 매달리면서 두 제국주의의 《원조》밑에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 《승공통일》야망을 실현할것을 꿈꾸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외국자본을 저들에 대한 군사적보호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일본독점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놈들에게 장차 군사적개입의 조건을 지어주자는것이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더러운 목숨을 이어가려는 그들의 매국반역적인 목적에서 나온것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노들의 리해관계의 일치성을 반영하여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에 거침없이 쓸어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

틀은 요즘 남조선위정자들이 나라의 영구분렬책동을 공공연히 정책화함에 따라 거기에 적극 끼여들면서 남조선재침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예속화를 다그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류례없는 악랄성을 띠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공장을 들여다가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경영권을 일본측에 넘겨주는 형식으로 경제교류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예속적인 경제교류라고 보아야 합니다.》(《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38페지)

일본독점자본의 흡혈귀적야망은 우선 자본침투형태에서 명확히 드러나고있다.

놈들은 《원조》라는 구실밑에 《직접투자》를 늘이고있다. 《직접투자》는 로동력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기본형태이다. 일본독점자본은 미국의 3배에 해당하는 《직접투자》를 남조선에 들이밀어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6분의 1밖에 안되는 기아임금으로 남조선로동자들을 착취하여 초과리윤을 짜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물단지》로 불리우는 공해산업과 자국내에서 이미 시세가 떨어져 죽어가며 몰락해가는 이른바 《사양산업》을 공장일식형태로 남조선에 들이밀고있는데 이것역시 남조선로동력을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착취하기 위한 자본투자형식의 하나로 되여있다.

그들은 부분적인 설비와 시설을 들여다가 공장을 차려놓는것보다 큰 공장을 통채로 들여옴으로써 자본회전을 보다 빨리 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리윤을 짜내려 하고있다. 여기서는 다만 차려놓은 기계설비에 로동력을 고용하며 그들을 짐승과 같이 부려먹으면 그만인것이다.

《합작투자》에 의한 자본침투도 일부 쓸모없는 설비를 팔아넘겨 로동력을 착취하며 점차 기업활동을 틀어쥐고 리윤을 독차지하기 위한 악랄한 투자형태이다.

일본독점자본은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기술설비가 뒤떨어진 남조선의 산업기업체들을 손쉬운 방법으로 틀어쥐기 위해 《합작투자》를 많이 하고있다. 《합작투자》에 의하여 많은 남조선기업체들의 경영권이 계속 일본자본가놈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로 침투하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남조선에 침투한 외국자본의 67.8%에 달하고있다. 방대한 일본독점자본은 《특수산업건설》과 《새마을운동》 자금이란 명목밑에 주로 군사침략적목적에 돌려지고있다.

미쯔비시, 미쯔이, 이도쥬, 마루베니이이다, 스미도모, 도요멘업 등 일제강점시기부터 악명높던 대재벌들이 섬유, 화학, 제철, 금속, 전기, 전자기류 및 부속품 등 매우 넓은 분야에 걸쳐 기여들고있다. 큰 재벌과 함께 수공업적테두리를 벗어난 중소기업들까지 한몫 노리면서 끼여들어 남조선은 일본의 자본수출기지로 전락되였다.

이와 함께 보세가공의 이름밑에 반제품들이 남조선에 들어와 로동력을 착취하고있으며 화장품을 비롯한 일용상품이 막 쓸어들고있다. 현재 남조선은 수입상품의 40%를 일본에 의존하고있다.

남조선이 오래전에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조건에서 새로운 외국독점자본의 침투는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예속의 길에 밀어넣고있다. 이미 미국독점자본의 투자를 훨씬 릉가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에서 첫번째 자리에 오른 일본독점자본이 남조선에서 차지한 권세란 말할나위없이 크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에서 얼마전까지 미국《원조》물자의 판매대금으로 이루어지던 이른바 《대충자금》이 재정예산을 좌지우지하던것처럼 《경제계획》의 커다란 밑천으로 되고있으며 개별기업체들의 경영활동자금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상품과 자본을 투입하는것으로써 남조선의 재정예산과 물자수급계획을 틀어쥐며 발언권을 높이고있다. 놈들은 개별기업체들의 출자몫을 늘이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예앗을뿐아니라 나아가서는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완전한 부속물로 전락시키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예속화를 다그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원조》를 미끼로 강요하는 예속적인 《협정》에 의하여 합법화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인 《조세면제협정》을 강요한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와서는 《한일공업소유권협정》까지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영활동의 특권은 물론 남조선경제의 예속화를 합법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였다.

한편 남조선의 친일매국노들은 《공업소유권협정》에 도장을 찍고 1억 7천만딸라의 《재정차관》을 구걸할수 있게 되였다. 《공업소유권협정》이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투자의 특전과 경제기술적지배권을 틀어쥐게 하는 침략문건이며 남조선경제를 놈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매국문건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당국자들과 《대륙붕개발협정》을 맺음으로써 륙지의 자원뿐아니라 바다밑자원까지 략탈하려 하고있다. 놈들은 《공동개발》의 미명하에 우리 나라 남해안일대의 대륙붕총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평방키로메터나 되는 바다밑의 천연자원을 항구적으로 략탈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가 극도에 이르렀으며 더욱 커다란 위험성을 띠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는 이미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혹심한 예속성과 편파성을 띤 남조선경제에 더욱더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경제의 편파성과 기형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산물이며 식민지경제의 특징이다.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로 남조선경제는 파국에 처해있으며 식민지적편파성은 날로 심해가고있다.

독점적인 초과리윤을 목적으로 일본독점자본의 투자가 주로 자본회전이 빠른 부문과 특히 중화학공업에 집중되고 보세가공공업과 공해산업기업체들이 마구 쓸어들어 경제의 전반적균형은 더욱 파괴되여가고있으며 온 남조선땅은 말그대로 일본공해산업의 《오염물질의 페기장》으로 되여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일본독점자본은 팽창주의와 리윤추구만을 목적하고 생산력을 되는대로 배치한 결과 경제부문간의 련계는 물론 부문내부에서의 련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협력권》이요, 《수출자유지역》이요 하는 놀음에 따라 남조선은 놈들에게 통채로 먹히우고있다. 놈들은 《한일경제협력권》편성이란 구실밑에 남조선공업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포항이남지역을 저들의 경제권에 끌어넣어 《사양산업》과 공해산업의 개발지대로 만들고있다. 또한 일본독점자본의 직접투자의 8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이나 《제2수출자유지역》으로 자본투자를 퍼붓고있는 《리수수출자유지역》에서는 로동자들의 쟁의마저 《법》적으로 금지되고있으며 일본독점자본은 한푼의 관세도 없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이리하여 미제강점하의 남조선땅에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식민지로서 《식민지속의 식민지》, 《한국안의 일본》이 생겨나고있다.

남조선경제는 식민지편파성이 심화되고 더욱 파산과 몰락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생산력발전에서 질곡으로 되고있다. 군사부속경제인 남조선경제에서 군수산업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비군사적부문들은 파산몰락되여가고있다. 특히 남조선기업체의 압도적다수를 이루고있는 중소기업들은 일본독점자본에 짓눌리고있으며 재정신용거래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봉쇄책동에

의하여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에 부딪쳐 파산되여가고있다. 또한 일본독점체들이 들어와 차려놓은 기업체들도 대부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있으며 경제생활은 전반적으로 혼란과 침체 상태에 빠지고있다.

파국에 처한 남조선경제는 빚더미우에서 빚을 찾는 한심한 지경에 굴러떨어졌다. 이미 40여억딸라의 빚을 진 남조선이 2~3년안으로 일본에서만도 23억딸라를 더 빚지게 된것이다. 뿐만아니라 여기에 해마다 4억딸라이상씩 원리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파국은 도저히 수습할수 없게 될것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인민수탈을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늘어나는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아무런 담보도 없이 지페를 란발함으로써 악성인플레를 조성하고있다. 그리하여 통화는 팽창되고 물가는 뛰여올라 경제적혼란이 커가고있으며 2중 3중의 가혹한 착취밑에서 인민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생존의 위협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다그치고있는 남조선재침책동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하나의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여러가지 명색을 걸고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승공통일》야망을 뒤받침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군사경제력과 복수주의야망, 침략경험 등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데 리용되고있다. 놈들은 경제적 침투를 앞세우고 남조선위정자들의 손에 몇푼의 돈을 쥐여준 값으로 정치, 군사적 침투를 위한 조건을 속속 마련하고있다.

식민지지배의 옛망상에 사로잡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금 미제와 남조선 추종자들의 이른바 《유엔전략》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으며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의 공동발기자로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맡아나서고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을 짓부시는것은 내외반동들의 《두개조선》조작음모를 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남조선이 우리 인민의 존엄있는 조국의 한 부분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남조선분렬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며 남조선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는 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최근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박정권을 타도하자》,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대일예속을 그만두라》 등 강력한 정치구호를 들고 반독재, 반《정부》, 반외세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대중적항쟁은 파쑈폭압과 나라의 영구분렬, 외세의존과 매국배족을 일삼는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파쑈독재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 동시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페기하기 위한 반일애국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야 한다.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빛나는 실현

김 관 섭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빛나는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더 많이 늘임으로써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다지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정하고있습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13～14페지)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이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승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 동시에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더 많이 받을수록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은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게 된다.

실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전반적승리를 촉진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동의 적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전통이 이룩되였으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본보기로 되는 귀중한 모범이 창조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해방후 미제의 남

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게 된 우리 혁명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조선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침들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을 지키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6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이 똑똑히 밝혀져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대외활동을 진행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자주성의 원칙을 지키며 그것을 존중하는것은 국제혁명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된다. 자주성을 지켜야 당들간, 나라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참말로 자원적이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누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거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것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정치령역에서의 그의 구현인 자주성은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념원과 일치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의 원칙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가장 건전하고 공고한 기초우에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간의 관계는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더 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52페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더 많이 늘이고 국제무대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수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혁명에 더욱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전반적세계혁명발전을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미제와 맞서 놈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고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정치, 경제 기타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실천적 경험과 모범으로 힘자라는껏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민주운동과 세계평화애호운동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민주운동과 평화애호운동과의 련계를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더많은 동맹자들을 전취하여 혁명력량의 우세를 보장하며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을 고립시키고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은 공동의 적을 때려부시고 공통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여러 혁명력량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제나 꾸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혁명에 대한 그들의 지지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또한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국제혁명앞에 지닌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가장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정당한 방침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자랑찬 열매를 맺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이며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2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광활한 국제무대에 진출하고있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적뉴대는 날로 강화되고있다.

옛날부터 집안이 흥하려면 손님이 많아야 하며 나라가 흥하려면 역시 손님이 많아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우리 나라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전례없는 륭성과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 대양주에서 각종 대표단들과 손님들이 우리 나라에 그칠새 없이 찾아와 우리 인민과의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여러곳에서 찾아오는 외국손님들로 매일 흥성거리고있다.

실로 한때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그처럼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로 그 이름 높이 날리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

을 고무하는 믿음직한 보루로서 세계정치무대의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졌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의 70여개 나라들과 각종 공식적관계를 맺고있으며 수많은 나라들과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또한 공화국의 여러 기관, 단체들은 110여개이상의 각종 국제기구들에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고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 나라는 21개의 나라들과 새로 국가관계를 맺었으며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승인하고 우리 나라와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희망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때가지 남조선과만 관계를 가지고있던 많은 나라들이 남조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동적으로 우리 공화국과 련이어 국가관계를 맺는 길로 나오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세계의 이목이 이처럼 우리 공화국에 쏠리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 국제회의들에서도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는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세계의 절대다수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 속에서 우리 나라는 지난 4월에 국제의회동맹에 가입하였으며 뒤이어 5월에는 또다시 유엔전문기구의 하나인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였다.

대세의 흐름이 우리 공화국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최근년간 파키스탄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조작한 미제의 이 침략기구는 마침내 자체분해과정을 겪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질식시켜보려고 오래동안 매달려온 반동정책이 총파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에 와서 국제무대에서 얻어맞고 고립된것은 우리 공화국이 아니라 바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성원을 받고있습니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13페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련대성은 더욱 확고한것으로 장성강화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우리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더욱 더 광범한 국제적 지지와 동정 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혁명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조치들이 광범히 취하여지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기할 때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물론 일부 자본주의나라 정부인사들까지도 그를 지지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축전과 편지를 보내오고있으며 여러가지 련대성행사들을 벌리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정당

한 투쟁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대중적인것으로 되였으며 날로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있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이와 같은 커다란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다.

수령님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바치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높은 존경과 무한한 흠모를 받고계시며 국제무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

오늘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에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여러가지 조직들이 나오고 수령님의 로작들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출판되고있는것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그이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는 기운이 비상히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구라파에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수령님께 보내온 편지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당신의 불멸의 공훈들과 헤아릴수 없는 고귀한 기여들,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 방법, 경험들은 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됩니다.》라고 하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불패의 힘과 혁명적열정, 끝없는 지혜를 언게 된다고 격조높이 말하고있다.

오늘 수많은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로 쏠리고있으며 그들의 이목은 그이께서 계시는 조선에 집중되고있다.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 등 세계의 여러 나라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정치가들과 사회활동가들, 청년일군들과 녀성활동가들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만나뵈려 끊임없이 우리 나라에 찾아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외국의 벗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에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얻고 희망과 승리의 확신으로 더욱 가슴불태우고있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오늘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투쟁과 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나라 혁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국제정세는 계속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장성하는 력량앞에서 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그 처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로부터 출로를 찾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위신이 날로 높아지고있는데 당황망조하여 여러가지 악랄한 수법으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허물고 우리 인

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깨뜨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우리 공화국에로 쏠리고있는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더욱 악랄하게 방해해나서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닉슨주의》에 따라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여전히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과 두개 조선 조작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5대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통일5대강령은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가장 빨리 이룩해나가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만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남북조선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그와의 전투적련대성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항의규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고 놈들이 남조선에서 더는 배겨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세계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싸워나아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 로 자 제11호(루계 37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3년 11월 1일　발행 • 1973년 11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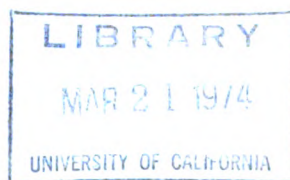
ㄱ-34299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7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 (380)

차 례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김 일 성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0월 28일)

존경하는 또도르 찝꼬브동지!

존경하는 벌가리아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형제적벌가리아인민의 친선의 사절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또도르 찝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벌가리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심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계기로 됩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가 날과 더불어 공고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벌가리아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잘되여나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여 매우 기쁩니다.

벌가리아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견결한 반파쑈투사인 게오르기 지미뜨로브동지의 지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히틀러파시스트도당과 국내파쑈군주제도를 반대하여 용감한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벌가리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나라의 주인으로 된 벌가리아인민은

벌가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기계화된 농업을 가진 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벌가리아인민은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대회가 내놓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벌가리아인민이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발칸지역 나라들사이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벌가리아 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이 기울이고있는 노력을 지지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매개 사회주의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것이 곧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면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과 농업,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과학과 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받들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후 다같이 새 사회 건설의 길을 걸어온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경험은 오직 사회주의의 길만이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여주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정책과 우리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튼튼한 정치적토대로 되고있습니다.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의 영구분렬이냐 아니면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난국에 부딪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평화적조국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한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6월 23일에 새로이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거역하고 끝내 미일반동들과 함께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유엔에 제기하였습니다.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자고 하는것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이룩하기로 한 7.4남북공동성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이며 조선을 완전히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것입니다.

유구한 력사를 두고 하나의 반도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조선사람치고 누가 나라의 분렬을 바라겠습니까.

조선사람들속에서 분렬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외래독점자본의 사환군인 남조선의 극소수 매판자본가들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정치적앞잡이들뿐입니다.

나라의 분렬을 꾀하는것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행위이며 우리 민족을 다시금 망국의 길로 이끌어가는 배족행위입니다.

남조선의 매국세력은 나라와 민족을 분렬시켜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대가로 자기의 권세욕을 충족시키며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려 하고있습니다.

조선의 분렬을 꾀하는 외부침략세력은 이러한 매국자들, 고용분자들을 리용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손안에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일본군국주의의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려는 음모책동입니다.

원래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여 파벌을 형성하고 분렬을 조장하며 전복음모를 꾸미는것은 현대식민주의의 주되는 침략수법의 하나입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인공적으로 분렬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동안 하루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현정세는 평화적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인 매국자들과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현 군사파쑈통치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박정권타도》를 부르짖으며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자기들의 선언문에서 《오늘 전체 국민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참혹한 현상을 이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자신의 량심의 명령에 따라 분연히 일떠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현 집권자들의 군사파쑈통치와 매국배족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의 투쟁이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것만큼 우리는 이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을것입니다.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60만 재일조선공민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속에서도 거세차게 일어나고있습니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이라면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한 오늘 누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또한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간에 관계없이 정견과 신앙의 차이, 당파와 소속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다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호소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신성한 임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목적도 구경은 남조선이 미일제국주의의 범의 아구리에 들어가는것을 가로막자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의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분렬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더욱 큰 지지와 성원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사회주의나라들, 정의를 사랑하고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조선을 영구분렬시키려는 분렬주의자들에게 단호한 타격을 주며 전체 조선인민의 증오와 배격을 받고있는 현 남조선군사파쑈정권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과 인민들을 탄압학살하고있는것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얼마전에 있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와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외국군대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를 요구하고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며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였습니다.

올해 유엔총회는 마땅히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배격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이 더이상 미국의 롱락물이 되여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지난날의 낡은 《결의》대신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새로운 결정들을 채택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조선인민은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외부적요인들이 제거되기만 한다면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훌륭히 해결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국제관계분야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자면 세계 모든 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완강히 벌려야 합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현시기가 랭전으로부터 긴장완화에로, 대결로부터 평화공존과 협조에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하는 론조가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 력량이 장성강화되고 제국주의가 날로 약화몰락되는 오늘의 환경에서 평화와 평화적협조에로 나가는 시대적조류가 날로 커가고있는것을 응당한 일로 보며 평화적공존의 레닌적원칙이 승리하게 될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면서 더욱더 량면전술에 매달리고있으며 《평화》의 간판밑에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전복활동을 교활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칠레에서 아옌데대통령을 살해하고 합법적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는 파쑈적군사정변을 조작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겨 애굽과 수리아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거듭 감행케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것도 미국입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전쟁을 추동하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인민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침략과 전복, 전쟁을 일삼습니다.

오늘 조선에서도 우리는 평화적통일을 주장하고있으나 미국은 자기의 앞잡이들로 하여금 7.4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돌아서는 그 길에 그것이 한개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찢어버리게 하고 공공연히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로 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대를 축소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고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도리여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습니다.

대화의 배경에 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력증강에 날뛰고있는 그들이 오늘은 《두개 조선》을 운운하고있지만 래일에 가서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공격의 화살을 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담보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여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고 투항주의로 나가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와 무원칙한 타협을 통하여 안전을 얻어보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합니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가짜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평화의 길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개 나라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평화적해결의 길을 찾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랍문제도 아랍인민의 해방투쟁에 리롭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중근동에서의 평화가 아랍인민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라면 우리도 그를 지지할것이고 아랍인민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반대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애굽과 수리아 인민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에 일어났을 때에 선참으로 그들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아랍인

민이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는 한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캄보쟈문제를 비롯한 인도지나문제도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세계반제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단결된 력량으로 나갈 때 세계혁명발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투쟁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우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 대외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벌가리아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속에서 굳은 형제적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벌가리아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물심량면으로 되는 많은 원조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벌가리아인민은 오늘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벌가리아인민이 계급적형제로서 우리 인민에게 귀중한 지지와 협조를 주고있는데 대하여 또도르 쥡꼬브동지와 벌가리아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공고발전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과 벌가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만세!

벌가리아공산당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만세!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기치 만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위대한 투쟁의 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10월 28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방침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연설에서 조성된 내외정세를 명철하게 살피시고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반제반미투쟁, 국제공산주의운동 등 현시기 국내국제분야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다시금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년간 내외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영구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된 현사태를 깊이 분석하시고 외부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원칙적립장과 방도는 분렬을 막고 하루빨리 통일을 실현하며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과 조선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바라는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수령님의 연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우리 인민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적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하여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 견결한 반제혁명사상으로 일관되여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님의 연설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수령님의 연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수세에 몰아넣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수령님의 연설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며 세계평화를 이룩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준 힘있는 투쟁의 기치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분렬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수 없습니다.》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앞에 조성되고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를 영구분렬의 위기에서 건져내며 민족의 통일숙원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거의 30년동안이나 줄기차게 벌려온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로정과 특히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우리가 기울여온 합의사항리행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전행정은 분렬주의자들과는 오직 투쟁을 강화함으로써만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목적한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통일에 대한 절절한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기울여온 일관한 노력의 귀중한 열매이다.

이것은 민족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적립장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여온 우리 당과 정부의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마련된 남북대화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발전시키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구체적제안들은 남북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하루빨리 통일의 길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남조선반동통치집단은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우리와 합의한것만큼 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이 모든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압력에 못이겨 대화의 마당에 나서게 된 박정희도당은 처음부터 량면전술에 매달렸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는 박정희도당은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돌아앉아서는 계속 배신행위를 일삼았다.

놈들은 쌍방이 합의를 본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과 통일대신에 대결과 경쟁과 분렬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우리는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대를 축소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남북대화》의 간판으로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민족분렬을 고정화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매국배족의 길로 나아갔다.

대화의 막뒤에서 남조선통치집단이 감행하여온 모든 범죄적책동은 이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은 외세의존과 전쟁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반공》파쑈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온갖 폭압수단을 총동원하여 남조선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애국적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야당정객을 랍치해오며 언론인들과 류학생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야만적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애국력량과 인민들에 대한 횡포무도한 파쑈적탄압은 남북공동성명과는 전적으로 어긋나는것이며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과 대화의 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배신행위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통일념원을 억누르고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꾀하여온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은 마침내 미제의 지령에 따라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로선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쌍방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제놈들의 민족반역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놓았으며 스스로 저들이 민족분렬주의자라는것을 락인찍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사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지난 6월 23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구국방안으로서 조국통일5대강령을 내놓으시였다.

조국통일5대강령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통일위업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명시한 민족의 대강령이다.

그러나 박정희도당은 우리의 조국통일5대강령에 호응해나설대신 그것을 거역하고 끝내 미일반동들과 함께 《두개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유엔에 제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이러한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영구분렬이냐 아니면 통일이냐 하는 더욱 엄중한 난국에 부딪치게 되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이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자고 하는것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이룩하기로 한 7. 4남북공동성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이며 우리 나라를 완전히 둘로 갈라놓자는것이다.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려는것은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산물로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데 유엔의 권위를 악용하려는 또하나의 범죄적모략이며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수법을 《유엔동시가입》이라는 이름으로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분렬주의자들인 매국자들과 외래침략자들이 미제의 총칼의 비호밑에 세워진 파쑈《정권》의 붕괴를 가로막고 제놈들의 추악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범죄적인 책동이다.

남조선의 매국세력은 나라와 민족을 분렬시켜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대가로 제놈들의 잔명을 부지하고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려 하고있다. 조선의 분렬을 꾀하는 외부침략세력은 매국자들을 리용하여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일본군국주의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얽어매놓으려 하고있다.

나라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이러한 책동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행위이며 우리 민족을 망국의 길로 이끌어가는 배족행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현군사파쑈통치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마당에 떨쳐나서고있다.

《박독재정권 타도하자》, 《국민의 노예화를 목적한 〈10월유신〉을 철회하라》, 《정보파쑈정치를 즉각 중지하고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밑에 일떠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중세기적파쑈폭압을 박차고 일떠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박정희도당의 파쑈독재와 민족의 영구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며 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죄행을 더는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항거의 표시이다.

이것은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독재와 범죄적인 매국배족적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남조선인민들자신이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의 투쟁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인 매국자들과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내외의 정세발전과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오직 매국자들과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방침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인민자신이 개척해나가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의 기치로 된다.

우리 인민은 이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만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주체와 사대, 애국과 매국간의 투쟁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로선과 분렬로선간의 치렬한 투쟁이다. 외부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것만이 통일의 길이며 통일만이 자주와 번영의 길이고 분렬은 매국과 망국의 길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에서 나라의 영구분렬의 현위기를 온 민족의 단결된 력량으로 타개할데 대한 명확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또한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간에 관계없이 정견과 신앙의 차이, 당파와 소속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다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호소합니다.》

온 민족이 떨쳐나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출발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그 해결에서 주인은 조선인민이다. 오직 주인인 우리 인민자신의 단합된 주체적 힘에 의해서만 통일문제는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으며 통일이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그리고 평화적방법으로 이룩될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크고 성스러운 임무는 없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치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한 상태를 어떻게 수수방관할수 있으며 용납할수 있겠는가. 그럴수는 없다. 지금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론할 때가 아니며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지역에서 살건 어느 계층에 속하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관계없이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5대강령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북과 남에서, 국내와 해외에서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유구한 기간 한나라, 한강토우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질수 없으며 갈라진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다.

우리 인민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우리 인민자신이 주체가 되여 투쟁에 떨쳐나선다면 능히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은 민족적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해온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의하여 조국이 광복된 후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강력한 공업국가를 일떠세우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며 투쟁하는 존엄있는 인민이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힘이 있고 신념이 있으며 높은 민족적

자부심이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삼고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지난날 준엄한 민족수난의 시기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피흘려싸워온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조선의 분렬을 꾀하는 외부침략세력과 매국자, 고용분자들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의 휘황한 래일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외부적요인이 결정적으로 제거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유엔이 더이상 미국의 롱락물이 되여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지난날의 낡은 〈결의〉대신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새로운 결정들을 채택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지난날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빌어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유엔의 탈을 쓰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유엔의 력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겨놓았다.

유엔은 마땅히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유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수령님께서는 유엔이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배격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것을 단호히 천명하시였다.

유엔은 미제와 그 고용분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조선에 대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여야만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유엔헌장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충실할수 있으며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화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의 추세에 따르는것으로 될수 있다.

이번 유엔에서의 조선문제의 토의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북과 남이 대화를 계속하며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현할것을 요구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주장하여온대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의 도구였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고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그의 간섭행위에 종지부를 찍게 되였으며 놈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부당성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저지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유엔총회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내놓은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이 봉쇄됨으로써 우리 나라를 영구분렬하려던 놈들의 기도는 저지되고 《두개 조선》 조작을 정책화한 박정희도당의 이른바 《특별성명》은 하늘로 날아났다.

실로 유엔에서의 조선문제의 토의결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대승리이며 분렬로선과 외세의존로선에 대한 통일로선과 자주로선의 커다란 승리이다.

그것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있는 우리의 모든 벗들과 동정자들, 진보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 된다.

오늘 내외정세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조국통일의 튼튼한 정치적토대로 되고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의 군사파쑈체제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은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박정희도당의 범죄적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이미 칠성판에 오른 박정희매국도당의 운명을 구출할수는 없다. 침략자, 매국자는 오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멸망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의 평화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것을 말하지 않는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안팎의 원쑤들의 방해책동도 있고 여러가지 난관들이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변할수도 없다. 조선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이룩될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3대륙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나갈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바야흐로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연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 합법화하려는 내외반동들,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성과있게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위력한 전투적기치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지이며 조국통일의 정치적토대인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그의 정치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며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의 숙원이며 거족적인 투쟁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의 분렬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독재, 반외세,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고야 말것이다.

수령님의 은덕으로 올해의 대풍이 마련되였다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협동벌은 례년에 보기드문 대풍을 맞아 끝없이 들끓고있다.

농촌의 가는곳마다에서 대풍이 든 올해농사를 결속하고 명년도 농사차비를 다그치기 위한 협동농민들의 충성의 전투가 마감고비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올해 사회주의농촌의 마지막전투를 도와나선 당의 붉은 농촌지원대들이 또한 농민들속에서 정치선동사업을 전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전당과 온 나라가 올해농사의 성과를 빛내이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8월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에서 과학적으로 예언하신바와 같이 올해에 우리나라의 모든 협동벌에는 례년에 보기드문 대풍이 들었다.

서해안의 평북 룡천벌과 운전벌로부터 시작하여 평안남도의 열두삼천리벌, 황해남도의 재령나무리벌, 연백벌, 개성의 풍덕벌, 동해안의 함주벌 등 우리나라의 모든 논고장에서 벼농사가 아주 잘되였다.

벼농사는 벌방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중간지대농촌들에서도 매우 잘되였다.

밭농사의 결실도 대단히 좋으며 특히 강냉이농사가 잘되였다.

알곡과 함께 과일, 남새, 고기, 누에고치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올해에 우리는 최고의 높은 알곡수확을 거둘수 있게 되였으며 앞으로 1~2년안에 650만~7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아올렸다.

그러면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이 전례없는 대풍작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올해에 우리 농촌에서 례년에 보기드문 대풍을 맞이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농촌문제의 해결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왔다. 우리는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생활은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농촌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여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3~44페지)

올해 농업전선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뚜렷한 발현이다.

최근년간 세계의 농업발전추세를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농사가 잘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올해에도 세계적으로 농사는 흉작이

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식량위기에 맞다들고있다.

농업생산의 파탄은 특히 자본주의세계에서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흉년이 든 올해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또다시 대풍이 이룩된것은 우연한 현상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여 사회주의농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결과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올해의 승리적인 농업생산전투를 마감짓는 영광의 이 시각에 우리 나라 농업을 불과 한해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려세우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높이 칭송하며 우리 농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에 우리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전당과 온 나라가 농촌경리발전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쌀독이 차고 쌀뒤주가 넘어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민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몸소 농촌사업전반을 틀어쥐시고 당과 인민의 진두에 서시여 정력적인 지도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말과 올해에만 하여도 온 나라의 수많은 협동농장들과 농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몸소 현지지도하시고 농민들과 무릎을 같이 하시여 농촌의 구체적실정을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농촌사업에서 걸린 고리들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여러차례에 걸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농업일군협의회들에서 농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대책들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세대들과 당 및 국가 기관의 우수한 일군들을 농촌에 파견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의 앞장에 서서 농민들을 힘껏 돕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사업기풍을 없애도록 하시였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들속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이악하게 관철하며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특히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모든 농촌간부들이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이신작칙함으로써 당의 농업정책은 성과적으로 관철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투자를 증대시켜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지도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는 전국이 달라붙어 농촌을 지원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은 결과 올해에도 높은 알곡수확을 낼수 있는 대풍작을 이룩하여놓았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의 성과여부는 일조률이나 하늘의 조화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국가가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을 배격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높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있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에도 국가투자의 많은 몫을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 돌리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굴지의 자동화된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조업하고 매개 도와 시, 군들에 뜨락또르부속품 및 련결차 생산기지와 뜨락또르수리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졌다. 또한 자동차공업발전에 큰 힘이 돌려졌다. 올해 우리 농촌에는 발갈이전으로 4,000대의 뜨락또르와 수많은 자동차, 련결농기계들이 새로 공급되였으며 이것들이 올해 농사에서 큰 은을 내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업증산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비료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또한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알곡의 소출을 높이자면 질소비료에만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린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잘 배합하여주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포착하시고 이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올해 우리 농촌에는 그전과는 비할수 없이 많은 린비료와 미량원소비료들이 제철에 공급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다른 많은 문제들도 몸소 발견하시고 그 해결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벼수확을 높이는 커다란 예비는 이른 봄부터 실한 모를 키워내는데 있다는것을 알아내시고 모판에 평당 벼종자를 알맞춤히 줄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아니라 그이께서는 강냉이농사를 하는데서 결주된것을 제때에 보식하는것이 소출을 높이는 큰 예비라는것을 가르치시였으며 그 해결방도를 몸소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또한 협동농장들에서 좋은 씨앗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심도록 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에 전당과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농촌을 지원하도록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만명의 청장년들을 보내시여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려주시였고 농업부문 기술자, 전문가들을 농촌에 집결시키고 고착시키도록 하시였다. 또한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뿐아니라 군대가 농촌을 지원할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올해 우리 농촌에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고 김매기도 세벌, 네벌씩 알뜰히 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농사에서 대풍작을 확고하게 내다볼수 있게 되였던 지난 8월에는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를 몸소 마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대회에서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보다 빛나는 전망과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이후에도 수많은 협동농장들을 또다시 친히 현지지도하시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만풍년의 가을을 잘 걷우도록 전당과 온 나라가 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운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올해에 모진 추위와 눈보라도, 궂은 비와 무더운 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걷고걸으신 현지지도의 그 거룩한 자욱마다에는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는 자애로운 수령님의 인민

에 대한 어버이사랑의 이야기가 가득차 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 농업발전을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그이께 끝없이 충실한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올해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이겨내고 오늘의 대풍을 맞이하게 되였다.

지금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올해의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간 풍년농사를 성과적으로 마감짓고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아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마련된 올해 만풍년의 성과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붉은 농업전사들의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임무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 11월초 또다시 여러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올해농사를 마감짓고 다음해 농사준비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승리자의 높은 영예와 긍지를 끝까지 빛내여야 한다.

농촌에서 모든 힘을 집중하여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마감지을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협동농장들에서는 온 나라의 힘있는 지원밑에 불꽃튀는 투쟁을 벌려 이미 풍년낟알의 거두어들이기와 마당질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마쳤다. 또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년간결산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년말결산분배사업을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국가량곡수매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며 량곡보관관리사업을 알뜰하게 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관리일군들과 농촌당조직들은 농장원들이 국가량곡수매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교양하며 수매계획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78페지)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량곡수매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잘 여문 낟알을 제때에 국가에 수매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들에서는 씨앗창고와 뒤주식창고를 잘 짓고 다음해에 쓸 씨앗과 수매량곡을 비롯한 낟알보관관리사업을 알뜰하게 정성껏 하며 한알의 낟알도 랑비하지 않도록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올해의 풍년농사를 잘 결속하는것과 함께 다음해 농사차비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선 당면한 중요과업이다.

명년은 위대한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명년에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알곡고지를 앞당겨 점령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명년에 수령님께서 주신 이 과업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에 의한 작물과 품종배치안을 정확히 세우고 그에 따르는 좋은 씨앗을 미리 충분히 마련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의 모든 뜨락또르를 농사이외의 다른 일에 동원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땅이 얼기전에 모든 논을 빠짐없이 갈아엎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와 자동

차, 각종 련결농기계, 중소농기구들을 잘 정비하고 알뜰하게 거두며 모자라는 것은 빨리 마련하여 새해농사차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기재, 설비들에 만부하, 만가동을 걸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새해농사차비로 들끓고있는 사회주의협동벌에 더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보내주어야 한다.

특히 다음해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전으로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의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4.25혁명정신》, 《기양의 기백》으로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올려야 한다.

농촌에서 자급비료생산을 다그치는것은 다음해 농사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군중적운동으로 두엄, 퇴비, 니탄 등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급비료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특히 벼짚을 논판에서 썩여 질좋은 퇴비를 만들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또한 토지개량사업과 토지정리사업, 농촌길닦기를 잘하며 새 땅을 얻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축산토대를 잘 닦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농가들에서 기르는 집짐승먹이까지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명년에 더많은 알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가 100호당 30마리의 큰 암돼지와 농가마다 5마리이상의 큰 암닭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며 농장마다 고기용 소 50마리이상씩 살찌워낼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당면한 집짐승겨울나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과수원과 뽕밭을 잘 조성하며 그 비배관리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선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올해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례년에 보기드문 대풍을 이룩하게 된것도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이다.

우리의 모든 농촌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갈 때 농업생산에서는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날것이다.

농촌당조직들은 특히 사상혁명을 앞세워 농민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모두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이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배격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생산지도에서의 10대과업과 협동농장관리에서의 10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올해 풍년농사의 성과를 빛내이며 다음해 농사에서 보다 높은 승리의 봉우리를 점령하자.

혁명의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다

조 근 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인민은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직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꿋꿋이 싸워왔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있다. 이것은 혁명하는 조선인민의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투쟁의 기상이며 혁명의 신조이다.

지금 온 나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키고있으며 전에없던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고있다. 이 벅찬 현실에서 혁명가로 투쟁에 나선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은 없다.

오늘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있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조국초소의 총진병사와 싸우는 남녘땅 혁명가들, 이역만리 해외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살며 싸울 굳은 결의로 더욱 가슴불태우고있다.

혁명의 길은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성스러운 일이며 값있고 보람찬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걸어온 혁명투쟁로정에 대하여 언제나 떳떳하게 생각하며 혁명사업에 몸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20페지)

혁명이란 낡은것을 없애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혁명은 순풍에 돛단배처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딪치게 되며 혁명대오에 기여든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 혁명의 변절자들과 싸우지 않을수 없게 된다.

혁명투쟁과정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있고 가슴아픈 희생도 있다.

그러나 혁명의 길은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이다.

그것은 혁명의 길이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살수 있는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수천년에 걸쳐 내려오면서 온갖 천대와 무권리 속에서 살아오던 수천수백만 근로대중을 착취와 예속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보람있고 값있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오늘 우리 시대뿐아니라 후대들에게 더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투쟁이다.

오늘 우리들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을 하고있다.

이런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면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는 투쟁에도 참가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혁명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동포형제들의 고통도 모르며 편안히 집에서 그저 밥이나 먹고 그날그날을 보낸다면 그것은 한갖 짐승의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투쟁을 외면하고 자기 일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된 삶의 가치,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데 있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성스럽고도 위대하며 혁명투쟁에 자기의 일생을 바쳐 싸우는것은 가장 값있고 보람찬 일이다.

혁명가는 이 혁명의 길에서 비록 자기는 죽어도 자기가 일생을 바쳐온 혁명위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수많은 혁명가들에 의하여 기어이 완성되고야말리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살며 싸운다.

혁명가는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몸바쳐 싸운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혁명의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스러운 일로 여긴다.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이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 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것은 그들이 사회정치적생명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7페지)

사회정치적생명은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 혁명가의 생명이다.

혁명가의 사회정치적생명은 혁명을 령도하는 수령이 준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혁명사상을 심어주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며 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것은 최대의 의무이며 그보다 더 영예스러운 일은 없다.

혁명가는 수령이 준 사회정치적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육체적생명, 목숨은 버려도 사회정치적생명은 버릴수 없으며 더럽힐수 없다. 이것은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참다운 징표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가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싸워간다.

혁명가는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도 혁명의 절개는 굽히지 않으며 그 어떤 사나운 풍파와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 나아간다. 혁명가는 혁명의 길에서 동요하거나 물러섬으로써 정치적생명을 더럽히는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비굴한 일로 생각한다. 또 혁명의 임무를 다하기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으며 비록 싸우다 죽는한이 있더라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의 리익 하나밖에 없다. 혁명의 길에서 혁명가는 그 어떤 공명도, 출세도 바라지 않는다.

혁명가는 이처럼 한순간을 살아도 오

직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살고 혁명이 요구한다면 목숨도, 청춘도 서슴없이 바치며 혁명의 길에서 죽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은 혁명가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은 누가 혁명을 하라고 시켜서 한것이 아니며 월급을 받으면서 싸운것도 아니다.

또 강도 일제와 싸우면서 이루 말할수 없는 고생을 다 겪었지만 그 누구도 공명이나 출세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없었으며 어느 한때도 편안히 살것을 바라지 않았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었으며 위험한 고비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삼천리 조국땅에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온 겨레가 다 잘살수 있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 한몸을 혁명에 바쳐싸우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가장 보람찬 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 철창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15년을 하루와 같이 험난한 싸움의 길을 걸어왔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혁명전사의 높은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아 아군의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전투에서 팔다리를 잃으면 육탄이 되여서라도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어이 완수하고야말았다.

실로 인민군전사들은 둘도 없는 생명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피끓는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웠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싸워온 수많은 혁명가들이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면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심장속깊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그이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기의 일생을 마치는 순간에도 수령님의 교시집행을 놓고 자기 일생을 총화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혁명의 길을 가장 보람차고 성스러운 일로 여기며 사회정치적생명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참다운 혁명가의 높은 공산주의적풍모를 찾아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로동계급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영광스러운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참으로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조선인민이 걸어온 혁명로정은 어버이수령님의 손길밑에 모든 사람이 혁명전사로 자라는 과정이였으며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개척하신 혁명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꿋꿋이 싸워온 충성의 한길이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살며 싸우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끝없는 행복으로 생각한다.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실하자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길우에 있다.

지난날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실로 많은 일을 하였다.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일본제국주의

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도 전개하였고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무력침공도 영웅적으로 물리쳤다. 우리는 나라의 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이 이룩되고 우리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갈길은 아직도 험하고 멀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온 세계에서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쉽없이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을 다하는것은 곧 우리의 혁명위업에 충실한것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우리 혁명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우리 혁명의 매 단계에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주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혁명사상이다. 따라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 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방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심장이시다. 수령님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면 할수록 우리의 혁명투쟁에서는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실하여야만 우리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절대화하며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께 충실하다고 말은 아무리 해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도 모르고 그것을 옹호관철하지도 않는 사람을 수령님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말은 안해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수령님께 충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으며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할뿐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아득바득 노력하며 자기의 한몸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혁명위업수행에서 그이께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자기 맡은 초소에서 한몫을 단단히 맡아해내야 할것이다.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투쟁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우리들도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대로 살며 싸워나가야 수령님께 영원히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혁명가는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여야만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혁명투쟁을 한 사람이거나 못한 사람이거나 할것없이 다 혁명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자신의 혁명화를 위하여 계속 투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혁명의 길을 40년동안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혁명을 더 오래 해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혁명화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3폐지)

혁명을 하자면 혁명가가 되여야 하며 혁명가가 되자면 혁명화되여야 한다.

자신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혁명투쟁을 하여나갈수 없다. 결코 혁명은 강제로 끌려들어가 할수 없으며 혹시 강제에 못이겨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중도에서 반드시 떨어지고만다.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혁명투쟁을 한 사람이라고 하여 혁명화가 다 되는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 완성된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마치도 자기는 혁명화가 다 된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며 그런 사람은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다.

일생을 혁명에 바칠것을 결의한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 도태될수 있으나 사상적으로는 도태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죽을 때까지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만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킬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혁명화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만들기 위한 사상수양과 사상단련을 끊임없이 벌려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사상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더욱 높이며 자신의 모든것을 오직 혁명을 위하여 다 바치는 혁명적각오와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야만 영광스러운 혁명가로서의 삶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수 있으며 오직 혁명의 한길우에서 수령님께 영원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혁명가는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실하려면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에게는 침체와 답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혁명가들에게는 오직 부단한 혁신과 전진이 있을뿐입니다.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4페지)

혁명가는 원래 낡고 부패한것을 반대하고 새것, 진보적인것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다.

혁명투쟁과정에는 언제나 새것, 진보적인것이 나오면 그것을 반대하는 낡고 보수적인것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혁명투쟁의 길에서는 불가피하게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다.

혁명은 낡은것과의 투쟁이 없이 전진할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제국주의와의 투쟁, 반동들과의 투쟁,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 온갖 낡은 사상과의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혁명가는 바로 이러한 투쟁속에서 살며 투쟁속에서 자기의 일생을 끝마치게 된다.

혁명가들에게는 자만과 답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투쟁과 전진, 창조와 혁신만이 있을뿐이다.

투쟁의 길에는 예견치 않았던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용감히 이겨내는 사람만이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실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은 전진하는 길우에서 있을수 있는 난관이며 극복할수 있는 난관이다.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 없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우리는 난관앞에서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말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진하여야만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6개년계획수행에서 계속혁신과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앞으로 달리고 또 달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실하여야 할것이다.

당사업을 개선하자면 행정식 사업방법을 없애야 한다

김 성 옥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에 주신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들에서 또다시 행정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과 당사업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당사업을 행정식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치사업방법, 사람과의 사업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사업방법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에 원칙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행정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광범한 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행정식사업방법과 그 해독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행정식사업방법의 본질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행정식사업방법이라고 하면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나 통계자료 같은것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하는것을 말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행정식사업방법이란 아래일군들에게 명령, 지시나 하고 통계나 받으며 일이 잘못되면 추궁이나 하는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식사업방법은 당사업방법이 아니며 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은 그 어떤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써 이루어진 정치적조직이다. 그런것만큼 여기에는 사람들과 사업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당사업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으로 되여야지 행정을 대행하거나 행정식으로는 할수 없다.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식방법으로 하여서는 사람들을 옳게 발동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 사업은 행정실무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군중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침투시키며 그들을 교양하고 설복하는 정치적방법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행정경제기관들에서도 행정식방법으로 사업할것이 아니라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자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사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하물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식방법으로는 더우기 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개선하자면 반드시 행정식사업방법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행정식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유해로운 사업방법이다.

행정식사업방법의 해독성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억제하고 당정책관철을 저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이와 같이 행정식으로 일하기때문에 당정책이 잘 관철되

자 않고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참가하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려면 우리 혁명위업의 목적과 의의, 그 정당성을 옳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자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물리치고 혁명임무를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그런데 당사업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식사업방법으로, 관료주의적방법으로 하게 되면 당원들과 군중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진수를 옳게 파악할수 없게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똑똑히 무장할수 없게 한다.

이와 같이 정치사업을 하지 않고 덮어놓고 하라고 내리먹이면 군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없다.

또한 행정식사업방법의 해독성은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데 있다.

당은 대중과 한덩어리로 굳게 단결되였을 때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옳바르게 령도해나갈수 있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 혁명은 오직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그런데 행정식사업방법은 관료주의의 한형태로서 덮어놓고 하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며 독촉만 한다.

그러면 대중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며 결국 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특히 당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있으며 근로대중은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있다. 그런것만큼 당이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고 행정적방법으로 처리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당으로부터 리탈시키게 된다.

이처럼 행정식사업방법은 당사업에서 매우 유해로운 사업방법이다.

행정식사업방법이 남아있게 되는 근원

행정식사업방법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것은 우선 혁명군중에 대한 일군들의 낡은 사상관점과 관련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사상이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근원은 없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랜기간 남아있게 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부르죠아적사상독소가 침습해들어올수 있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는 일군들의 사업에 반영되여 당사업방법과는 거리가 먼 행정식사업방법으로 일하게 한다.

당사업에서 행정식사업방법이 남아있게 되는것은 특히 우리 당발전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해방후 우리 혁명앞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많이 제기되였지만 혁명적군중사업방법을 체득한 세련된 간부들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일군들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어려운 조건하에서 군중과의 사업도 진행해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본것이란 일제시기의 관리식 사업방법과 작풍이였다. 여기에다 당내에 잠입하였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 사대주의자들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퍼뜨려놓았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진행하여 당적사업방법과 작풍이 전당을 지배하고있으나 아직도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퍼뜨린 여독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

한데로부터 행정식방법으로 일을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행정식사업방법은 집권당내에서 흔히 나타날수 있는 결함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행정식사업방법은 집권당내에서 흔히 나타날수 있는 결함입니다. 우리가 해방후 20년간 사업해본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고 여러 사회주의나라 당들의 사업경험을 연구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당이거나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당이거나를 막론하고 행정식사업방법으로 일해서는 안된다.

혁명적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할 때에는 행정식으로 사업할래야 할수 없다. 지하투쟁을 하는 조건하에서는 당사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될수 없으며 주로 개별적일군들을 대상하여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과업이 제기되면 해당한 일군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복하여 납득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을 제대로 움직일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은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일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과 기구들을 통하여 사업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일군들이 행정식으로 사업한다고 하여 즉시에 엄중한 후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데로부터 일부 수준이 어린 일군들속에서는 제기된 과업을 헐하게 간단히 처리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결국 행정식사업방법으로 일하게 된다.

발전하는 현실과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통을 창조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여오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세워졌다. 전당에 간부사업체계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군중을 교양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이룩하신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당사업방법을 철저히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행정식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문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반대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1페지)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즉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이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곧 당사업이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는 성격상문제인것이 아니라 사상의 집중적표현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상관점을 가졌는가에 따라 사업 방법과 작풍이 결정된다. 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수령님의 불

렬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때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위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을 가질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특히 수령님께서 당사업방법과 작풍에 대하여 주신 교시들과 불후의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자기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당사업방법에 관한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낡은 사업방법에 매달려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일군들은 당사업방법에 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만 그것을 실제사업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다. 또한 당사업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행정식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그리하여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당사업방법을 체득하고 그를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감으로써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뿌리뽑고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한모말아 메고나가겠다는 충성의 각오를 가지고 무슨 일에서나 높은 헌신성, 강한 책임성, 성실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행정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또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사업방법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고 이렇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움직이는 사업방법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며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이것은 당의 활동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대로 일해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동원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를 하나같이 움직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행정식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잡다한 문서놀음을 간소화하고 현실에 침투하며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문서놀음에 매여달리다보니 당사업이 매우 복잡하여졌습니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혁명과 건설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이다. 그러므로 당의 기본사업은 문건이나 만들고 통계나 종합하는 등의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당사업에서 문서놀음에 치중하는것은 행정식사업방법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당일군들이 결정서나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사로잡히게 되면 하부실태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게 되며 특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동태를 정확히 알수 없다.

당일군들이 문서에 포로되면 자신의 사상수양도 할수 없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일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업에서 문서를 간소화하고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현실에 침투하며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이며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작풍의 하나이다.

일군들이 현실에 침투하여 생산자대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옳은 집행방도를 찾을수 있다. 또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고 대중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을 알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도와주는 산 지도를 줄수 있다.

현실에 침투하여 군중에게 의거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군중을 가르치는 지도라야 위력을 나타낼수 있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그들의 인식정도에 대하여 더 잘알고 그에 맞게 정치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리와 사상동태를 파악하고 대중의 요구와 아래의 실정에 맞게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의 힘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한 관료주의, 주관주의, 행정식으로 사업하는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상투쟁은 어디까지나 일군들의 낡은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므로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일군들의 낡은 사업방법을 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부단히 개선하며 당적방법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군들의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은 하루 이틀에 없어질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꾸준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해결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을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당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겸비한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며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굳게 단합되고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열의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행정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실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열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행정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대로 사업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자

로 명 진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한해가 된다.

수령님의 력사적연설이 발표된후 지난 한해사이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는 길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또다시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지고 온 사회가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이 차넘치는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되였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관점과 태도가 더욱 튼튼히 서고 사람들의 일솜씨에서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 문화 생활분야에서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의 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이 모든것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하여주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의 심오한 내용을 더욱 진지하게 연구하여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께 언제나 충성다하여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보람차고 영예로운 임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대한 강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리론적총화이며 집대성이다.

수령님의 로작에는 그이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락후하고 모든것이 파괴되고 국토가 남북으로 량단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신 력사적경험이 빛나게 일반화되여있다. 또한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정에 오르고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실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풍부화시킨 력사적문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수행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임무를 전면적으로 천명한 과학적공산주의의 위대한 전서이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와 경험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분석총화하심으로써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뒤떨어진 나라들이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대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8페지)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만 온갖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에서 영원히 해방될수 있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가장 심각한 변혁이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창조적사상과 리론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싸우는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그들의 앞길을 등대와도 같이 밝혀주는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홰불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기본내용과 특징 그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헌법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작성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규제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1~32페지)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서술한 헌법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전취물을 지키는 예리한 무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의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사회주의헌법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리론은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리론, 풍부한 경험의 총화이다.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낡은 헌법의 잔재를 완전히 없앤 진정한 사회주의헌법의 본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의거하고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문헌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담겨져있는 모든 사상과 리론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깊고도 참신한 지수지에 뿌리를 내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창성과 창조성으로 특징지어지고있으며 필승불패의 진리성으로 빛나고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불사르는 위대한 혁명정신 그리고 기존공식과 기성경험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창조적정신이 힘차게 약동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우리 인민에게 그처럼 위대한 힘을 안겨주고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돋혀주며 그들을 세기를 주름잡는 위대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또한 그것은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빨리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혁명적무기로 된다.

수령님의 력사적로작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조국의 광명한 앞날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희망의 등대로,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떨쳐나서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거기에 담겨져있는 모든 사상과 리론의 진리성, 그 불패의 혁명정신과 창조성으로 하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아성을 짓부시고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전투에로 부르는 강력한 호소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수령님의 력사적로작을 《인류력사의 새 아침을 알리는 걸출한 령도자의 선언》으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옳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의 라침판》, 《현시대뿐만아니라 세기를 두고 영원히 빛날 〈공산당선언〉》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무한한 고무를 받

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그이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맑스-레닌주의적 길을 밝히는것은 현시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사이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렬하게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전환의 시대인 우리 시대의 계급투쟁의 중요한 내용이다.

국제적규모에서 심각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두 제도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제도의 결정적승리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이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가 못시키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악의에 찬 비방과 중상을 일삼고있으며 갖은 방법을 다하여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외곡된 표상을 퍼뜨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고 그 귀중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우와 같은 책, 22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의 혁명적본질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한 탁월한 사상이다. 이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의 혁명적본질을 이 사회의 주인인 근로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생활의 본질적측면에서 심오히 밝힌 탁월한 혁명리론이다.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완전히 새롭게 밝히신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세기를 두고 영원히 빛날 불멸의 혁명적재부로 되며 사람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변혁과 전진이 이룩된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삼것을 열망하는 근로대중이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세운 사회제도이며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은 근로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이 노는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보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문제를 사회와 국가의 주인인 근로대중을 중심에 놓고 해결하며 모든것을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시키는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만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훌륭히 완수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철저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지난날 모진 착취와 무권리 속에서 시달릴대로 시달려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선진적인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모든것을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그이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의 빛나는 구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가장 복잡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지난날 빛을 잃고 락후하던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으로 온갖 난관을 이겨내시면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시였으며 남달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심으로써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힘있고 존엄있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만드시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례없이 공고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천대받고 버림받던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최대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육체적생명보다 더 값높은 사회정치적생명을 마음껏 꽃피워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나라의 물질문화적부가 빨리 늘어남에 따라 더욱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한다.

수령님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이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를 추동하는 기본추동력이며 그 공고성의 원천이다.

사람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가지고 사회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며 누구나 다 유족하고 문명한 삶을 즐기는 사회,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의 혈맥으로 련결되여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기백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로를 향하여 도도히 전진하며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였고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전형으로, 본보기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이룩된 위대한 변혁과 보람찬 생활에 대하여 더없는 민족적긍지를 간직하고있으며 그것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근로대중은 국

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함으로 하여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이 사회에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한숨도 못되는 지배계급과 자본가들을 위한 리윤창조의 도구로 취급되고있으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착취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며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여기에 모든 착취사회의 공통적인 반인민적본질이 있다.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으로 하여 과학적공산주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고 사회주의제도의 순결성을 끝까지 고수하여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 리론의 창시로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외곡하는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는 힘있는 혁명의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리론은 모든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며 근로인민의 자주성과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는 자본주의제도의 종국적멸망을 선고하는 위력한 선고장으로 된다.

실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그것을 일반화하여 창조하신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빛내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이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며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이 영예로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0~41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것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완전히 없애고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진행하는것이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과 혁명에 대한 드높은 열정을 지니게 함으로써만 수령님을 중심으로하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반석같이 다질수 있다.

이것은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의 요구이며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원천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수령님께 충성다하여야 하며 그이의 높으신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여야한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직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투쟁을 통하여 표현되여야 한다. 수령님께 진심로 충성을 다하려면 그이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질적으로, 실물로 보여주어야 하며 실천활동에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아득바득 책임적으로 이악하게 투쟁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철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는가 하고 항상 머리를 쓰며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이악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직성을 지닐 때 모든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관점과 태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사상혁명의 중요한 내용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때 사대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개인의 리익보다도 전체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혁명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한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사업과 생활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는것과 함께 그들속에서 생활이 좋아지고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을수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로동을 사랑하며 성실히 근면하게 일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누구나 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은덕으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보람과 행복,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똑똑히 알게 하며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며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그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건설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일하게 된다.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과 국가기관들의 활동원칙을 규제하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되여있는 제반 규범과 활동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빛내이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술혁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기 위한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현단계에서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앞당겨 수행하는것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등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낡은 유물을 결정적으로 쓸어버리고 새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일터마다에서 낡은 기술을 개조하고 새 기준을 창조하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기술에서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한다. 좋은 사회제도를 세워놓은 다음에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만 그 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며 가까운 앞날에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길러낼데 대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곳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공장밖을 공원과 같이 꾸리라고 하신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자기의 일터와 기대, 설비를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잘 거두며 합숙과 식당,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사회의 높은 문화적요구에 맞게 잘 관리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며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꾸준히 벌려 그들이 모든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 투쟁에서 실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긍정교양은 사회주의하에서 군중교양의 기본방법

배 웅 화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는 수많은 아름다운 사실들로 수놓아져있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나타나고있는 긍정적모범으로 하여 온 사회는 언제나 생기있고 명랑하며 화목한 분위기가 넘쳐흐르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과 신심으로 약동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것으로 되고있는 이러한 긍정적모범을 높이 평가하시고 무한히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온 사회를 창조와 혁신이 나래치는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야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긍정적모범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억압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려져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고 착한것에로 지향하며 온 사회에는 긍정적인것이 지배하게 됩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모든 긍정적인 현상들이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 모범으로 보편화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1페지)

긍정적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배적인 현상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됨으로써 긍정적인것이 꽃피여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진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부정적인것을 낳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없으며 그것을 퍼뜨리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도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이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인간의 존엄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다.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체계적으로 높아지며 사회의 모든 재부는 전적으로 그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또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여있으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에로 지향하며 긍정적모범이 지배적인것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끝없이 따르며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긍정적모

범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 부정부패를 비롯한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리익과 그들의 비위에 맞는 온갖 추악한것이 활개치게 되고 긍정적인것이 여지없이 짓밟히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이 제도자체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로 하여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긍정과 부정은 그자체가 계급적개념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긍정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과 그들의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반영한것이라면 부르죠아지들이 말하는《긍정》이란 그들의 협소한 계급적리해관계를 반영한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긍정적모범은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심장이다. 경험은 자기의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로동계급은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하자면 수령께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께 충실하다는것은 곧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것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이것은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실지 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생활의 신조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수령님께 의탁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으로 여기고있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은 우리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고있는 긍정적모범의 전형이며 최고표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긍정적인것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면서 부정적측면을 이겨내도록 끊임없이 고무하며 꾸준히 도와주는것이 사회주의하에서 사람을 개조하는 기본원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82페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에서 기본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는 긍정적인것이 생기고 발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지만 그것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하에서도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긍정적인것이 창조되고 더욱 발전한다.

긍정적인것을 조장발전시키면서 부정을 이겨내는것은 사상의식령역에서 낡은 사상, 자본주의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투쟁이다.

긍정적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부정적인것은 착취계급의 사상에 근원을 두고있다. 부정적인것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다.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아야 부정적인것을 이겨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킬수 있다. 긍정적인것은 부정적인것과의 투쟁속에서 발전한다.

수세기에 걸쳐 뿌리진 낡은 사상잔재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되살아난다. 행정적방법으로 명령이나 지시만 해가지고서는 낡은 사상잔재를 성과적으로 뿌리뺄수 없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교양은 그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

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된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산 모범으로 교양하는것은 대중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에게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준다.

이와 같이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근로대중의 지향에 맞는 가장 위력한 방법이다.

긍정교양은 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구현한 대중교양의 힘있는 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하여 부정을 이겨내는것은 대중교양사업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5페지)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방침은 수령님께서 근로자들을 무한히 아끼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높으신 덕성, 군중에 대한 두터운 믿음에 기초하고있다. 또한 거기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가로 만들어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배려와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수령님께서는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든 근로자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육체적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근로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긍정적인 사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것이 가지는 거대한 사회적의의를 통찰하시고 일반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긍정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혁명투쟁의 진두에 서계시였으며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육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교양하심으로써 항일유격대를 《대학생부대》로, 전투력이 강하고 규률이 있는 불패의 대오로 꾸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 대원을 교양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의 좋은 점을 찾아내시여 그것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대원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견결한 공산주의투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는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의 전통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자기의 생명으로 조국의 촌토를 지켜낸 수많은 전투영웅들, 인민군용사들의 빛나는 위훈과 고귀한 혁명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범중대창조운동》의 봉화를 몸소 지펴주시여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게 하시였으며 미제무력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성전에서 인민군용사들이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게 하시였다. 1,211고지의 용사들의 영웅적희생성은 우리 인민군용사들과 전체 인민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으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교양의 방법으로 보시고 이 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생산에서의 집단적인 혁신운동일뿐아니라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가장 대중적형태라는것은 이미 생활에서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183페지)

수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제1차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사람들과의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특히 대중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모든 사람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대중에게 접수되여 인간개조사업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생산활동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긍정적모범이 수많이 창조되고 전사회적으로 보편화되였으며 온 사회에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되였다.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청산리교시를 계기로 하여 그 위력이 더욱 전면적으로 발휘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형적인 한개 단위인 청산리에서 몸소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여 도처에 새로운 청산리가 생겨나게 하시였다. 낡은 틀, 낡은 방법이 마사지고 새로운 혁명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세워졌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련이어 커다란 비약이 일어났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일반화되고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구현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과 혁명적열의가 높이 발양되게 되였고 그들의 사상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다.

모든 근로자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뭉쳐졌으며 그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며 나가고있다.

긍정이 긍정을 낳고 모범이 모범을 낳아 온 사회가 긍정적모범으로 차고 넘치는 사회,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붉은 대가정속에서 혁명적정열과 락관에 넘쳐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모든 변화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긍정적모범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긍정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긍정을 통한 대중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긍정교양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긍정적모범을 가지고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가지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

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수령님께서 긍정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들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속에서 긍정적모범을 통한 교양사업을 깊이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을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직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적극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드시려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훌륭히 관철하여 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긍정적모범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창조된 모범을 적극 지지하며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단체들은 대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모범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람을 교양하는데 있어서도 그가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모범을 본받게 할뿐아니라 반드시 그가 가지고있는 좋은 측면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주어 그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우와 같은 책, 182페지)

근로자들속에서 창조된 긍정적모범을 적극 지지하고 제때에 받아들이여 그것을 사업에 구체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생산과 기술에서 대중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한 단위 또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선진적이며 혁신적인 모범을 제때에 일반화하여야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한 단위에서 일어난 긍정적모범, 새로운 혁신적봉화가 그처럼 큰 힘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빨리 파급되는것은 바로 거기에 새로운것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 근로자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앞으로 빨리 내달리려는 인민들의 지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고있기때문이다.

전형적이며 긍정적인 모범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대중속에서 자라나는 혁명적인 새싹, 모범적인 사실을 적극 찾아내여 지지하여주고 그것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며 널리 보급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야 한곳에서 창조된 모범이 대중자신의것으로 되며 전집단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붉은 집단으로 되게 할수 있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대중교양을 깊이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인 혁신운동일뿐아니라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대중적운동이다.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매개 성원들에게 알맞는 교양사업을 하며 그들을 긍정적모범으로 인내성있게 교양개조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선렬들의 모범적사실과 오늘의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꾸준히 교양하며 또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끌어나간다. 그들은 진정한 동지적협조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집단의 힘으로 뒤떨어진 사람들을 선진분자로 개조한다. 이리하여 어제날의 뒤떨어진 사람이 오늘은 선진분자로 되고 온 집단이 혁명적기백이 차넘치는 붉은 대오로 전변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야 하며 긍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공산주의학교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

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지도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늘 대중의 앞장에 서며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서 나타납니다.》(우와 같은 책, 269페지)

일군들은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로서 그들의 실천적모범은 백마디, 천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야 하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여야 한다.

일군들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대중에게 강한 요구를 제기할수 없으며 대중을 이끌고나갈수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들의 행동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행동과 같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모범이 되여야 자식들도 그것을 본받아 옳게 행동하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이신작칙하는곳에서는 모든 사업이 잘되지만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일군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대중을 동원할수 없으며 또 대중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없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시기 지휘관들이 언제나 위험한곳에 먼저 뛰여들었으며 어려운 일을 먼저 맡아나섰던것처럼 모든 사업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나가야 한다.

긍정적모범으로 교양한다고 해서 부정과의 투쟁, 사상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긍정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부정과의 사상투쟁을 그에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긍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출판보도수단은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출판보도물은 그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는 전형적인 새로운 긍정적사실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생동하게 보도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긍정적모범에 의한 대중교양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미 달성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되고있는 대중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온 사회를 붉은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긍정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들의 대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것이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과 당면한 과업인 6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할것이다.

문예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

동 근 훈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의 급속한 개화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이며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인 창조원칙이다.

속도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 우리 당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제기되였으며 창작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문예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맑스-레닌주의문예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으로 되는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끊임없는 창조적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문예작품창작에서 종자를 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높은 속도전을 전개하여야 하며 속도전을 하여야 작품의 질도 높아진다는것을 밝혀주었다.

당에서 밝힌바와 같이 속도전은 종자를 잡은 다음 직접 형상과정에 들어선 때로부터 작품창작을 끝내기까지의 창조과정의 문제로서 문학예술작품을 빠른 속도로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하게 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창조원칙이다.

속도전이 종자를 잡은 다음의 문제라고 하여 마치도 형상과정에 들어서기까지의 준비과정에는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듯이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창조과정의 매개 단계와 요소들이 서로 뗄수 없이 밀접히 결부되여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을 연구하고 종자를 골라쥐는것은 속도전을 벌려 그 종자에서 풍만한 화원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며 속도전을 벌리는 과정은 골라쥔 종자를 싹틔우고 아지를 뻗게 하며 꽃을 피우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전제와 요인들을 마련하는 사업에서도 천진속도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문학예술에 대한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현시대는 혁명의 시대이며 제국주의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혁명의 시대, 제국주의가 망하고 혁명이 승리하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3페지)

우리 시대는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이다. 우리는 아직 혁명도상에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를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근로자들은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어제날의 기적이 오늘은 낡은것으로 되고 오늘의 새 기준량이 래일은 또 낡은것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생활과 감정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답보와 침체를 모르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기동적으로, 전투적으로 생활을 반영

하며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세울것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여야 할 자기의 전투적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며 계속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려면 작가, 예술인들이 창조사업을 보다 혁명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창조하여야 한다.

속도전방침은 바로 이러한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문예작품창작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창조원칙으로 된다.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28페지)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는 주권과 생산수단뿐아니라 문학예술도 인민의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그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며 문학예술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문학예술을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로서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혁명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끌고나가며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준다. 당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작방향을 제시할뿐아니라 창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창작속도를 높여 당사상사업에 기동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한다.

주권과 생산수단이 몇몇 지주,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자신의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먹고살아가기 위하여 창작하고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된 자각과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고있다는 옳은 인식으로부터 자신의 공명이나 출세,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로동계급과 혁명을 위하여 붓을 들고 창작에서 비상한 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내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의 급속한 개화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이다.

위대한 수령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발전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작가, 예술인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워 당문예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문학예술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 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혁명적문학예술창조를 위한 실천활동에 구현하고있는 당의 확고한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창작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높은 속도와 전반적문학예술의 끊임없는 개화발전이 이룩되고있다.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이와 같이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또한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질을 보장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창작에서의 속도와 질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속도전을 하여야 작품의 질이 높아지며 또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질을 보장하려면 속도전을 벌려야 한다고 밝히였다.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높이는것은 창작에서 높은 속도를 견지하는것과 함께 속도전방침의 본질적요구이다.

속도전이 작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우선 속도전과정에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정치적열의가 발양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01페지)

생산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정치적열의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철학의 근본원리에 기초한것으로서 그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열의를 높이는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창작활동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열의가 높지 않고서는 높은 창작속도를 낼수 없는것은 물론 작품의 질도 보장할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정치적열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과 혁명을 위한 작품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창조하려는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울수 있으며 작품에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이 예술적생동성을 가지고 힘차게 맥박치게 할수 있다.

속도전은 바로 작가, 예술인들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열의에 토대하여 벌어지기때문에 속도전에 의하여 창조된 작품은 그만큼 사상예술적질이 높아지게 된다.

속도전이 작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그것이 정치적열의에 의하여 안받침된 고도의 창작적열정을 발양시키며 창조적사색을 집중시킨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당에서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창작적열정이란 작가, 예술인들을 창작에로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며 작품을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신적부를 생산하는 문학예술창조사업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고도의 창작적열정과 창작적사색의 집중 및 지속성을 요구한다. 창작가의 열정이 높지 못하고 창조적환상이 분산되거나 시간적으로 동강난다면 그만큼 창조기간이 길어지는것은 물론 그러한 작품에서는 사실주의적생동성을 바랄수 없다.

속도전이 벌어지는곳에서는 창조기간과 작품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속도전을 벌리면 창조적 사색과 환상을 중단하지 않고 짧은 기간안에 높은 창작적열정과 지혜를 집중적으로 동원하게 함으로써 창작속도를 높이면서 그만큼 사상예술적질도 높일수 있게 한다.

속도전이 작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속도전을 벌리면 창조과정의 매 단계들을 성과적으로 거칠수 있게 된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한개 작품의 창조과정은 편의상 당정책에 기초한 현실연구와 종자를 잡는 단계, 구상단계, 집필(형상)단계, 수정가필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속도전을 벌리고 작품의 질을 보장하려면 이 모든 단계의 작업이 통일적련쇄속에서 잘되여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 속도전을 벌릴수도 없고 질도 보장할수 없다.

당의 옳바른 지도밑에 집체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 등의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요인들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창조파정에 거쳐야 할 그 모든 단계들을 빠른 시일안에 질적으로 거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속도전이 우리 시대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창작의 속도와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게 하는 위력한 창조원칙이라는것을 확증하고있다.

속도전방침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것과 함께 창조과정을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동시에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중요한 요인이다.

창조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든다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의 창작과 공연 활동과정자체를 통하여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산주의사상의식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하며 로동계급의 모양을 갖춘 혁명가로 준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창조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만들려면 창조과정이 실질적으로 혁명화과정으로 될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정치사업을 따라세워야 하며 일련의 조건들을 조성해야 한다.

속도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것은 속도전을 벌리는 과정자체가 창조과정의 구체적표현인 동시에 가장 긴장된 창작전투로 특징되는 창조과정이기때문이다. 이것은 곧 작가, 예술인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이 다른 일련의 요인들과 함께 속도전을 통하여서도 실현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속도전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작품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창작해내겠는가 하는 하나의 창조적열정으로 불타게 하고 모든 힘과 지혜와 사고가 창작에 집중되게 함으로써 낡은 사상이 발붙이거나 되살아날 틈을 주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창조과정에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소극성과 보수주의, 사대주의와 수정주의 등을 짓부시고 창작에서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의식으로 무장하게 한다.

우리 당은 속도전방침을 내놓으면서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밝혀주었다.

당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7페지)

속도전은 작품창작의 중요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할 때에 이루어진다.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에서 밝힌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방도의 다른 하나는 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이고 창조적협조의 기풍과 집체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예술적기량을 높이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정치적신임에 기술적신임으로 보답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며 창작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창작적의욕이 높다고 하더라도 예술적기량이 높지 못하면 인민들에게 커다란 사상미학적감동을 주는 우수한 작품을 빨리 창작해

낼수 없고 결국 창작적성과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이바지해야 할 자기의 임무를 다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집체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것도 속도전의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창조적협조와 집체적지혜는 개인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작품을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창조해내도록 추동한다. 이 문제는 특히 집체작이나 종합예술인 경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 하면 창조집단내 모든 성원들이 하나로 움직이면서 그들 개개인의 열의와 지혜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복종되고 최대한 동원되여야만 작품의 모든 부분과 요소들에 집체적지혜가 옳게 스며들어 그 사상예술적질도 높이고 창작속도도 높일수 있기때문이다.

속도전을 벌리는데서 종자를 바로잡고 창작할 작품의 내용과 형식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가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종자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에 기초하여 창작에서 속도와 질문제를 론의할 때에는 반드시 종자문제를 론의해야 하며 종자가 좋고 확고해야 창작의 속도도, 작품의 질도 높일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당에서 밝힌바와 같이 종자는 주제와 사상, 소재가 하나의 유기체에 결합된 작품의 기본핵이다.

종자를 바로잡는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는 사변들가운데서 의의있고 중요한 소재를 선택하는 문제인 동시에 자기 작품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것인가 하는 기본문제를 명백히 하고 생활에 대한 평가와 일반화의 알맹이를 옳게 건어쥐는 문제이다. 종자를 바로잡지 못하였다는것은 그만큼 그 작품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사상미학적지향성이 흐리멍텅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속도와 질을 높이려고 하여도 높일수 없다. 왜냐 하면 바로잡지 못한 종자로 말미암아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자세가 부단히 동요상태에 놓이게 되고 창조과정에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되기때문이다.

식물의 종자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움이 빨리 트고 줄기와 아지가 무성하게 빨리 자라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듯이 문학예술창작에서도 종자를 옳게 골라잡아야 구상단계를 촉진시키고 형상과정의 속도도 확신성있게 높이면서 그 질도 높여나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속도전을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 및 근로단체와 행정부서들의 역할을 높이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창조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야만 작가, 예술인들이 정치적열의를 높이고 속도전이 요구하는대로 모든 창조적인정과 지혜를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빨리 창작해내는데 다 바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창조원칙이며 작가, 예술인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

*　　　*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혁명적문학예술창조를 위한 실천행정에 빛나게 구현하여 내놓은 우리 당의 속도전방침은 그 독창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속도전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먼저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킨데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이 내놓은 속도전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

인 당의 문예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게 되였으며 그 어떤 바람에도 드놀지 않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의 대오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달리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이 거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며 혁명적문학예술의 가일층의 개화발전을 위한 위력한 담보이다.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은 또한 그것이 우리 문학예술의 전례없는 창작적앙양을 가져온데 있다.

속도전방침은 맨 먼저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서 구현되였다.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불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렇듯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는 기념비적명작으로 창조해내고 이 과정에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인 생활과 공산주의적창조기풍을 말해주는 《백두산창작단의 일솜씨》가 태여난것은 속도전방침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당은 이렇게 속도전의 본보기를 창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특히 당에서는 새로운 주체적혁명가극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속도전을 벌리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수백년의 력사를 헤아리면서도 아직 혁명을 일으키지 못한 종래 가극예술의 온갖 제한성을 극복하고 우리 시대에 알맞는 전혀 새로운 주체적혁명가극을 창조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당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였으며 위대한 가극혁명을 수행하면서도 혁명가극창조에서 상상할수 없는 비상한 속도를 내도록 작가, 예술인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가극예술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는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불과 2년동안에 무려 5편씩이나 창조하는 기적을 쌓아올렸다.

이렇듯 속도전이 벌어지는곳마다에서 전진과 비약, 기적과 혁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창작에서 대고조가 일어났다.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은 그것이 창작에 대한 온갖 부르죠아적, 수정주의적 궤변을 쓸어버리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철저히 고수하였다는데도 있다.

속도전의 경험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빨리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할수록 작품의 창작속도와 형상수준도 더욱 높아진다는것을 실증함으로써 창작에서 안일을 추구하는 부르죠아적 관점과 태도에 타격을 주고 혁명하는 시대의 작가, 예술인들이 어떻게 살며 창작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독창성과 정당성이 검증된 탁월한 문예방침이며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창조원칙이다.

속도전방침은 오늘 문학예술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도 빛나게 구현되여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창작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배치에 관한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전 대 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해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다시금 이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민이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투쟁에서 쌓은 귀중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리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를 찾는 수많은 외국손님들도 조선에서 생산력이 잘 배치된데 대하여 일치하게 말하고있으며 특히 공해방지대책이 빈틈없이 세워진데 대하여 경탄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공해가 없는 나라》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생산력의 합리적배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일신시켰다. 조국의 산천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활환경도 완전히 개변되였다.

수령님의 생산력배치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힘있게 실증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생산력배치리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생산력의 합리적배치에 관한 리론을 깊이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체사상의 요구를 잘 알아야 한다.

왜냐 하면 수령님의 모든 사상과 리론은 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2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하는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로동계급과 그 당의 혁명적 세계관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언제나 근로하는 사람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주체사상의 요구, 가장 철저한 로동계급적립장에서 생산력의 합리적배치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전민소유로서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고 개인독점자본이 없는 조건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인민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능히 강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에도 그랬고 정전직후에 공업을 복구건설할 때에도 공장들이 인민들에게 유해롭지 않도록 하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생산력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과 한 담화》, 25~26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기술적사업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공업건설과 관련되는 문제인 동시에 국토건설과 인민들의 생활환경의 개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소멸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과업해결과 관련되는 만년대계의 중요한 사업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이 땅우에 건설되는 모든 창조물들, 공장과 발전소, 광산과 탄광, 항만과 철도, 하천과 산림 등은 모두다 근로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유족하게 할뿐아니라 자연환경까지 포함하여 모든것이 근로하는 사람들의 다방면적인 발전에 가장 유리하게 꾸려질것을 요구한다.

잘 꾸려진 환경은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발전, 건강과 생명에 좋은 영향을 준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합리적으로 배치된 공장과 기업소들, 알뜰하게 꾸려진 도시와 마을들, 전야와 산천은 거기에서 살며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하며 그들의 로동과 생활을 흥겹고 보람차게 만든다.

생산력의 합리적배치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과업들 특히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과업과 결부시키신 수령님의 사상의 독창성과 혁명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에 완전히 맞는 가장 정당하며 과학적인 리론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주권을 잡고 공업을 건설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결국 그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며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생산력의 배치문제를 어디까지나 근로하는 사람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보장하는 립장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력배치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기초하여 풀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철저하게 혁명적인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인민들의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줄뿐아니라 래일의 보다 휘황한 생활의 전망을 활짝 열어주고있다.

그러므로 생산력의 합리적배치를 위한 당의 정책은 마땅히 사회주의제도의 이 근본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생산력배치리론에는 우리 세대 인민들뿐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행복과 우리 조국의 미래, 우리 혁명의 미래에 대한 그이의 가장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가 집중적으로 체현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일군들에게 우리가 하는 사업은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위한 위대한 사업이라고 가르치고계신다.

미래를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이다.

비록 우리 세대는 좀 고생을 하더라

도 우리의 후대,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며 보다 훌륭한 재부와 생활환경을 마련하는것은 혁명가의 도리이며 높은 긍지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력배치문제를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원대한 전망과 관련되는 만년대계로, 참다운 인민적시책으로 내놓으신 수령님의 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은 사람들의 심금을 한없이 울리며 그들을 위훈에로 부르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생산력배치의 사회주의적원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력배치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그 해결을 위한 원칙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생산력을 배치하는데서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며 인민경제부문들의 균형적발전과 나라의 전반적지역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빨리 줄이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14페지)

《우리는 공업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될수 있는 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내세우고있습니다.》(《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과 한 담화》, 25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적생산력배치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는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이것은 나라의 자연부원과 로력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생산력을 배치하는데서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는것은 특히 경제가 국내원료원천에 발붙이고 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는 자립적인 사회주의적민족경제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원료원천지와 소비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다. 이것은 해방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지장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배치에서의 이러한 불합리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공업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며 원료와 제품을 쉽게 운반할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곳에 배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그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자면 생산력배치에서 또한 인민경제부문들간의 균형적발전과 나라의 전반적지역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공업배치에서 인민경제부문들간의 균형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국내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할수 있으며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이와 함께 나라의 어느 한 지역도 뒤떨어진데가 없이 모든 지역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례를 들어 우리 나라에서 평안남도나 그밖의 벌방지대에 자리잡고있는 몇개 도에서만 경제가 발전하고 평안남도 한곳에서는 양덕군이나 맹산군이 뒤떨어진채로 있고 문덕군이나 숙천군만 발전한다면 공산주의가 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모든 도, 모든 군,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건설에서 될수 있는 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사회주의공업건설의 이 원칙도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일정한 지대를 선택하여 공장들을 세울 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사회주의국가가 생산력배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과업의 하나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련계를 강화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하루속히 없애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적생산력배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빨리 줄이는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나서게 된다.

나라의 생산력을 배치하는데서 이 원칙을 지킬 때 지난날 뒤떨어졌던 농촌들에도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건설되여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이 강화될수 있으며 도시의 선진적인 기술과 문화가 농촌에 대대적으로 들어갈수 있다.

이것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하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공장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나라의 생산력을 배치하는데서 견지한 원칙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전후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는데서 복구의 속도를 보장하며 자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은 원위치에 복구하였지만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들은 여러 지역들에 분산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14~15페지)

수령님께서는 이 교시에서 생산력배치의 사회주의적원칙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전후 공업을 복구건설할 때에 파괴된 공장들을 원위치에 기계적으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나갈것이 아니라 공업을 재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은 복구의 속도와 경제상절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자리에 그대로 복구하지만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들은 여러 지역들에 분산배치하도록 하는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우리 나라 공업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새로운 공업지구들 특히 기계공업의 새로운 터전을 몸소 하나하나 마련하여나가시였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을 분산배치함에 있어서 그것이 당장에는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지만 전국의 모든 도들에 현대적인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투쟁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우리 당은 지어 나라의 거의 모든 군들에까지 현대적인 중앙공업기업소들을 배치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공장, 기업소들을 분산배치함에 있어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킨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공업건설에서 대중소병진정책을 실시하며 특히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중앙경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서 좋은 점들이 많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짧은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자금을 중공업과 중앙경공업**

여 집중하여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또한 농민들의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빨리 추켜세우고 도시주민들에 대한 소비품공급사업도 개선할수 있게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4페지)

중소규모의 지방공장들은 돈을 적게 들이고도 짧은 기간에 많이 건설할수 있으며 생산을 빨리 시작할수 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면 또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제때에 수매가공하여 농민과 도시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일용품을 많이 공급할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산의욕도 더욱 북돋아줄수 있다.

지방공업은 원료산지에 접근하고 소비지와 직접 련결되여있다.

그러므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원료수송에서나 제품을 공급하는데서 유리하며 지방에 있는 많은 유휴로력과 유휴자재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

지방공업은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데서도 큰 역할을 논다.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 농업국가로 되였기때문에 농촌에 많은 인구가 살았다. 나라의 공업화가 실현되여 농촌인구의 비중이 훨씬 줄어들었으나 우리 당은 도시에 인구를 너무 집중시키지 않는 방침을 취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몰려들고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하다.

공장을 도시에만 집중하게 할것이 아니라 지역적특성에 맞게 여러곳에 건설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고 도시에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폐단들을 미리 막을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강산이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고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대규모공업과 함께 중소규모공업을 지방에 널리 배치하는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빨리 줄이는데서도 매우 좋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게 한다.

지방에 공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이밖에도 좋은 점들이 많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예견성있게 공장, 기업소들을 여러곳에 분산배치하도록 하신 현명한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이미 그 정당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수령님의 이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는 새로운 공업지구들이 수많이 형성되고 지방들에 종합적인 공업생산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지난날 공업배치에서 가지고있던 부족점들과 불합리성은 완전히 극복되였다.

공업의 합리적배치는 나라의 자연부원과 로력원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공업의 합리적배치는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밀접히 하여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훨씬 줄일수 있게 하였다.

공해가 없는 우리 나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의 합리적배치는 몇개 도시에 공장과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것을 방지하고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큰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공해현상을 미리 막을수 있게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생산력의 합리적배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의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공해현상을 미리 철저히 막을수 있게 한것이다.

공해란 인간의 생산활동의 결과 환경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변화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파괴되는 유해현상이다.

공해는 생산수단이 소수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들어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낳은 산물이다.

자본주의반동통치배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은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하여 공해로 인한 인간환경의 파괴는 현대산업건설에 반드시 뒤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 반동리론의 기만성을 여지없이 론박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세상에서 비할바없이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아무러한 공해현상도 모르고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있다.

아직 세계의 산업혁명력사는 공해문제까지 미리 예견성있게 타산한 기초우에서 공업화를 실현한 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이는 오직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 공업건설에서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되였다.

강력한 공업국가이면서도 공해를 모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강력한 공업국가를 창설하시면서 언제나 공업건설에서 공해방지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며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지상락원, 공산주의무릉도원을 마련하여 주시려는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하나의 공장과 광산, 탄광을 건설하는데서도 항상 국토건설 총전망계획에 철저히 립각하도록 하시였다. 그뿐아니라 수령님께서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우리의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장의 굴뚝하나, 집 한채, 나무 한그루, 강줄기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공업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공해를 예견성있게 막기 위하여 얼마나 심려하시고 인민적시책을 끊임없이 베푸시였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몇가지 사실에서도 가슴뜨거이 찾아볼수 있다.

평안북도의 어느 한 자그마한 광산에서 있은 일이다. 이 광산에서 쇠돌을 캘 때에는 주변을 흐르던 강에 물고기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아신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산천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금은보화를 될수록 많이 략탈해가자고 했기때문에 탄광과 광산 같은것을 되는대로 마구 벌려놓았다고 하시면서 그 광산을 그만두게 하시였다. 그후부터 이 강에는 뱀장어, 메기를 비롯한 물고기가 다시 올라와 로동자들이 일요일이면 낚시질을 하며 유쾌히 휴식할수 있게 되였다.

그전에 우리의 일부 일군들이 묘향산에서 금을 캐자고 하였을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금 몇톤때문에 그 아름다운 산을 못쓰게 만들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리 막으시였다.

이것은 한두가지의 단편적사실이다.

공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 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령님의 심려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경제건설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에 뜨겁게 미치고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

는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 신선한 공기, 맑은 물, 록음우거지고 짐승들이 뛰노는 산과 고기떼 욱실거리는 강과 호수들…이 모든것은 다만 자연이 주는 것이라고 말할수 없다.

거기에는 근로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최대의 배려를 돌리시며 조국의 산천과 자연부원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크나큰 은덕이 깃들어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와는 달리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공해현상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해현상은 날을 따라 모든 분야에 더욱더 빨리 퍼지가고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에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전쟁정책과 군비경쟁으로부터 오는 정치공해외에도 공업생산과 류통과정에서 생기는 산업공해와 도시경영의 불합리, 도시주민의 지나친 밀집에 의한 도시공해의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 생활환경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고있으며 인류의 재부는 수없이 탕진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해는 이미 《핵무기에 비길만한 인류의 적》으로까지 등장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공해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사회에서 그 뚜렷한 실례를 찾아볼수 있다.

오늘 남조선의 도시들은 각종 공해로 하여 오염될대로 되고있다. 얼마전에 다른 나라 신문에 실린 한 글에서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고 어지러운 도시라고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에서 공해방지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공해산업을 다른 나라에서 마구 끌어들이고있다.

일본 도꾜에서 발행되는 《민단》계 신문 《민족시보》 최근호는 《오염물질의 폐기장, 일본자본의 남조선진출》이란 제목의 글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파쑈통치집단의 반민족적매국행위를 신랄히 폭로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요즘에 이르러 일본의 대자본 특히 일본에서 발을 붙일수 없는 공해산업이 마치 돌격나팔이나 들은듯이 대거하여 남조선에 대한 상륙을 시작하였으며 박〈정권〉은 쌍수를 들어 이를 환영하고있다.

〈공해같은것쯤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남조선괴뢰당국자는 관료들을 부추겼다고도 한다.

그는 무슨 리유로 제 나라의 국토를 일본자본의 리익을 위한 오염물질의 폐기장으로 만들면서까지 일본자본을 끌어들이는데 피눈이 되여있는가?》

사실은 명백하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일본에서 《오물단지》로 버림을 받는 공해산업까지 끌어들이는것으로 남조선경제를 일본독점자본에 예속시킴으로써 미국놈들뿐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적지원》을 보장받으며 이른바 《승공통일》을 하여보자는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은 남조선위정자들의 반인민적파쑈독재정치와 매국배족행위를 결코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력사는 놈들의 죄악적행위를 조만간에 심판하고야말것이다.

지금 제국주의반동통치배들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날로 더욱 심각화되고있는 공해문제와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부딪쳐 이른바 《공해방지》요, 《공해추방》이요 하면서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에게 독점되여있고 모든것이 리윤추구에 복종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공해방지란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반인민적자본주의제도자체를 뒤집어엎을 때라야 실현될수 있다.

모든 사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세상에서 비길데없이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더욱더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경제문화적침투는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의 올가미

강 은 식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일본경제의 군국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경제문화적침투를 통하여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침략책동을 전면적으로 발가놓으시였으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여 그것이 군국주의의 재생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데 리용되지 않고 일본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일본반동지배층은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아직 해외에 파병은 하지 않고있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이런데서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35페지)

오늘 일본반동들은 일본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게 나라의 군국화를 적극 다그치고있으며 미제에 의하여 급속히 팽창된 일본독점자본은 일본군국주의를 위하여 해외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놈들은 경제문화적침투를 통한 극히 교활한 수법으로 해외침략의 길을 닦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로 침략의 검은 손길을 뻗쳐나가고있다.

현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경제문화적침투가 결코 그 어떤 《선심》에서 나온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 지역 나라들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흉악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올가미로 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그 해외팽창에 경각성을 높이며 놈들의 교활한 경제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일본인민들과 아세아인민들 그리고 세계의 진보적인민들 앞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   *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서 군사적침략에 앞서 경제문화적침투를 상투적수법으로 리용하고있다. 그것은 경제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닦아놓음으로써 정치, 군사적 침략을 보다 손쉽게 실현할수 있기때문이다. 자본에 뒤따라 군함과 대포가 나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유한 침략수법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바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아세아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적지반을 닦고있으며 그것을 확대해나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해외팽창의 더러운 야망밑에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무런 제재도 받음이 없이 세계의 모든곳을 마음대로 싸다니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

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8~49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허울좋은 《원조자》의 탈을 쓰고 상품과 자본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경제적으로 예속화하고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나아가서 저들의 경제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침략무력까지 들여보내는 방법을 쓰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의 경제문화적침투는 이미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것은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경제문화적침투는 남조선과 동남아세아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대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일본독점자본의 부활에 요구되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상품 및 자본 수출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데서 유리한 지역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일본반동들은 무엇보다도 교활한 경제문화적침투의 방법으로 또다시 남조선에 기어들어 식민지통치자로서의 옛 지위를 회복하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나아가서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오만하게도 《남조선을 일본의 경제권내에 끌어넣어야 한다.》느니, 《한국경제의 자주권과 자원의 핵심은 일본이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느니 하면서 남조선경제를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전후한 시기에는 《연불수출》, 《보세가공》 등의 방법으로 남조선에 침투하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경제협력의 미명밑에 《차관》, 직접 및 합작 투자와 같은 형태로 공개적으로 남조선에 기여들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더욱 깊이 침투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직접 및 합작 투자액은 1965년에 비하여 1969년에 벌써 22.5배로 뛰여올랐으며 오늘에 와서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을 훨씬 릉가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놈들은 한편 잉여상품을 비싼값으로 남조선에 팔아먹고 남조선의 원료를 헐값으로 략탈해감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얻고있다.

지난해 9월초 일본당국자들이 서울에 가서 남조선위정자들과 《한일각료회담》을 벌려놓고 이른바 《원조》를 주는 대가로 《공업소유권협정》까지 체결한것은 일본독점자본이 오늘 남조선의 경제에 더욱 깊이 뚫고 들어가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일본독점자본과 그 앞잡이들은 지금 물밀듯 남조선에 쓸어들어 남조선경제의 모든 분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남조선에는 120개이상의 일본독점체들이 저들의 지부를 설치해놓았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이에만 하여도 각종 이름밑에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독점자본과 그 앞잡이들은 무려 35만 4천 400여명이나 된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날이 갈수록 일본독점자본의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로 전변되여가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로골화되는 경제적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수많은 자원이 또다시 일본에로 끊임없이 건너가고있으며 남조선경제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지배와 예속이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일본독점자본에 대하여 남조선의 출판물들까지도 《한국속의 일본경제의 움직임은 구한국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꺼진이후 밀어닥쳤던 일본바람과 비교된다.》, 《식민지마약이 남조선의 곳곳에 배여들어 일본상품의 시장화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

섰다.》고 개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모든 사실은 일본독점자본의 경제적 침투가 결코 남조선에 대한 그 어떤 《원조》로 되지 않으며 그것은 철두철미 침략과 략탈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음흉한 책동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오늘 남조선과 함께 동남아세아지역에 대한 경제적침투에 그 어느때보다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일부 동남아세아나라들이 처한 경제적난관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 《정부차관》, 《직접투자》, 《합영기업》과 같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자본수출을 강화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으며 《경제원조》에 큰 정치적부대조건을 붙여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화하고 반제전선에서 떼여내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허울좋은 《공동개발》이라는 이름밑에 동남아세아나라들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교활한 방법으로 긁어가고있다. 놈들은 이 지역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니켈, 주석, 망간에 대한 채취를 통제하고있으며 필리핀에서는 동광, 싱가포르에서는 원유, 타이에서는 생고무의 생산을 틀어쥐고있다. 놈들은 이 지역에서 막대한 자원을 끌어다가 가공하여 다시 수출함으로써 2중의 폭리를 얻고있다.

동남아세아지역에서 일본독점자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회사만 하여도 무려 3만 5천개이상에 달하고있다. 전일본총리였던 사또놈이 동남아세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총액이 일본대외수출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고 떠벌인것은 일본반동들이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침투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1970년대의 10년을 아세아개발의 10년》으로 되게 한다고 줴치면서 동남아세아지역나라들에 대대적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있으며 《기술협력》과 《경제사절단》의 이름밑에 일본독점자본의 척후병들이 더러운 야망을 가지고 이 지역에 빈번히 드나들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경제적침투로 인하여 동남아세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일본상품이 범람하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는 일본독점자본에 의하여 심히 침식당하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경제적침투는 비단 남조선과 동남아세아지역에만 국한되여있지 않다. 놈들은 중근동, 아프리카지역과 라틴아메리카의 먼 지역에까지 침략의 더러운 발길을 뻗쳐나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중근동과 아프리카는 《잠재적인 시장이며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수출》과 《개발》 및 《원조》를 《촉진》해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자원개발》을 맡아볼 기구를 내왔으며 현지에 《기술협력쎈터》, 《은행지점》들을 설치하여 해외팽창을 위한 기지를 닦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아프리카의 한개 나라에서만 하여도 지난 2년간에 40만톤의 철광석을 략탈해갔으며 1972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에는 이 나라에서 매해 무려 110만톤의 철광석을 략탈해가려고 꾀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독점자본은 《국제적협조》의 간판밑에 브라질, 아르헨띠나, 도미니까, 뿌에르또 리꼬 등 많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침투하여 저들의 경제적지반을 마련하고있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는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도모산하의 회사들과 제조소들을 비롯한 200여개의 일본독점회사들이 자기들의 자매회사를 가지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의 재부를 략탈해가고있다.

이렇듯 경제적침투를 통한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은 이미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본독점자본의 경제적침투의 검은 마수가 뻗쳐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자원과 재부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통하여 일본독점자본은 더욱더 비대해지고있으며 반대로 놈들의 경제적침투의 올가미에 걸려든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일본독점

자본에로의 예속화의 현상이 날로 증대되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경제적침투와 때를 같이하여 사상문화적침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추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58페지)

일본반동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친일사상을 부식함으로써 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지반을 축성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선린우호》를 표방하면서 《사절단》이요, 《시찰단》이요, 《견학단》이요, 《교류단》이요 하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만명에 달하는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남조선의 언론, 교육, 문화분야에 널리 침투시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의 친일사대주의자들을 부추겨 남조선의 각 대학들에 《일본말강좌》를 설치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 《일본말강습소》를 꾸려놓고 일본말을 《보급》시키고있다. 또한 놈들은 반동적인 출판물과 영화를 남조선에 들이밀어 퇴폐적인 부르죠아 생활양식과 생활풍습을 류포시키고있으며 통신, 방송을 통하여 《반공》사상과 친일사상을 끊임없이 불어대고있다. 지어 놈들은 황당한 《일한량국동계론》까지 들고나오면서 남조선인민을 우매화하려 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전지역에서는 썩어빠진 양키식문화와 함께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놈들이 퍼뜨리고있는 친일사대주의사상이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더럽히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까지도 《오늘 남조선에는 혐오증이 날 정도로 양풍과 왜풍이 휘몰아치고 퇴페적인 풍조와 류행이 홍수처럼 범람하고있다. 수없는 일본사람들이 제땅처럼 드나들고 그속에 왜풍이 들이닥쳐 마치도 서울은 일본의 어느 한 도시를 방불케 하고 남조선이 미국인지 일본인지 분간할수 없게 되였다.》고 개탄하면서 일본반동들의 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이 급속히 《문화적이방지대》로 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우려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퇴페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적독소의 침습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민족문화가 짓밟혀 빛을 잃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의식이 유린당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엄중한 장애를 받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뿌리고있는 퇴페적인 반동적사상독소는 오늘 세계의 넓은 지역에로 퍼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에 기여들어 친일사상을 부식하고 왜색, 왜풍을 퍼뜨리며 민족허무주의를 설교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침략을 위한 사상적지반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파견하고있는 이른바 《해외청년봉사대》, 《교원》, 《기술자》들은 다름아닌 사상문화적침투를 위한 길잡이들이다. 놈들은 《일본청년들의 안목을 세계에로 확대한다.》는 구실밑에 해마다 수많은 일본청년들을 동남아세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지역에 싸다니게 하면서 제놈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한 분주한 활동을 벌리고있다.

한편 놈들은 일본의 색정적인 소설과 잡지, 화보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으며 《도서전람회》, 《사진전시회》, 《서적연구회》등을 빈번히 벌려 왜색왜풍을 전파하는데 미쳐날뛰고있다.

모든 사실은 오늘 일본반동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일본반동들이 오늘 이처럼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제놈들의 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해보

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바로 일본독점자본의 급속한 팽창과 그 해외침략야망 그리고 일본경제의 취약성으로부터 오는 필연적인 산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팽창될대로 팽창되였으며 다시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정책은 바로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실시되고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99페지)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일본독점자본은 오늘 급속히 팽창되였다. 독점자본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부활과 팽창으로 말미암아 생산과 자본은 고도로 집중되고있으며 집적되고있다. 전체 회사의 0.2%도 못되는 소수의 대독점체들이 전체 회사 자본총금액의 70%이상을 장악하고있으며 선철, 자동차, 동, 알루미니움 등 중요공업제품생산에서는 70~90%가 5개의 독점체들에 집중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급속한 팽창에 일본의 국내시장은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그리하여 일본경제는 심각한 과잉생산위기에 부닥치고있으며 생산에서의 침체와 그리고 체화현상이 증대되고있다. 여기에 미국독점자본의 진출과 미국상품의 투입은 일본독점자본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팽창과 협소한 국내시장간의 모순은 이전처럼 식민지를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으로 하여 오늘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며 《안정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독점자본의 팽창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경제적난국에서 벗어나보려 하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해외팽창을 그처럼 강화하고있는것은 또한 일본의 지리적위치 그리고 일본경제의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공업원료를 거의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은 자체의 튼튼한 원료원천지를 가지고있지 못하며 대부분의 공업원료들을 해외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공업의 원료들인 양털, 목화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있으며 중공업의 원료들인 철광석은 96%, 원유는 99%, 동광은 70%, 소금은 80%, 보크사이트와 니켈은 100%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해외의 공업원료는 일본독점자본의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독점자본은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서던 초시기부터 원료, 자금 및 식량 부족의 해결을 해외침략의 길에서 찾았으며 오늘도 일본독점자본은 원료문제해결을 위하여 그처럼 굶주린 승냥이마냥 해외팽창에 혈안이 되여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현시기 일본반동들이 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경제문화적침투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은 세계인민들 특히 아세아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반제전선을 와해함으로써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날 아세아인민들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와 그리고 오늘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고있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아세아인민들이 더욱 각성되고 그들속에서 반일투쟁의 기운이 높아가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일본반동들은 이 지역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교활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고 옛식민지

지배권을 다시 확립해보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경제문화적침투는 이처럼 일본독점자본의 팽창으로부터 오는 결과이며 변천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의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해외침략수법이다.

그러므로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일본독점자본이 날로 비대해지는데 대하여 더욱 경각성을 높이며 놈들의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일본반동들에 대하여서는 조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놈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걸지 말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이 결코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에게 《선심》을 쓸수 없다. 비대해질수록 한푼의 리윤이라도 더 짜내며 한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려고 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아세아와 세계진보적 인민들은 일본반동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벗》으로 가장하고 기여들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의 침략적정체를 낱낱이 반가놓고 놈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일본반동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마음대로 싸다닐수 없게 된것이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고립당하고 쫓기나게 된것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경제문화적침투의 교활한 방법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 있지만 놈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저들의 더러운 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일본경제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계속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 말것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36~37페지)

오늘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어제날 얼마안되는 제국주의 억만장자들이 활개치고 주인행세를 하며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던 지역이 아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결코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인 길로 나가고있으며 그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되고있다.

남조선과 동남아세아지역에서 반일감정이 높아가고있으며 일본반동들의 경제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지금 타이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은 일본상품배척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일본반동들의 경제적침투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특히 타이인민들은 반일지하조직을 뭇고 일본독점자본이 타이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걷어치우지 않는다면 더욱 단호한 반일투쟁을 벌릴 결의를 다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시대의 흐름과 정세의 추이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와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해외팽창의 길에 계속 깊이 뛰여든다면 그들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쓰라린 결과가 차례질것이다.

근 로 자 제12호(루계 38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3년 12월 1일 발행•1973년 12월 5일

ㄱ—34320 값 50전

1973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 페 지

편집국론설

혁명전통

호페지

당 건 설

정치사상문제

경제건설

호 폐지

남조선문제

국제문제

형제나라들과 형제당들에서